인혁당 사건, 그 진실을 찾아서

· 펴낸이 : 재경대구경북민주동우회,
민청학련 · 인혁당진상규명위원회
· 저 자 : 전창일, 강창덕, 정화영, 임규영, 림구호
· 발행일 : 2005년 7월 21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인혁당 사건, 그 진실을 찾아서

재경대구경북민주동우회
민청학련·인혁당진상규명위원회 편

인혁당 사건, 그 진실을 찾아서

1판 1쇄 발행 | 2005년 7월 21일

펴 낸 이 | 재경대구경북민주동우회
민청학련 · 인혁당진상규명위원회

주 소 | (100-758)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34-5번지
배재정동빌딩 B동 2층

전 화 | 02-3709-7617
팩시밀리 | 02-3709-7550
이 메 일 | isl5506@hanmail.net

※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

발간사

숭고한 뜻 오늘에 담아

"인혁당은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한 흔적도 없고 민주화운동을 한 근거도 없다. 그래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이 될 수 없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인혁당사건을 보는 시각이다. 사람들은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면 분노의 단계를 넘어 실소를 금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 이해에만 몰두하였으면 일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나 하는 반성과 함께 인혁당사건으로 돌아가신 선배

들과 옥고를 치른 분들에게 죄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다. 비록 늦었지만 우리들은 인혁당 선배들의 투쟁적 삶의 편린들을 기록하기로 한다. 이것을 통해 박정희와 그 파쇼 일당에 의해 조작된 인혁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주춧돌이 되고자 한다.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서도원, 도예종 선생 등은 우리 민족 민주민중운동에 뿌리를 두고 한 평생을 투쟁해온 민주인사들이다. 4·19 혁명 후 민족의 평화통일운동에 헌신하였다. 5·16 박정희 군사 쿠데타 후 서도원 선생은 교도소에 가시고 도예종 선생은 피신의 길을 걸으시는 등 민주민중운동을 위해 한 평생 싸워오신 분들이다.

또한 박정희 군사 파쇼 일당의 굴욕적 한일회담에 반대하여 민족자주적 입장에서 굴욕외교 반대투쟁을 지도하신 분들이다. 그 결과 제1차 인혁당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였다. 그 후 3선개헌 반대투쟁을 지도하였고, 특히 유신헌법 반대투쟁인 민청학련 운동에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신 분들이다. 이에 박정희 유신체제는 중앙정보부를 앞세워 제2차 인혁당 사건을 고문으로 조작하고 우리의 선생들을 사형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사람이 먹고 사는 모습은 각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생산을 많이 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많이 생산하고도 나누어주지 않고 폭압적 수탈 정책을 유지한다면 대중들은 이러한 사회를 외면하게 되고 새로운 사회를 요구하게 된다. 새로운 사회로 가는 길에는 급진적인 방법도 있고, 하나하나 개선해 가는 점진적인 방법도 있다.

어떤 지도자는 경제발전만 추구하고 분배는 소홀히 하다가 대중들의 저항에 부닥쳐 쫓겨나기도 하고, 어떤 지도자는 분배나 복지를 우선시하고 경제발전을 소홀히 하다가 반동을 불러오는 우를 범하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에서 보아왔다.

인혁당 선생들은 경제 발전과 그 발전에 따른 분배, 복지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진보의 역사를 추구하였다. 민족자주적 평화통일, 대외관계에서 호혜평등 실현, 생산력 발전에 따른 민족번영, 민주주의 발전, 우리 민족의 몸에 맞는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연구 노력하고 투쟁하였다.

인혁당 선생들이 박정희 파쇼정권의 형장의 이슬로 가신지 30년. 이 기회를 빌어 그 분들의 숭고한 뜻을 계승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역사적으로 올바른 평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 온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와 천주교인권위원회, 인혁당대책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제 우리 그 분들의 뜻을 이어, 밝고 맑은 세상 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 돌아가신 여덟 분의 영령을 위로하며 삼가 그 분들의 영전에 이 책을 바친다.

2005년 7월

재경대구경북민주동우회

민청학련 · 인혁당진상규명위원회

인혁당 사건, 그 진실을 찾아서

차례

발간사 ● 3

세칭 인혁당을 말한다 _ 전창일 ● 9

아! 4월 9일이여 _ 강창덕 ● 79

영원한 님, 그대의 길을 따라 _ 정화영 ● 93

민청학련사건과 나 _ 임규영 ● 129

4 · 9, 한 세대를 넘어 _ 림구호 ● 165

세칭 인혁당을 말한다

● 전 창 일

*전창일은 함경남도 북청 출신으로 1947년 북청공업학교 기계과를 졸업하고, 월남하여 공영토건, 극동건설 등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다. 1960년 민자통 중앙위원으로 민족의 자주통일운동에 참여하였고, 1974년 소위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82년 12월 석방된 후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상임부의장, 민족화해운동연합 상임공동의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통일연대 상임고문으로 일하고 있다.

1. 머리말

사람이 현실의 어려움을 견뎌내기에는 고통이 수반된다고들 한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어려움도 시간이 흘러 과거가 되면 아름다운 추억으로 회상된다고도 한다. 하지만 내가 겪은 과거사 중에는 회상하면 할수록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악몽 같은 회상. 그것이 바로 내가 체험한 세칭 인혁당 사건이다. 그러기에 여러 곳에서 원고 청탁이 있었으나 매번 사절하여 왔다.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은 그들이 가장 제어하기 어려웠던 학생들의 반독재 민주화를 위한 저항운동의 지원 혹은 지지 세력에 대한 차단과 색출, 그리고 모략과 조작으로 탄압의 합리화를 꾀해 왔다.

군사 쿠데타로 합헌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는 정치적 식언을 거듭하며 1969년 삼선개헌을 통해 연명해 온 정권도 이제 그 수명이 다해 옴을 우려하여 1972년 10월에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였다.

박정희는 헌법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시키면서 소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법'이란 것을 '비상국무회의에서' 불법으로 제정하여 동년 11월 21일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같은 해 11월 27일에는 유신헌법을 선포하기에 이른다.

비상계엄령을 실시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자신의 영구집권이 보장되는 소위 유신헌법을 선포하자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운동이 일어났다. 개헌청원국민운동, 유신헌법철폐운동 그리하여 1974년 1월 8일에 대통령 긴급조치 1호, 동년 4월 3일에는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일으킨 운동이 민청학련 사건이다.

박정희 정권은 민주주의를 희구하는 학생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선의의 지원세력을 악당으로 날조하여 학생운동을 먹칠하려 했던 것이다. 이 선의의 지원세력들이 연루된 것이 인혁당 사건이다.

연루자들은 취조 과정에서 당국의 이러한 음모를 간파할 수 있었기에 학생들과의 관계를 있었건 없었건 간에 일관하여 없다고 부인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세월은 흘러 독재자는 비명에 죽고 나라의 민주화는 수구잔당들의 저항으로 아직은 미숙한 점이 있으나 나름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됐던 학생들이 인혁당 사건에 관계된 선배들로부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지도와 지원을 받았다는 증언을 하게 됨에 따라, 그리고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에서 민청학련 사건 당시 나에게 있었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기록을 남겨 달라는 요청이 있어 언제인가는 써야 할 글이기에 차제에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덮여져 왔던 인혁당과 민청학련이 '관련 없다'에서 '관련 있다'라는 진실은 이 사건에 대한 관점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은 사회적으로 별로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기에 유신헌법 반대세력을 위협적으로 억누르기 위한 박정희 공포정치의 표적이 되어 무고하게 희생된 것처럼 인식되기도 하였다. 마치 천동

치는 폭우 속에 농로를 걸어가던 이름 없는 농부들이 재수 없게 벼락 맞아 희생된 것 같은, 이러한 돌발적 단순사건으로 보는 협애한 관점은 가려진 역사적 진실을 보는 혜안을 가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관전의 전환은 이 이름 없는 농부들은 장구한 이 나라 이 민족의 자주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동학농민혁명을 근대사 최고의 금자탑으로 귀중히 여기며,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노선을 견실히 걸으며 반독재 민주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저해하는 온갖 반동세력과 저항해 온 민중의 역사를 생산하는 운동가들이였다. 이 글은 나의 직접적인 체험과 사건에 연루됐던 동지들의 증언만을 토대로 간략하게 정리한 것임을 밝혀 둔다.

2. 사건의 배경

(1) 4·19혁명과 혁신세력

세계적 냉전체제와 이승만 독재정치하에서 혹독한 탄압을 받은 이 땅의 진보세력은 거의 숨을 죽이고 있다가 1960년 4월 민주혁명으로 다시 기지개를 폈다. 혁명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7·29선거를 앞두고 이합집산을 거듭했던 혁신세력은 우여곡절 끝에 사회대중당준비위원회(1960년 6월 17일 결성), 한국사회당, 혁신연맹 등으로 선거에 임했으나 결과는 참패였다. 민·참의원 합하여 당선자는 겨우 7명에 불과하였다.

선거에 패한 사회대중당은 또 다시 분해되어 사회당(최근우), 혁신당(장건상), 사대당(김달호), 통사당(진보당계), 혁신당계)으로 갈라섰다. 그 외 한사당, 민주연맹, 민사당, 사혁당, 삼민당 등 소정파들도 난립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상도를 위시한 각 시도의 사회민주주의 세력들 사이에 혁신정당통합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혁신정당 대표자회의, 혁신세력대동통일추진위원회, 혁신통합신당결성준비위원회 등의 운동과 대구·부산을 중심으로 한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청년운동 '민족민주청년동맹(민민청)' 서도원, 도예종, 김상찬(위원장) 등이 주동이 되어 결성되었다.

그리고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같은 맥락의 '통일청년동맹(통민청)'의 우홍선(위원장), 진병호, 김영옥, 김재봉, 이규영 등이 주동이 된 일련의 민족통일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들은 정당운동보다도 조국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운동에 더 깊은 관심과 정열을 가지고 혁신세력을 하나로 규합하는 통일전선체를 구상하고 있었다.

마침내 혁신정당의 지도급 인사인 사회당의 최근우, 사회대중당의 김달호, 혁신당의 장건상, 혁신연맹 등 제 정파 대표들이 뜻을 같이 하기에 이르렀고, 통사당, 삼민당까지 합류하여 6개 정당 18개 사회단체 참가로 1960년 9월 초 역사적인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를 발기하여 결성대회를 1961년 2월 25일에 가졌다.

4월혁명의 주역인 대학생들은 '학생민족통일연맹(학생민통련)'이란 조직으로 민자통에 가입하였다. 선거에 참패한 후 사분오열되었던 혁신세력들은 이렇게 하여 민족통일운동 전선으로 결속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학생들의 의거와 헌신으로 정권을 잡은 민주당은 1961

년에 들어서면서 굴욕적인 한 · 미경제협정으로 대미예속을 가속화시키며, 새로이 세력화되어가는 혁신세력을 탄압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국가보안법 도모자라반공법과 집시법(일명 데모규제법)을 제정하려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2월 8일 미국과 ‘ 한 · 미경제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해 민자통을 중심으로 ‘ 2 · 8 한미경제협정반대투쟁위원회 ’가 결성되었다. 서울대를 위시한 시내 각 대학 학생조직도 이 투쟁위원회에 참가하였다. 4월혁명 후, 이것이 최초의 진보적 민족세력과 학생들의 연대투쟁일 것이다.

다음으로 민자통을 모체로 전개된 공동전선은 ‘ 2대악법반대 전국공동투쟁위원회 ’ 결성이다. 나는 이 운동에 기획위원과 실무위원의 한 사람으로 참가해 활동하였다.

(2) 5 · 16 군사 쿠데타

독재정치로 국민적 지지기반이 취약해진 이승만 정권 당시부터 호시탐탐 정권찬탈의 기회만 노리던 일단의 군부세력이 1961년 5월 16일 새벽 무장봉기하여 국가권력을 탈취하였다.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던 주한미군과 미국정부는 4월혁명 후 고양되는 자주적 평화통일운동에 불안을 느끼면서 한 · 일간의 국교 수립을 위한 교섭이 부진한 민주당 정권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는 터였다. 그들은 이 군사반란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정부는 제일 먼저 이들 군사정권을 지지 승인하고 원조하였다.

미국의 지지를 배경으로 정권찬탈에 성공한 군사정권은 우선 자주적 평화통일운동세력인 혁신계를 일망타진하여 검거하였다. 민자통에 가입한 학생민통련 간부 학생들도 검거되었다. 4월혁명 때, 비오듯 쏟아지는 총탄 앞에 몸을 던지면서 민주주의를 절규한 그들이었건만 모두가 북한의 ‘ 간접침략세력 ’으로 몰렸다. 나는 그 때 위급한 고비를 몇 번인가 겪으면서도 검거를 모면하여 피신해 있다가 수개월이지나 수배해제령이 내린 후에야 자유의 몸이 되었다.

나는 수배해제에서 풀려난 몇몇 동지들과 함께 서대문구치소와 안양교도소에 갇혀 있는 동지들을 여러 번 찾아가 집단면회를 하였다. 학생으로는 이수병과 유근일이 마지막 7년 동안 안양교도소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수난과 수모를 겪은 이 땅의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한 혁신세력은 수형생활과 정을 통해 서로 간의 사상과 의지를 점검하고 토론하면서 굳건한 동지애로 어제의 분열 분파를 극복하고 새로운 결속을 다짐할 수 있었다. 출소하는 대로 서로 만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무형의, 때로는 유형의 공동체가 자연발생적으로 이뤄져갔다. 지역과 계층이 따로 없었다. 전국적 규모였다.

(3) 한 · 일협정 굴욕외교 반대운동과 1차 인혁당사건

정치적 비판세력들을 모조리 가둬놓고, 야당세력은 ‘ 정치활동금지법 ’으로 모조리 묶어놓은 박정희 군사정권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인 미 · 일 · 한 공조체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 · 일간의 국교수립을 다그치고 있었다.

분단 상황에서 미국의 개입으로 이뤄지는 한일회담이 국민

의 여망에맞게 진행될리 없었다. 가두에서학원에서굴욕외교 반대! 한일협정반대! 목소리높아만가 천지를진동하였다.

'굴욕외교반대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면서운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장석구(2차 인혁당사건으로옥사)는이 단체의본부 임원으로활동하였고우리는지원을아끼지않았다. 학생들도대규모 시위를감행하였다. 이름직했던시위를역사는 '3·24, 6·3 운동'이라 한다.

굴욕외교성토 데모는급기야박정희군사정권타도로까지 발전하였다. 군사정권은서울시 일원에비상계엄령을선포(1964년 6월 4일)하고대대적인검거령을내렸다. 많은사람들이거리에서, 가택에서, 그리고학원에서감옥으로잡혀갔다. 많은사회인사와학생들이지명수배를받았다. 나는전국에지명수배를받고 피신해있는 학생(서울대심재택)을숨겨주고있었다.

이러한상황에서한 대학생집을 수색하는과정에서발견된 일기에적힌 내용이도화선이된 사건이소위 '인민혁명당사건'으로 비화된다. 1964년7월 하순에일어난일이다. 일기에는여러 차례 만난 사회 선배들에대한 칭송과존경, 그리고대화에서 받은 감명 등이 적혀 있었다는것이다. 이것을단서로중앙정보부는 일기장에적혀 있는 사람들과몇 차례의모임에참가한사람들을색출, 총41명을 검거 구속하여 '인민혁명당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위에서언급한바와 같이 이 땅의 자주 민주 통일을염원하며 활동하는의로운사람들은핍박과 탄압, 감시 속에서자유로운 정치활동과결사의자유가박탈돼있기 때문에시국관을같이하는서로 믿는동지들이함께 야외 혹은 조용한옥내에모여 담소하는일은 예전이나지금이나예사로있는 일이었다.

나는 이 사건에연루되어갇혀 있는 몇 사람을익히 알고 있었다. 그 중에 이재문(남민전사건의주범으로옥사)을 옥바라지하며 돕고 있는 가톨릭시보사여기자(후일이재문의부인이됨)와 연락을주고받으면서이성재(인혁당사건무기수), 장석구등과 협의하여조언과후원을해 주었다. 재판도빠지지않고 방청하였다. 여기서사건의주범으로돼 있던 도예종(2차 인혁당사건으로 사형)의법정진술한 두 토막을소개하겠다.

판사 인민혁명당이란조직을만든 것이 사실인가?

도예종 아니다. 우리의모임은당 조직이아니다. 다만시국관을 같이하는동지들끼리가끔 모여 토론하고정세에 대한견해와정보도교환하는친교서클모임이다.

판사 인민혁명당이란이름은어떻게돼서 나오게된 것인가?

도예종 언제인가우리들이4·19 묘지에서모여앉아영령들을 추모하며자연스럽게토론한적이 있다. 그 토론에서누구인가말하기를 '오늘의한국정치정세하에서 가장 올바른정당이 생긴다면그 정당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져야알맞을까?' 하는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에대해 몇 가지 답이 나왔는데, 그중한 가지 답이 왈 인민혁명당이다. 그것은월남이 우리처럼국토가분단돼 있고, 남과북 동족간에는통일하려고염원하고, 남쪽에서는외세에의존해정권을

유지하고있는예속정권과싸우는민중에기반을두고 있는 당이 바로 인민혁명당이기때문에더욱 그렇다는것이었다.

주범 도예종의설명에의해서도인민혁명당이란실체는 없었다. 하지만시국관을같이하는동지들의모임 즉 서클은있었다. 그 서클이한일협정을반대하며굴욕외교를성토하는운동에참가하는의로운학생운동을지지 성원했던것 또한사실이었다.

그러기에중앙정보부에서송치된 수사 자료를 검토 취조한 검사들은북한의 지령을 받고 만든 인민혁명당이라는지하조직은 중앙정보부에서고문과무리한수사로실체없이날조된것임을 밝혀내고공소를거부하게된다. 이러한검사들의견해에반발한 군사정권의중추 중앙정보부가압박을가함에따라 검찰 고위층에서는정보부의방침을따르도록강력히지시한다.

이에 불복하고검사들은사표를던지게된다. 이들이서울지검 공안부이용훈부장검사와김병리, 장원찬, 최대현검사다. 서울지검장서주연은부득이숙직중인정명래검사로하여금도예종 등 26명만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기소케했다. 공소를맡은 한옥신검사는피고들가운데학생을포함한14명에 대해서는공소를 취하하고, 12명에대해서만국가보안법대신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제정한반공법만적용하여기소한다.

1965년 1월 20일 열린 서울지법언도공판에서도예종3년, 양춘우(석방후 공화당가입) 2년 등 두 사람에게만유죄를선고하고 나머지11명은 무죄 석방했다. 이러한실체없는인민혁명당을 그 누가 어떻게재건하려한단 말인가? 나는묻고 싶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소가 웃을 일이 아닌가.

한국에는있지도않은 인민혁명당이아시아권에서는라오스에 있고, 캄보디아에있고, 몽골에도있다. 집권몽골인민혁명당은 인민민주주의국가체제를철폐하고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로개혁개방하고, 지금은국호도바꾸고당명도민주연합으로바꿨다.

혁명을완수할수 있는 혁명정당이란갖춰야할 필수요건들이 있는것이다. 예를든다면, 전투적노동자계급에기반을두고 계급의식을지닌 전위노동자를수용함으로써필요할 때에는 전투조직으로전환할수 있는 조직, 그리고철저한 당내 민주주의와 강력한중앙집권적상명하복의위계질서를요구하고있다.

마르크스의『자본론』유고를까지정리하여완간한칼 카우츠키는 “ 혁명은의지에의해서 원한다고이뤄지는것이 아니다. 그것은불가피한필연성으로서이뤄지는것이다. 의식적인 것에 선행하는무의식적인것, 즉 자생적발전을혁명은기다린다 ”고 하였다.

마르크스주의를러시아에적용하여1917년 러시아의전제군주체제를전복하고사회주의혁명을완수한 레닌은 “ 당은그저 누구든자신이거기에속한다고스스로규정하고싶어하는사람들로 구성되는것이 아니라, 오직당 조직의규율을받아들일용의가 있는 사람들로만구성되는것이다. 진정한강한 철의 조직, 싸우려고나선 모든 사람들의작지만강한 당……이러한당은 프로레타리아트에의한 정치권력의장악과사회주의사회의조직을 궁극적목표로하는 프로레타리아계급투쟁을조직하고그것을

영도하는전위조직인것이다. 혁명적이론없이혁명적실천은있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혁명정당에대한 핵심적요건을짧게나마예시한것은, 혁명정당이란몇몇 선각적인지식인들만으로, 또학생들만으로만들어지는것이 아니라는것을 말하기위해서, 더욱이중앙정보부의 몇몇 수사관의머릿속에서그렇게만들어지는것이 절대로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위해서이다.

(4) 한 · 일협정 반대운동과 자강학회사건

한 · 일협정반대운동이시작될 무렵 나는 조규택, 장석구, 이성재, 이종례등과 함께 종로 1가에 위치한 서민호 국회의원 사무실에자주 왕래하면서방 한 칸을 얻어 자강학회란지식인들의 모임을조직하였다. 고문에서민호씨를모시고, 회장에건국대 정법대학장정범석교수, 부회장에김종길변호사, 그리고시내 유수 대학교수들을모아 놓고 조직을확대해나갔다.

우리는 몇몇 교수들과함께 운영위원으로있으면서시국문제 연구 세미나등 자주 모임을가졌다. 모임의주제는자연 한일협정 관계가태반이었다. 모임에나오는교수들은대부분군사정권과 한일협정의진행에대하여비판적이었다.

그러자 6 · 3계엄을전후하여자강학회에나오는 교수들이 학생들에게한일회담반대운동을선동한다는구실을 내세워 협박과 공갈로강의를 방해했다. 또조사한다는명목 아래 소환장을 발부하며해직시킨다며괴롭혔다.

회장인 정범석 학장은 건국대학에서결국 직위해직되고말았다. 부회장김종길변호사는청와대에불려가박정희에게큰소리로 야단맞으면서도우정으로충고를해주고나왔다고했다. 김종길 변호사는박정희와대구사범동기동창관계여서젊을 때부터 친한 처지였다고한다. 운영위원들도모두가당국의감시 대상이 되었다.

(5) ‘ 국민의당 ’과 대통령 후보 박기출

대통령선거에3선 출마를금지한헌법을고쳐가면서박정희는 또 다시 출마하려했다. 71년의대통령선거를위하여윤보선과 장준하는 ‘ 국민의당을’ 창당하고혁신세력들을영입하려애쓰고 있었다.

1차 영입대상이혁신계의거두 김달호(전사회대중당중앙위원장) 변호사였다. 김변호사는성격이급하면서도꼼꼼해서입당문제를가지고여러 측근들과의논을하는 분이었다. 그중에서도 유독 나와 이수병(인혁당사건으로사형)을자주 불러 진지하게 의논하는편이었다. 윤보선과의만남에는꼭 나와 이수병을 함께 데리고갔다. 그리고는사후 검토도같이 하곤 하였다.

우리는입당문제는대통령선거전에는 거론하지않기로 최후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이유는국민의당에서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이라는보장을받지 못했기때문이었다. 우리는야권의 단일후보전략을지지하고있었다.

그런데선거에임박해국민의당은박기출(전진보당부통령후보)을대통령후보로지명 발표하였다. 이수병과나는 김정규(혁신계의존경받는원로) 선생을위시하여우홍선(인혁당사건으

로 사형), 이성재(동사건으로무기수), 서도원(동사건으로사형), 김세원, 이병일등 동지들을소집하여박기출의후보사퇴를 강권하기로결정하고행동을개시했다.

우선 박기출후보가기거하는제기동자택을찾아 야당후보 단일화전략의당위성과그 필수성을설득하였다. 우리는박 후보가 사퇴할때까지더 큰 세를 몰고와 항의농성할것이라고위협하였다. 그러자이틀 후 아침에나는 중앙정보부에연행되었다. 서울에서우홍선, 이수병, 이병일, 김정규(당80여세), 광주에서 김세원도압송돼왔다.

우리는그곳에서조사를받으면서온갖 협박과공갈을당하며 일주일동안 억류돼있었다. 그들은국민의당당원도아니면서 왜 남의 선거운동에간섭하는가하며 배후를대라, 저의가무엇이냐, 철저히조사하여의법처단하겠다는것이었다.

나는 " 배후도없고 다른 저의도없다. 다만대통령선거에서 남북의평화적통일을이룰 수 있는 후보가당선되길희망할뿐이다. 그를위해 야당후보가단일화돼야하기 때문에박기출후보의 사퇴를요구한것 "이라고대답하였다.

그러자 높은 자리에있는 것같은수사관이나에게 " 그러면 김대중후보의 당선을 기대하는가?"라고 묻기에그렇다고대답했다. 그는큰소리로 " 김대중은빨갱이야! 그는해방 당시부터전라도에서민청을한 빨갱이야. 우리는그에게절대로정권을넘기질 않을 것이야! 절대로!"라며 얼굴을붉혔다.

듣고만있으면서창 밖을 내다보니정보부관용차범퍼 번호판을 뜯고 자가용번호판으로바꿔 붙이느라야단들이었다. 이튿날 장충단공원에서있을박정희유세장청중 동원에정보부관용차까지도이용하려는준비작업인것을 나는 알아차릴수 있었다. 박기출후보는끝내 사퇴하였다. 그리고국민의당은소멸되었으나 부정으로치러지는선거에서우리는또 패하고말았다.

(6) 민족통일촉진회(통촉)

통촉은5 · 16 쿠데타에의하여구속되었다나온 혁신계 동지들이주축이되어 1960년대 후반에조직된통일운동단체이다. 시내 삼각동에사무실을차리고미미한활동을하고 있었다. 통촉은박정희의3선개헌반대운동에참여하면서전국에흩어진혁신계 동지들의운동참여를독려하기도하였다.

나는 우홍선, 이성재, 이수병, 박중기, 이석준, 강무길과 자주 만나면서부진한통일운동에대하여자주 고민하고있었다. 어느날 우리는통촉을강화 발전시키기로합의하고, 대구, 부산, 광주 동지들의동의를 구하기로하였다. 모두가긍정적이었다. 우홍선과이수병, 박중기는나에게사무총장자리를맡으라고권유하였으나, 나는직장관계를이유로사양하고결국 이석준이맡게 되었다. 우리는매달 얼마간의돈을 모아 이석준을도우며격려 후원하였다.

70년대에 들어오자국제정세도변하면서국내정세도그에 조응하여크게 변하고있었다. 중국과미국간국교정상화를비롯하여 남북관계도72년 7 · 4 남북공동성명이발표되면서민족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통일 3대원칙이남북 당국간에 합의되는역사적인사변이었다. 남북간에는적십자회담도수차

열리고있었다.

그러나박정희정권은온 겨레의희망에들뜬 분위기를이용하여자신의종신집권을목적으로72년 10월 국회를해산하고계엄령을선포하면서소위 유신헌법을제정한다.

우리는또 싸워야했다. 쿠데타반대! 대일굴욕외교반대! 삼선개헌반대! 유신헌법반대! 쉴새 없이 연속되는반대운동이우리들의양식과양심 앞에 기다리고있었던것이다.

희대의괴물같은유신헌법이선포되면서반대운동이꿈틀거리기 시작하였다. 장준하, 백기완옹 중심에선 개헌청원국민운동이다. 민족통일촉진회도개헌청원운동에동참하기로결정하고사무총장 이석준이장준하, 백기완과자주 접촉하였다. 우리도장준하와가끔 만나 의견교환도하며 술도 같이 하였다.

박정희는국민의기본권행사조차가로막았다. 대통령긴급조치 1호를 발동한것이다. 1974년1월 초순이었다. 유신헌법을비방하거나개헌을청원하는자는 15년 이하의징역형에처한다는 것이다. 장준하, 백기완을비롯한청원운동주모자들이구속되었다. 학원가도꿈틀거리기시작하였다. 서울대를비롯한시내유수 대학에서학생들이유신헌법반대 시위를준비한다는정보를 이수병이전해왔다.

우리는긴장했다. 대구, 광주쪽과연락을 취하고사태의 추이를 보면서우리가할 수 있는 일, 또 해야할 일들에관하여의논을 하였다. 만남의장소는우리 집, 그리고충무로에있는 내 회사 사무실(대연각) 뒤에위치한지다방, 때로는이수병의일어학원 아래 있는 다방도이용해왔다.

그런데여러 면에서불편하기에우리는작은 사무실을내기로 결정하고충무로에위치한2층 사무실을얻어 전화도놓았다. 그리고자주 만나 사무실에서모임도가지기로하였다. 또출입하는사람들이대개가요시찰인으로당국의주목을받기 때문에, 간판없는사무실이부자연스러워평상시에는침대를 하나 놓고 지압교실로활용하기로하였다. 교사로는이성재와우홍선이맡기로 하였다. 모두가한의학, 경락학에대해서는일가견을갖고 있는 처지였다.

지금까지모임에참가했던동지중강무갑, 이석준은옥중에서 얻은 폐병과신장병으로각각 사망하여우리는엄숙한동지장으로 장례를치렀다. 강무갑에대해서는후에 더 언급하겠다. 박중기는김정태외 몇 동지와함께 반공법위반혐의로수감중이었다. 우리는그들의석방을위하여애쓰고있었다. 그래서간혹 지방에서찾아오는손님을빼면 서울 사람은우홍선, 이수병, 이성재와 나 정도였다.

대구, 광주지방에서도대학가의움직임에관심을갖고 지원에 고심하고있다는소식이었다. 대구에서는경북대생여정남(민청학련사건으로사형)을상경시켜수도권대학과영남권대학을연결하는작업을진행하니많은 협조를바라고있다는전갈이었다. 우리는여정남과학생운동을지원하기위하여극비리에모금을 행하기도하였다. 학생운동관계작업은이수병과김용원(인혁당사건으로사형. 당시경기여고교사)이맡고, 모금된돈은 이수병에게전달되었다.

3. 대통령긴급조치 4호와 대량검거

긴급조치1호를 발동하여개헌청원국민운동을제압한 박정희 군사정권은1974년 3월이 되면서대학가에서진행되는학생들의 유신헌법반대운동체인 ‘ 민청학련 ’ 조직운동의 계획을무자비하게탄압하려고긴급조치4호를 발동하면서주동학생들에 대한 일제 검거에나섰다. 민청학련에관련됐거나민청학련을지원하는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사형까지처한다는가혹한 형벌이었다.

4월이 되면서학생들이잡혀가기시작했다. 여정남도잡혀갔다는 것이다. 며칠이지나더니대구에서서도원을위시하여여러 동지들이검거되면서서울에서도이수병, 김용원이검거되었다는 소식이다. 긴급조치4호가 발동되면서전국에서중앙정보부와보안사에천여 명의 학생과일반인이갇혔다는것이다.

나는 매우 난감했다. 회사(극동건설)에서나에게대만에서 진행되고있는 고속도로시공현장을점검하고, 중동지역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가서 건설공사수주활동을해야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있는상황이어서나는 이에 대한 준비를하려는참이었다.

그런데대구에서검거선풍을모면하고도망쳐올라온이재문이 피신처를마련해달라고간청하기에외면할수 없어 당분간나의 집에 있다 안전한곳을 찾아보기로하고 방 하나를내주고있게 하였다. 그에게는지명수배령이내려져있었다. 전국지명수배자라는신분으로피신처를구하기란여간 어려운일이 아니었다.

5월 1일 저녁, 나는평소와같이 퇴근하여이재문과같이 안방에서주거니받거니술을 마시고있었다. 골방에갇혀 있는 이재문을위로하며이수병이잡혀간지 며칠이되었을까세어보았다. 이제열 이틀, 취조가마무리단계에접어들고있겠다며한숨을 쉬고 있을 때 아래층에서달려 올라오면서 ‘ 경찰! 경찰! ’ 하던 아내의초긴장된표정이지금도눈 앞에 선연하다. 나는이재문의 소재를알고그를잡으러온 줄만 알았다. 그는재빨리다락방으로피신하였다.

순간 건장한세 사람이뛰어올라정보부원신분증을제시하면서 내 이름을확인하기에그렇다했더니서재를찾는다. 안방을 뒤질까가슴 졸였는데서재를찾기에냉큼 안내하였더니책장에서 사회주의서적만찾고 있는 것이었다.

가소로운일은 루소가쓴『민약론』이란 책은 그냥 두고 같은 책으로『사회계약론』라고 번역된책은 뽑아내는것이었다. 몇 권의 사회주의와연관된책을 묶어가지고함께 가자고하기에나는 냉큼 따라나섰다. 이재문을무사히감춘 내 마음은무척 가벼웠다.

끌려간곳은 남산 중턱에있는 중앙정보부신축건물이었다. 긴 테이블과몇 개의 의자만놓여 있는 빈 방이었다. 나는취기에 테이블에엎드려있다가깜박 잠이 들었다. 얼마있다 연행자가 와서 깨우면서 “ 여기가어딘지알고 잠자! ” 하며불러내더니또 차에 태워 광화문쪽으로질주한다. 어디로가느냐고물었더니, 가보면 안다고퉁명스럽게한마디대답할뿐 아무 이야기가없었다.

차가 도착한곳은 서대문구치소였다. 이렇게해여 나는 무슨 영문인지도모르고 어두운밤 서대문구치소독방에 수감되었다.

아무도 없는 독방에는가끔 고양이만큼크게 보이는쥐가 왔다 갔다 하며 나를 놀라게한다. 쳐다보는동그란눈은 나를 불쌍히 여기는애련의눈빛같기도하였다. 가끔들리는터벅터벅간수의 구둣발소리만고요한정적을깰 뿐이다.

취기가가시면서한기가스며들며오한을느낀다. 오월의감방 안은 추위를느낄 정도로온도가낮았다. 침구란솜이 제멋대로 뭉개어진푸른 이불 하나뿐이었다. 이튿날아침에서류뭉치와 펜을 든 교도관이와서 성명, 주소, 연령등 신상에관해 묻는다. 나는 대답했다. 무엇때문에들어왔느냐고묻기에,“ 모르겠다. 내가 당신에게물어야할 말 ”이라 했더니 대뜸 “ 이새끼! 맛 좀 봐야 알겠냐? ”하고 화를 내면서, 영장없이갇혔느냐고묻기에말없이 그렇다고표정으로알렸다. 나는입맛이써 더 이상 대답할수도 없었다. 그는그냥 가버린다.

나의 기약없었던수감생활은이렇게첫날을시작했다. 마음이 어두웠다. 집생각, 귀여운아이들, 사랑스런아내의얼굴이, 그리고회사의 일거리 등이 내 머리에 파노라마처럼스쳐간다. 걱정이태산같이무거워진다.

하지만나는 이렇게갇혀 징역살이를해야할 만한 범법행위를 했다고생각이들지 않았다. 죄가있다면분단된조국의평화통일과민주주의를위해서보다 철저한투쟁을하지 못했다는자책감 외에는머리에떠오르지않았다. 유신헌법을반대는했지만 제대로한번 싸워보지도못했다. 부끄러울따름이었다.

세상사사필귀정이라, 인간사의 도리를믿고 조사가시작되면 모든 것이 밝혀져풀려나가겠지하고 마음을차분히진정시키면서 초조히 기다리고있었으나, 며칠이지나도 불러내지않는다. 궁금하기도하고 답답하여복도에서왔다갔다하면서청소하고 배식하는일반 죄수(소지라고부름)에게중앙정보부에불려다니면서취조받는사람들에대해 아는 바 없는가물었더니 “ 말마시우. 그사람들, 대학생들과일반인들이밤낮 구별없이끌려나가 들어올 때는 피투성이녹초가 다 돼 들어오곤해요 ” 하는 것이었다.

기가 막혔다. 그사람들을봤느냐고물으니 직접 보지는못했지만저쪽 신관에그 사람들이갇혀 있는데, 그곳에서일하는 ‘ 소지 ’들과 같은 감방에서자기 때문에저녁에이야기를다 들을 수 있다고한다. 그럼앞으로소식 듣는대로알려달라고부탁했다. 내가갇혀 있는곳은 담 안의 또 다른 담으로가려져있는 구관 10사라는곳이었다.

4. 중앙정보부의 취조와 군사재판

며칠이지나5월 4일인가되는날 아침, 나는갇힌 후 처음으로 불려나갔다. 검은승용차에실려간 곳은 첫날 밤 잠깐 들렸던 남산 중턱에있는 정보부건물이었다. 나중에알았지만중앙정보부 6국이라한다. 손수정을채인 채 두 명의 취조관이있는 방에 인계되었다. 바닥에무릎을꿇고 앉게 한 다음 구둣발로막 차면서 욕설을퍼붓는다. 첫마디부터욕설이다.

“ 이 역적놈들아, 너희놈들이 떠든다고순순히 내 놓을 줄 아나! 천년만에잡은 정권을… ”

경상도말투였다. 나는처음에는무슨 말인지어리둥절했다. 쓰러지면일으켜세우고준비된야전침대막대기로어깨 허리 할 것 없이 무차별내리친다. 고함을지르면수건으로입을 틀어막는다. 한참을겪고 난 후 의자에앉힌다. 쓰러질것만 같았다. 이렇게 하여놓고취조가시작되는것이었다.

어려서부터성장해온과정을 한 사람이 묻고 또 한 사람이 적어나갔다. 대답을거부하면묻는 자가 몽둥이로내리친다. 인간으로서의인격이란완전히상실된것이다. 인권은더 말할 것도 없다. 이수병, 우홍선, 이성재, 박중기를어떻게 알게 되었느냐고 묻는다. 나는알게된 과정을기억나는대로 대답했다.

본론은이 네 사람과 함께 충무로소재 ‘ 지다방에서 여러 차례 만나 유신헌법을비방하고, 민청학련을지원하여정부를전복하고사회주의정권을 세우려고모의했다고자백하라는것이었다. 나는유신헌법을지지한바도 없지만, 그렇다고반대운동을 하려 생각할수도 없는 위치에있음을강조하면서, 전술한바와 같이 중동 건설시장개척을위해 여권 신청을한 사실을알렸다. 그들은난처한표정을짓더니이수병, 우홍선이쓴 자필진술서를 가지고와 보여주면서같은 내용으로자백하라는것이다.

나는 그 자술서에전혀 사실무근의있지도않았던정부 전복음모를시인하는내용이적혀 있기에놀랐다. 가장소중한그 무엇을 잃은 것만 같은 허탈감에다시 빠졌다. 그것은짓밟히고유린된 인격, 왜곡된진실이었다. 직접대질을 요청하였지만들어줄 리 없었다. 나는다중이모이는다방에서4,5명이 작당하여국가를 전복할 음모라니, 그것은너무 황당하고비상식적인일이 아니냐고항변하였다. 수사관한 사람은몽둥이, 또한 사람은내가 하는 말을 적고 있었다.

두 번째 날은 처음에있었던짐승같은태도가많이 달라지고 있었다. 유순한태도로회사의업무내용을호기심으로묻기도하였다. 보수에대해서도묻기에 설명하였더니, 내월급에서내는 세금이자기들이받는 월급과거의 같다고실토하기도한다. 이렇게 씨름하다보니하루가지났다. 저녁이되자 구치소로되돌려 보낸다. 나는구속된후 식욕을잃어 거의 먹지 못하고있었기에 현기증을느끼고있었다.

이틀 후로 기억되는데, 이른아침에또 끌려 나갔다. 마치도살장으로끌려 나가는 것만 같았다. 어제와그제 바로 그 자리, 그 방이었다. 또되풀이되는작업이 시작되는것이다. 위협, 폭언, 폭행, 조사이렇게진행되는것이다. 나는있지도않은 국가전복모의는끝까지부인했다. 세번째 끌려 나갔을 때는 수사관의 태도가전과는달리 의외로유순하였다.

“ 좋은사회적 지위에있으면서왜 그런 불순한전과자들과 만나십니까? 우리회사(중정) 간부중 보증 설만한사람 없소? ”

나는 아는 사람이없다고대답하였다.

“ 앞으로나가면국가경제를위해서경제활동에전념하시고, 이곳에서있었던일은 국가안보를위해 부득이한일이니양해해주시오.”라고 하는 것이다.

이튿날나는10사 독방에서일반수들이혼거하고있는11사 큰방으로전방되었다. 인솔교도관에게전방 이유를물었더니혼거하면곧 석방될것이라한다.

교도관을따라 11사 2층에 올라서니, 이방 저 방에서학생으로 생각되는맑고 예쁜 얼굴들이가슴에붙인 노란 딱지를내보인다. 눈물겹도록반가웠다. 노란딱지는대통령긴급조치위반혐의로구속된사람에게구치소에서붙여놓은식별표였다. 반공법, 국가보안법은빨간 딱지이고, 녹색은일반 사형수딱지였다. 그곳 학생들은곧 훈방될예정인노란딱지인것이다. 그들은내가 전방 오는 것을 미리 듣고 있었던것 같았다.

안내된곳은20명 가까이수용된큰 방이었다. 절도, 강도, 강간, 간통, 사기등이다. 소년수도한 두 명 있다. 모두가불쌍히여겨졌다. 그런데이 사람들이내 몸을 보더니놀라는표정들이다. 내 몸은 팔, 다리, 잔등, 엉덩이할 것 없이 피멍이들어 있어 엉망이었던것이다. 나는전신이쑤시는통증에괴로웠다.

이들은상처부위를젖은수건으로찜질하기도하고주물러주기도하였다. 공안공직자에게서는껴보지못한인간의따스함을이들죄수들에게서느낄수 있었다. 그들은모두어렵고불우한가정에서태어나고성장한불쌍한사람들이었다. 죄는개인의산물이 아니라사회적산물임을다시한 번 보고 느낄 수 있었다.

석방을초조한마음으로기다리면서그들에게출소하면찾아오라고주소도알려주고, 적절한자리에취직도시켜주려고마음먹고 있었다.

며칠이지나 아침에또 끌려 나갔다. 모두들내가 오늘 석방될 것을 바라고있었다. 나또한 기대했다. 그런데이번에는전에취조하던수사관은한 사람도보이지않고 처음 보는 더 험상스런 수사관들과마주앉게되었다. 기분이좋지 않았다. 오월도중순에 접어들고있는 때였다. 조사를전면적으로다시 한다는것이다.

내용인즉충무로 ‘ 지다방에서 우홍선, 이수병, 이성재, 박중기, 전창일다섯 사람이모여, 한일협정굴욕외교를반대한학생운동을배후에서지원 선동하던인혁당과유사한지하당을조직하여 유신헌법을반대하는학생운동체인민청학련을지원하고, 기독교세력과 혁신세력등을 규합하여국가전복을기도했다는자백을강요하는것이었다.

나는 1964년의 인혁당이란무엇인지모른다고했다. 이들의 황당무계한억지취조에아예 말려들지않으려고작심하였다. 그랬더니당시의신문도보지 않았냐고묻는다. 나는아무 기억도 나지않는다고하였다. 서도원, 도예종을모르는가묻기에들어본 적도 없는 생소한이름이라고힘주어대답했다.“ 다방에서우홍선, 이수병으로부터훌륭한분이라는말을 듣지 못했단말이오! ” 하며 윽박지른다. 나는사실에도없는 일이었기에부인하였다.

이번에는두 사람을지하당의지도위원으로추대하자는제의를 나에게 했다는이수병의자필진술서를보여주면서시인할 것을 강요한다. 이진술서에는또 혁신계지도적인사 정예근, 문한영, 이종린등이 전창일에의하여지하당에포섭되었다는내용도 있었다.

기가 막혔다. 거명된세 사람은나의 절친한동지이고벗인 것은 사실이지만터무니없는날조였다. 이시기 일부 혁신계동지들은중.소이념분쟁과비동맹중립노선에관한 오랫동안의토론과 논쟁을매듭짓고1972년의 7 · 4 남북공동성명의의의에고

무되어 4·19 후에 결성되었다. 5·16으로 붕괴된 통일운동의 전선체인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을 재건하려는 일부 주장에 대하여 복고주의 조직론이라 비판하며, 유신체제의 타도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고 통일운동도 존재할 수 없다는 정세인식 간에 토론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관계로 나는 민자통 재건을 주장하는 정예근, 문한영, 이종린 등과 자주 만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또 "남조선의 학생운동을 애국적인 거사"라고 찬양하는 평양방송을 듣고 그 내용을 전창일에게 설명하니 머리를 끄덕끄덕하며 '옳은 말이야' 했다는 우홍선의 자필진술서를 보여준다. 그러면서 그대로 진술서를 쓸 것을 강요한다.

이들이 초동수사에서는 석방시키려다 방침을 바꿔 이제는 나를 크게 걸어 넣으려고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의 야수적인 폭행과 온갖 욕설과 협박에도 진술서 쓸 것을 거부하였다. 그랬더니 지하실로 끌고 간다. 어두컴컴한 보일러실이었다. 밝은 데 있다가 갑자기 으슥한 곳에 들어서니 잘 볼 수 없었다. 지하실엔 방이 두세 개 있는 것 같았고, 누군가 취조를 받고 있었는데, 열려 있던 문을 꼭 닫게 한 후 나에게 고문을 가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옷을 완전히 벗겨 전신 나체로 시멘트 바닥에 꿇어앉히고, 손목 발목에 수건을 감고 포승줄로 양 손목과 두 발목을 꽁꽁 묶었다. 다음에 긴 막대기를 사이에 끼워 두 사람이 덜렁 들어 올려 책상 두 개 사이에 걸쳐 놓으니 마치 도살장에서 네 발 짐승을 묶어 매단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머리는 천장을 향해 뚝 떨어진다.

이렇게 해 놓고 그들은 내 얼굴에 수건을 씌우고 콧구멍에 주전자로 물을 부어 넣는다. 그들은 "서울대 교수도 이렇게 우리가 죽였다. 그래도 끄떡없다. 너 같은 놈은 죽여도 아무런 상관없어"하며 협박 공갈한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한참 계속하니 지쳐서 비명 지를 힘도 없어 기절하고 말았다.

정신을 약간 차리면 또 저들이 부르는 대로 쓰라 한다. 나는 쓰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였다. 거부하면 또 지하실로 끌고 간다. 그리곤 부르는 대로 쓰게 한다. 울고 싶고 죽고 싶었다. 하지만 죽을 수도 없다. 수사관은 가끔 쪽지 지령문을 꺼내 보면서 한 자 한 자 자기가 부르는 대로 쓰는 것을 확인하면서 계속 부른다.

악몽 같은 주문을 지금 다 기억할 수 없다. 그때 내 정신은 정상적이 아니었다. 내 자신의 생명은 이미 내던지고 있었다. 그러나 무고한 내 동지와 벗들의 생명만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굳게 결심하여 정예근, 문한영, 이종린을 포섭했다는 허위자백을 강요당할 때면 정신이 번뜩 차려지곤 하였다. 나는 누차의 고문을 받으면서도 동지를 희생시키지 않으려는 결심만은 지켜냈다.

인민혁명당과 유사한 지하당을 만들었다는 허위자백서 말미에는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조서임에도 중부경찰서에서 받은 것으로 쓰라는 것이었다. 시키는 대로 쓸 수밖에 없었다. 그때까지 나는 중부경찰서 정문 안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2, 3일 후 또 다시 끌려 나갔을 때는 지난번에 쓴 자필진술서에서 5인지도부를 4인지도부로 고치고, 박중기를 빼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4인 혹은 5인, 때로는 7인이 모였지만, 지도부란 이름은 써본 사실이 없었다. 지도부란 명칭은 그들이 만들어 강요한

이름이다. 왜빼라 하는가슬쩍 물었더니, 조금난처한표정을지으면서희생자를줄이는것이 좋지 않느냐하는 것이었다. 나는 군말 않고 고쳐 써줬다.

박중기는앞에서 말한대로대통령 긴급조치가발동하기전에 서대문구치소에반공법위반혐의로김정태등과 함께 구속돼 있다가재판을받고 나왔기때문에긴급조치위반으로걸어 넣을 수 없었던것이다. 박중기는전화위복의사나이였다.

피의자 신문조서는문답식으로작성하는데, 수사관이쓰는 것을 피의자가보지 못하도록벽면을 향해 앉혀 놓고 뒤에서작성한 다음 읽어주지도않고 강제로지장을받을 때도 있었다. 그날 나는 헌병의 계호를 받으며 화장실에가다 우홍선과마주쳤다. 대뜸무슨 진술서를그렇게썼느냐고항의했더니, 그는 " 고문 때문에할 수 없었다. 조작된것이다. 견딜수 없었다. 지장도힘센 놈들에의하여강제로찍은 것이다 " 하면서헌병한테끌려 다른 방으로갔다. 그가법정에서도같은 말을 하는 것을 나는 들었다. 모두가이렇게불법적으로난폭하게조작되었다.

화장실에서돌아와수사관에게항의했더니, 수사관은은 미소를 지으며 " 이새끼, 정신나갔나? 여기가어딘데…맛을 또 봐야 하겠군! " 하며또 지하실로끌고 내려간다. 지하실에서는그때 누군가전기고문에비명을지르고있었다.

나에게도그들은두 손을 꽉 묶고 전기줄을감은 후 기계를 돌린다. 손바닥이타고 전신이 충격에아찔해진다. 정신을잃게 된다. 나도몰래 비명이 터져 나온다. 그후법정에서알게 된 일인데, 당시지하실에서전기고문받던또 다른 사람은하재완(인

▲ 구속자가족협의회가족들의석방투쟁(1974년)

혁당으로사형)이었다.그는 법정에서진술하기를, 자기가전기고문당할때 전창일이당하는것을 봤다 하면서, 고문으로항문이 탈장되어치료도제대로받지 못하여큰 고생을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하여 인민혁명당과유사한 지하당의 ' 4인지도부가' 만들어진것이다.

며칠 후, 검사 취조라며또 끌려 나갔다. 똑같은중앙정보부 취조실에서고문 수사관을옆에 세워두고검사와서기가앉아서 심문한다. 검사에게이름을물었더니알 필요가없다고한다. 수사관이 작성한조서내용을부인하면취조 못하겠다면서대기하는 수사관에게다시 눈짓하며인계한다. 수사관은말을 안 들으면 지하실로갈 수밖에없다면서협박 공갈한다.

그러나나는마음을굳게먹고이야기했다. 한자 한 자 부르는 대로 쓴 자필진술서며, 온종일벽면을향해앉혀놓고내용도 알 수 없는문답조서에강제로지장을찍은사실, 물고문, 전기고문, 폭행, 구타등 온갖 비인간적수모를당한사실을모두 이야기했다. 듣고있던 검사는나에게 “ 이새끼, 아직살아있구나! ” 하며 구둣발로고무신을신은 내 발을 막 밟는다. 대기하고있던 수사관은또 지하실로나를 끌고 내려간다. 전기고문하려고했다. 그러나위협만주고기계를돌리지는않는다.

나는 좌절했다. 기대했던검찰권의양심, 허무한법의 공평성, 박정희폭정에대한 증오심이내 머리를압박한다. 저녁이되어 구치소에끌려왔다. 폭력수사관이내뱉던말 “ 천년만에잡은 정권… ” 박정권을 신라의 부활로 보는 영남 출신 폭력 수사관들, 아니그것이박정희의역사인식인지도모른다.

나는 죽지 않으면, 또이 불의와싸울 수 없다면멀리 해외로 도망치고싶은 심정에희미한전등불밑 감방에서천장만쳐다보며 며칠을보내고있었다. 고문상처도점점 나아가고있었다.

얼마후 공소장을받았다. 표지에는 ‘ 민청학련 국가변란기도 사건 ’이라 적혀 있다. 적용법조는대통령긴급조치1호 및 4호,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내란선동) 온갖법의나열이다. 반공법 위반 내용에는우홍선의진술에있었던, 평양방송청취내용을 나에게 알렸더니머리를끄덕끄덕하면서 ‘ 옳은말이다 ’라고 고무찬양했다는것, 이 반공법위반 때문에나는 여러 번 있었던형 집행정지사면에서 ‘ 반공법경합자는사면제외 ’ 조치로석방에서 누락되고, 출소후에도사회안전법이적용되어오랜 세월 감시대상이되었다.

또 이수병의진술서에있었던정예근, 문한영, 이종린을포섭했다는부분은 ‘ 포섭을위해 수차 접선을기도하다실패한자로서…운운 ’ 실소를금할 길이 없었다. 고문에저항한덕에그들이 양보한희극이다. 세사람은내가 한 달이면두세 번 만나는 오랜친구이며동지사이였다.

어느 날 소장실로불려갔다. 소장은자리에없고 응접의자에는 사건담당인이규명검사가와 있었다. 그는전과는아주딴 모습으로담배도권하면서고생많다고위로하는것이었다. 수감중에 성경책을탐독해착실한기독교인이돼 달라는것이었다. 악마가 독경하는격이었다. 나는담배도거절하며말없이듣고만있었다. 그가찾아온목적은재판을앞두고변호사선임에대한 문제였던 것이다. 그에의하면밖에서내 아내가김종길변호사를선임했다는것이다. 아내는김종길변호사와나의 친분관계를잘 알고 있는 터였다.

검사가하는 말이 “ 재판에변호사를잘 선임해야판결에좋은 결과를가질 수 있는데, 김종길변호사는평소 보안법과반공법 사건을많이 맡기 때문에군부로부터좋은 인상을못 받는 사람이요. 하니내가 추천하는군 출신 변호사를선임하면좋겠소 ” 하는 것이다. 어이가없었다. 고양이가쥐를 생각하는격이다. 일언지하에거절하였다.

2, 3일인가 지나 또 소장실로불려나갔다. 이번에는정보부 6국 윤계장이란자가 찾아왔다. 그는이용택국장 밑에서수사관들에게조작 각본에따르라는쪽지 지령을 내리던자였다. 단도

직입적으로말을꺼낸다.“ 전창일씨, 고생이많소. 모두가나라를 위한 일이요. 이번정보부간부회의에서전창일씨는대한민국제거대상에서제외되었소. 이유는극동건설김용산회장의구명운동이요. 앞으로국가경제를위해서외화 획득에큰 공을 기대하기 때문이요. 구명에반대하는의견도있었는데, 그리알고 건강관리 잘 하세요 ” 하는것이다.

나는 무슨 뜻인지잘 몰랐다. 그가또 다시 “ 극형은면한다는 말이오! ” 하기에 “ 판결은재판에서판사가결정할것이 아니요? ” 했더니,그는 대뜸 “ 대통령긴급조치령에정보부가재판에간여하기로되어 있소 ” 라고한다.

나는 놀라지않을 수 없었다.‘ 대한민국제거대상! ’ 우리일행 중에서이것을상상이나할 사람이누가 있을까? 감방으로돌아오니한숨만가슴을 압박한다. 집에서아내가 내복과 한복을 차입해보냈다. 나는아이처럼엉엉 울고 싶었으나체면 때문에 그리 할 수도 없는 진퇴유곡이다.

재판을앞두고10사 독방으로전방되었다. 나와헤어지게된 일반수들은모두 슬퍼하였다. 눈물을흘리는사람도 있었다. 나 또한 슬펐다. 10사에되돌아와보니 황현승이갇혀 있었다. 김종대, 이창복도들어왔다는것이다. 이들은모두 이수병과가까운 벗으로우리는종종 등산을같이한적도 있었다. 안타까운마음에 괴롭기만하였다.

재판통지를받고 어느 날 아침에출정이라한다. 들뜬마음에 수정과포승줄에꽁꽁 묶인 채 우리는모두 한데 모였다. 어제의 용사, 오늘의포로, 한없이반가웠다. 서도원, 도예종, 강창덕 등 대구 친구들, 우홍선, 이수병모두가그리운벗들이다. 포옹이라도 하고 싶지만말도 못하게제지한다. 제지를무릅쓰고우리는 몇 마디씩주고 받았다.

그런데, 우홍선이나에게취조받을때 우리가다섯 번 만났다고 한 것을 세 번만 만난 것으로재판에서번복하자고제의한다. 이수병과도이야기가됐다는것이다.

기가 막혔다. 실은헤아릴수 없을 정도로수백 번 만난 일을 자기들이다섯 번 만났다고진술해서나도 그냥 시인한것을 이제 와서 번복한들무슨 뜻이 있을까? 일부나마그들에의하여받아들여진사실마저신뢰성이훼손되지나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 대한민국제거대상! ’ 나는소름끼치던이 말을 떠올리며그러지 말라고하였다. 우홍선은재판이라하니 전에 체험했던1차 인혁당 재판처럼사법적공정성이라도있을 줄 아는 모양이었다. 평소에사랑하는동지, 이들은상황을몰라도너무 모르고있는 듯하여 한심하고안타까운생각이들었다.

첫 재판은필동 헌병사령부법정에서인혁당관련 인사와민청학련학생 50여 피고인들을앉혀놓고진행되었다. 피고인당 직계가족한 사람만방청이 허용되었다. 우리는갇힌 후 두 달, 나는 달포만에가족의 얼굴을보게 되었다. 오랜만에만난 반가운 가족들의얼굴은모두가긴장된표정이었다.

단상에열지어앉은 판사들은모두 어깨에번쩍이는별들을 단 군 장성들이었다. 피고인심문은한 사람씩철저하게격리, 개별심문으로진행하였다. 피고인간의대질심문이나변호사가신청하는 증인은한 사람도채택되지않는다. 다만검사가신청하는

증인만채택될뿐이다.

재판에서는피고인모두가공소장에기재된인민혁명당이란지하당결성을부인한것이다. 모두가고문에의한허위자백이며, 수사관이만들어놓은각본에따라부르는대로쓸수밖에없었다고진술하였다. 단상에앉은장군재판관들은듣는지마는지무표정들이고, 검사들만눈을부릅뜨고항변하는피고를윽박지르고협박한다. 이모든것을변호사와방청석에앉은가족들만이긴장속에경청하고있었다.

검사의구형이있었다. 서도원, 도예종,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일곱명사형, 전창일, 강창덕, 김한덕, 유진곤, 이태환, 전재권, 라경일, 김종대여덟명에무기징역, 황현승, 이창복, 조만호, 정만진, 이재형, 임구호여섯명에징역20년 및 자격정지15년이구형되었다.

방청석은술렁거린다. 헌병과교도관들이조용히하라고제지한다. 피고들만묵묵부답무거운표정들이다. 일전에나를구치소장실로불러낸정보부윤계장이란자가말한 ‘ 대한민국제거대상 ’이란바로이거구나! 나는그의말대로극형을살짝비켰구나! 한숨만나온다. 잔인무도한대한민국! 박정희의대한민국! 폭력국가! 내가슴은찢어지는것만같았다.

구형이있은후 재판장은피고들에게할말을짧게간단히하라한다. 모두가억울하다는요지의말만간단히한다. 유독인상적이었던말은임구호의 “ 우리에게무슨죄가있단말인가. 유신헌법반대한것이어찌이리무거운형벌이라니, 나에게주는징역20년을나는검사에게돌려줄것이다. ” 임구호가말을계속하자재판장이제지하였다. 검사는재판이끝나면임구호를자기에게데려오라고헌병과교도관에게지시한다. 재판이끝난후 임구호는검사에게끌려가심한구타를당하고돌아왔다.

임구호를기다리는동안 우리는무거운심정으로서로의얼굴을쳐다보고있었다. 서도원은 “ 역시젊은사람이훌륭해! ” 하며 임구호를칭찬한다. 나도공감하였다. 우홍선은나에게사형을구형받은사람들은더이상법정투쟁하기가곤란하니, 사형을면한사람들이앞으로법정투쟁을잘해달라고부탁하는것이다. 나는다같이용기를가지고싸워야한다고하였다.

며칠후 공판에서는구형그대로언도하는것이었다. 구형대로언도하리라곤아무도믿지않고있었던것이다. 기록을뒤져보니 1974년 7월 11일에있었던일이다. 우리는모두항소하였다. ‘ 사형수 ’ 무기수란패쪽이붙은감방에서며칠지내고있는데, 구치소당국에서항소이유서를쓰라고하면서미농지묶음과묵지와필기구를준다. 판결문을요구했더니, 공소장을보고그냥쓰라는것이다.

나는차분히생각하며써나갔다. 이북함경도북청에서성장하여서울에공부하러왔다가38선이꽉막혀오도가도못하게된이산가족이라하며, 민주주의와조국의평화적통일을염원하면서살아왔다는요지와, 정보부취조에서가혹한고문을받은사실, 그리고인혁당이란지하당을결성한사실이없다는내용으로 20여장을쓰고, 마지막으로사법, 입법, 행정삼권이분리된민주주의대한민국을기원한다고썼다.

다섯통만제출하고한통은가지고있으라는것이었다. 나

는 한 통 더 작성하여두 통을 가지고있었다. 며칠인가있더니 가지고있는 항소이유서사본과공소장을내 놓으라는것이었다. 두 통중 한 통과 ‘ 민청학련국가변란기도사건’이란 공소장을내주고 항소이유서한 통은 아내가넣어준솜 침구 속에 깊숙이감춰 넣었다. 미농지20여장을솜 속에 감추니안성맞춤이었다.

나는 이 항소이유서를9년 가까이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의 검방(檢房)에서도무사히 간직하고있었는데, 8년8개월만에대구교도소에서출옥하는전날 교도소당국에서내일 아침 일찍 출소하게되니 사물보따리검사를 위하여 일체의사물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아침에는감방에서알몸으로나와 교도소에서주는 옷을 입고 집으로간다는것이었다. 나는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집에 와서 솜 침구부터뒤지니감춰뒀던내 항소이유서가깜쪽같이없어졌다.

이야기를서울구치소에돌아와서다시 시작하자. 하루는 “ 찐빵! ” 외치며다니는장사꾼(수형자)이나에게 “ 신관쪽에계시는 장 선생이보냅니다 ” 하며꼭꼭 접은 쪽지를 던지고간다. 반갑고 신기한마음으로열어 봤더니뜻밖에장석구가보낸 것이다. 지명수배를받고 있는 이성재를감춰주고있다 들켜 함께 잡혀와 있다는내용이다. 또가슴이 덜컥 무너지는것같은충격이다. 나는 보고난쪽지를찢어 변기통에넣어버렸다. 이후계속하여종종 찐빵장사를통해 우리는서로의안부를주고받았다.

인혁당사건추가재판에서이성재는무기, 장석구는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긴급조치위반자들에대한 형집행정지사면조치에 의하여많은 사람이 석방되었으나인혁당사건관련자들만은 매번 제외되었다. 긴급조치구속자 중 5년이란 최저 형량을 받은 장석구도예외가아니었다. 장석구는서대문구치소에수감 중 48세의 나이로1975년 10월 15일 의문의죽임을당했다. 후일 김대중 대통령 치하에서구성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오랜 조사 끝에 2002년 9월 16일 장석구의옥사에대해 직권 제 84호로 다음과같이 결정하였다.

1. 의문사한자 장석구는민주화운동과관련하여위법한공권력의직간접적인행사로사망하였다고인정한다.
2. 이 사건에관하여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 보상심의위원회에의문사한자 장석구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의 심의를요청한다.
3. 인혁당재건위원회사건에관하여재조사할것을 정부에 권고한다.

2심이 열렸다. 1심과다른 것은 어깨에번쩍이는별을 단 재판관 수가 여러 사람 더 늘었다는것뿐이다. 2심판결에서는무기형을받았던김종대와전재권이20년 징역형으로감형된것 외에 아무 변화가없다.

어느 날 갑자기교도관이와서 전방(傳房) 준비를하라 한다. 어디로왜 가는가물으니석방되었던김지하가재수감되어이 방으로 오고, 나는9사 2층으로간다는것이다. 왜재수감이나했더니 신문에인혁당은조작이라고글을 써서 다시 들어온다는것이다. 가슴이철썩 내려앉는것같다. 순간나는 생각난다. 그유명

한「오적(五賊)」시로우리를감탄케한 김지하! 그는이제 한국의 에밀 졸라가되려 하는구나. 에밀졸라는프랑스국가정보기관이 날조한간첩사건(드레퓌스)에서 성인의양심으로뛰어들어 진실을밝혀낸용기있는지식인이었다.

나는 무거운심정으로징역보따리를싸 청소하는일반 수형자(소지)의도움을받아 9사상으로이사하였다. 그방에는 ‘ 사형수 ’란 패쪽이붙어 있고, 일반수들이여러 명 있었다. 독방에서 이제 또다시일반수들과같이있게 된 것이다. 그방에 있는사형수는 ‘ 임자도(?) 간첩단사건 ’에 연루된분인데, 얌전한인상을주는 선한 사람같았다. 내용을물었더니억울한사연이라고만한다. 그는이튿날인가다른 데로 전방 갔다.

또 한 사람 흥미있는사람이있었기에말하려한다. 그는중앙정보부전직간부였다. 5 · 16 쿠데타에 가담한영등포주둔부대 영관급장교였다는것이다. 거사전일 박정희장군이직접 와서 부대를 점검했다는이야기, 새벽에무장부대를이끌고한강다리를 넘은이야기등. 또자기는김형욱과동기이자친한 친구이며, 육군본부에근무할때 형욱이는보직이없어 어려운처지에있어 그 때 자기가매일 양담배한 갑씩 사준사이였는데, 혁명후 형욱은 국가재건최고회의위원이되고, 자기는창설된중앙정보부의 김종필밑에서일하게되었다는것이다.

어느 날 최고회의위원단이중앙정보부를시찰 나왔는데, 시찰단에있는 김형욱을보고 너무 반가워서 “ 형욱아! 오랜만이다 ” 하고 인사하니이상하게표정이굳어 있어 “ 형욱아, 나야! ” 했더니 쳐다 보지도않고 돌아갔다는것이다. 기분이씁쓸해있는데, 저녁 무렵 차장이불러 말하기를, 김형욱위원님이몹시 화가 났다는 이야기다. 국가재건최고회의위원님에대한 예우도제대로 차리지못하는정보부라면서크게 질책당했다는것이다.

그래서그는 “ 형욱이는나와 동기이고, 우리사이는형제같이 가족 내외간에도서로 말놓고살아 온 처지 ”라 설명하니, 차장은 “ 그래도국가간부간에위계를지켜야하지 ” 하면서자기가 시키는대로 하라는것이다.

이튿날돈은 얼마든지줄 터이니최고급요리집에최고급기생을 준비하라하여 급히 서둘러 시키는대로 삼청동 삼청각을 정해놓고알렸더니, 두둑한돈뭉치를주면서저녁에전화통옆에 대기하고있으라한다. 대기하고있는데, 차장이전화로지금 삼청각에와서 김형욱위원님께큰절로사죄하라는것이다.

순간 모든 공직을 때려치고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고 살고 싶은 심정이들었지만, 군인이라명령에살고 명령에죽는 처지, 시키는대로 삼청각에가니 정보부차장들이김형욱에게기생을 안겨주는한판 술자리가벌어지고있었다.

자기를본 김형욱은순간 표정이굳어지더라는것이다. 앉지도 못하고서 있었는데, 차장이대뜸 “ 대한민국국가재건최고회의 김형욱위원님에게전일 불경죄를저지른대한민국중앙정보부 이 국장이큰절로사죄합니다 ” 하라하니 자기도모르게큰절을 하게되더라는것이다.

굳었던얼굴이조금 풀어지는김형욱의모습을보면서돌아나와 부하들에게돈뭉치를주며 뒷처리를지시하고집에 돌아와 분통이터져 막 울고 있으니, 부인이왜 그러는가묻기에자초지

종을 이야기했다. 부인도 속상해 하면서 당장 공직을 내던지고 야인으로 살자며 자기를 위로하더라는 것이다. 그의 부인은 숙명여대 의상학과를 졸업한 디자이너라 한다. 자기는 단국대학을 거쳐 육군간부후보생학교 졸업하와 장교가 되었다는 것이다.

군인들의 권력의식에 대한 생생한 단면을 보여주는 드라마틱한 장면이다. 나는 그에게 박정희가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배신하고 합헌정부를 무력으로 전복, 정권을 찬탈한 짓은 천추에 용서 못할 대역죄를 범한 것이라 했더니 수긍하며 깊이 반성하는 눈치였다. 그는 아주 순진한 사람이었다.

내가 전방가 보니 변기통 청소는 쥐털(형무소에서 형 치금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시키고 범털(돈 많은 사람)은 아니하는 것이었다. 내가 순번으로 하자 하며 팔을 걷어부치고 직접 했더니 모두 말리면서 어르신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내가 " 쥐털이니 범털이니 사람 구별 하면 아니된다. 사회에서 없는 사람 천시되는 것도 억울한데 감옥에서까지 이러면 절대 아니된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전적으로 전담해서 변기통 청소를 하겠다고 고집하여 그 때부터 출옥하는 날까지 맡아 했다.

그리고 정보부 국장 자리에 있었다는 사람이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 즉 민주당 시절에 이후락이 국무총리 안보비서관이란 직책으로 국방부 별실에서 미국 CIA 지도 하에 중앙정보부 조직작업을 한 사실, 김종필이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정보부를 창설했다는 것, 5 · 16 쿠데타 후 박정희가 이후락을 서대문 감옥에 가뒀다가 미국의 압력으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사실조차 잘 모르고 있었던 순진한 군인이었다. 나는 그에게 깊은 동정심을 갖게 되었다. 그도 나를 존경하는 모습이었다.

그에게 감옥에 왜 들어 왔는가 이유를 물었다. 그는 김형욱에게서 참을 수 없는 수모를 당한 후 정보부 국장직을 사직하면서 같이 따라 나온 부하직원들을 데리고 기업체를 차렸다 한다. 그런데 모 기관과의 입찰과정에서 직원들이 정보부 요원인 것처럼 행세한 것을 경쟁회사 사장이 정보부 과장으로 있는 동생에게 알려 직원들이 구속되면서 사장인 자기까지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정보부에 연행되어 새까만 후배들에게 온갖 수모와 욕설, 그리고 고문을 당하면서 수사관이 부르는 대로 조서를 써야 했다는 것이다. 듣고 보니 우리 인혁당 만 당하는 취조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가 막히는 일이다. 이 권에 얽힌 비정한 군인사회의 생리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어느 날 그가 검사 취조를 갔다 오더니, 검사가 자기를 내놔주면 법무부 고위간부를 만나 청탁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고 물으면서, 이번에 법무부에서 인사이동이 있는데 자기가 지방으로 전근가야 할 순번인데 가지 않도록 손을 써 달라 하더란다.

그래서 법무부에 가 있는 군 출신 정보부 조정관을 잘 아는 친구라고 하니, 검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 최선을 다해 석방시켜 줄 테니 나가서 꼭 자기 부탁을 들어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묻기에 나는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 답해주었다.

며칠 후 그는 석방되었다. 석방되면 그는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아예 이민 갈 것이라 하였다. 얼마나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박정희의 학정을 피하여 사랑하는 조국을 등지고 낯설고 물설

은 이국땅으로떠나야할 것인고! 석방된며칠 후 마침 음력 명절을 맞았는데, 그는나에게 인절미, 송편, 고기등 많은 특별차입물을 넣어줘감방식구들과한바탕잘 먹었다.

이런저런우여곡절을겪으면서세월이지나는동안 운명의4월 8일 대법원재판날이왔다. 갇혀있는우리는밖에서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알 수 없었다. 오후가되어 청소부(일반죄수)가와서 알리기를, 아침에육군대령이구치소에찾아와보안과장과무슨 이야기를하고나서과장이사형장을청소하라지시하여청소하고 난 후 보안과장과육군대령이사형장을돌아보고갔다는것이다. 약간불길한예감도 들었지만설마하고무심히듣고 넘겼다. 대법판결 결과가어찌 되었을까궁금할따름이나알아낼길이 없다.

세상 돌아가는줄 모르고그날 밤을 지냈다. 늦은아침이되었는데도기상하라는지시가없다. 일어난사람에게는도로 누우라고 교도관이호령한다. 아무도일어나지못하게감시한다. 이상하다. 교도관에게왜 이러는가물으니대답이없다. 한참시간이 흘러서야기상하라한다. 불길한예감이다.

아래 층 세면장에내려갈순번이되자 나는 며칠 전에 전방온 서도원동지 방으로교도관의제지를뿌리치고달려갔다. 침울하게앉아 있는사람들에게물으니아침에끌려 나갔다는것이다. 왈칵 치밀어오르는울음을누를 길 없었다. 나는창살을붙들고 울먹이며나갈 때 어찌하고나갔느냐고물었더니, 모두들 통일된조국에서행복하게잘 사시라하시면서담담한표정으로 끌려 나갔다고한다. 사물은교도관이모두 가져갔다는것이다.

서도원동지는항상 그 무거운입으로내 뱉는 뼈있는말로 주위의시선을끄는 존경 받는 동지였다. 나는대구에내려가면 서도원동지를중심으로십여 명 혹은20여 명의 동지들이함께 모여 담소도하고 술도 같이 마시며즐겨 지내는사이였다. 때로는 그의 집에서같이 자기도하였다. 서도원동지는만나는사람을 언제나편하게하는 온유한성격과항상 성실히노력하는수준 높은 탁월한이론가이며착실한실천가였다. 내가출옥 후, 연세대교 학장(출옥후 부총장)으로긴급조치위반으로학생들과 함께 갇혔다풀려나신김찬국교수는감옥에서서도원씨와 자주 통방하며대화를나눴다며훌륭한분이라칭찬을아끼지않으면서 유족에게전해달라며10만 원짜리은행수표를몇 번인가줘서 전해준적이 있다. 김찬국부총장은대구에계시는유족을직접 예방 위로하기까지하셨다고한다. 서도원과김찬국은어쩐지비슷한 인품, 남에게언제나편안한호감을주는 그런분이였다. 서도원 동지를위시한희생된여러 동지들이그렇게일찍이형장의 이슬로사라지지않았던들우리가겪은 반독재민주화운동과자주적 평화통일운동의어려움이그렇게크지는안았을것을 더욱 절실하고아쉽게생각한다.

허무한세상사! 대법원판결 결과를알리지도않고 사형집행으로 알리다니! 이런잔인무도한인간사! 박정희정권의이 야수 같은 포악성을무엇으로어떻게성토하랴! 나는세수도않고 2층 내 방에 와서 쓰러져누웠다. 한참있자 의무과에서의사가와서 혈압을재고 주사를놔주고간다. 구치소는육중한철 대문을잠그고 당분간일반인의접근을일체 금지한다는공고문을붙였다

한다. 제네바에있는 국제법률가협회는이 날을 ‘ 사법사상암흑의 날 ’이라 명명했다고들었다.

얼마 후 살아남은우리에게는가족면회가허용되었다. 1년만에 만나는5분간의대화다. 반가웠다. 하지만갑자기구속되면서 1년이 넘도록가족면회한번 없이 유명을달리한동지들생각이 치밀어올라 눈시울이뜨거워진다.

집 걱정부터했더니아내는아무 걱정 말라고하면서항소이유서는왜 쓰지 않았는가묻기에나는 또 놀랐다. 다른가족들은 변호사를통해모두 항소이유서사본을받았는데유독 나만 못 받아 김종길 변호사에게물었더니, 당국에서전창일은항소이유서를 쓰지 않았다고하더라는것이다. 참알고도모를 일이다. 썼다고 했더니아내는무엇인가알아차린것같은묘한 표정을지었다.

이렇게짧은 순간 면회는면회라하기보다보고 헤어지는접견이라하겠다. 뒤돌아나가는아내의 모습을보며 고생하는아내와 아비 잃은 아이들생각에가슴이찢어지는것만 같았다.

5. 전주교도소로 이감가다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아침을 먹고 나자 이감이라며 보따리를싸라 한다. 나는서둘러시키는대로 했다. 그간아내가 차입해준 책이 꽤 많아 짐이 적지 않았다. 나는깊이 감춰둔항소이유서사본을확인하면서짐을 꾸려 교무과지하실로옮겨 와 보니 김한덕, 류진곤, 강창덕세 사람이먼저 와 있었다. 사경(死境)을 겪은 운명의동지들이었기에눈물겹게반가웠다.

우리는소위 이송복으로갈아입고수정과포승줄에꽁꽁 묶여 차에 실렸다. 서울역에가서 전주교도소로이감된다는것이다. 호송 교도관이여러 명인데다구치소부소장이진두지휘한다. 이례적인일이라고교도관이알려준다. 억울한누명을벗을 때까지는 도망가라해도 안갈 선량한사람들인데, 이렇게삼엄하게경계하는구치소당국이민망하기만하다. 그선량한생사람들을마구잡이로죽인 살인마들의지시겠지, 하는생각이들었다.

우리를태운 기차는호남선을향해 달리기시작하였다. 학생시절 톨스토이의소설 『부활』에서 시베리아유형 가는장면을읽었던 기억이떠오른다. 어느덧우리는전주교도소에도착하여보안과에인계되었다. 그러자입고 온 옷을 모두 벗으라한다. 서울구치소로도로 갖고 간다는것이다.

전주교도소에서갈아입으라는준 수의는 너무도 남루해서 걸레에도쓸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구치소와교도소가이렇게 다른가생각하면서보안과장에게너무 남루해입을 수 없다했더니 하루 이틀만참아달라한다. 새옷이곧 도착하는대로 갈아입히겠다는것이다. 할수 없이 그것을입고 식기와나무로만든 수저를 받아 든 우리들모습, 거지 따로 없구나한숨이 내 가슴을 친다.

교도관을따라 입방한곳이 ‘ 특별사 0.75평 독방이다. 어두컴컴한복도에는희미한전등불이죄수들을말없이감시하고있다. 갇혀있는죄수들의창살에 가린 얼굴들에서새로 들어오는 손님들을반기는 호기심어린눈빛만 반짝인다. 저사람들은또 무슨 일로 갇혀있는것일까궁금하기만하다. 우리는각기 하나

씩 건너 배정된 공방에 밀쳐 넣어지고, 그 뒤에서 육중한 철문이 닫히고 철컥 잠긴다. 꼼짝 못하게 갇힌 몸이 되었다.

갑갑하고 염려되어 ‘ 강형! ’ 하고 불렀더니 강창덕이 ‘ 전형! ’ 하고 대답한다. 그러자 교도관이 달려와서 야단친다. “ 통방(죄수끼리 대화)하면 안돼요 ” 한다. 나는 교도관에게 “ 함께 온 사람이 갑자기 격리되어서 로 인사하려고 부르는 것이 왜 안돼요? 인성교육할 교도소가 이러면 됩니까? ” 했더니 교도관이 “ 절대 통방시키지 말라는 특명이요 ” 하는 것이다. 마음이 어두워진다. 이것이 사람을 교도하는 곳이라? 우리들이 갇혀 있는 감방 앞에 아예 교도관을 고정 배치해 놓고 감시를 강화한다.

이튿날 또 새 손님이 온다. 안양교도소에 이감되어 있던 김종대와 이창복이 전주로 온 것이다. 반가웠다. 참말 오래간만에 만나는 동지들이다. 이창복과 김종대는 황현승, 이수병, 유진곤, 그리고 경남고 2학년에서 서울대 물리학과에 합격한 김용원의 친구로서 나와는 가끔 등산을 같이 가서 토론도 하고 유신헌법을 마음 놓고 비판 비방하며 카타르시스(Catharsis)를 즐기던 동지들이었다. 안양에 같이 있던 황현승은 광주교도소로 이감갔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주에는 우리들 인혁당이 6명이나 같이 있게 된 것이다.

옆방에 있는 분은 강화도 출신 안씨라 한다. 복도 쪽은 간수가 지키고 있어 뒤편 변소에나 와 통방할 수 있었다. 그는 6 · 25 전쟁 통에 잡혀 와서 지금까지 20여년 갇혀 있는 숫총각이었다. 아직 여자의 손 한번 만져 본 적도 없다 한다. 참 잔인한 역사다. 나는 그가 철의 사나이 같이 생각되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온 후, 사방 분위기가 아주 삼엄해졌다는 것이다. 전에는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마음 놓고 통방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와서 통방도 못하고 곱징역(이중징역이란 뜻)이라 한다.

‘ 특별한 때 ’ 는 어떤 때인가 고 물었더니 1년이면 두 번씩 전향공작기간이 있는데, 그 때가 되면 폭행, 고문, 온갖 탄압이 가해지며, 엄동설한에 내의를 다 빼앗아 가고 감방에 물을 퍼부어 빙판에서 떨게 한다는 것이다. 여름 삼복더위에는 0.75평 방에 5,6명씩 가두어 눕지도 못하고 앉아서 잠을 잔다는 것이다.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놀라운 가혹한 행위가 아닌가!

그 시련을 견뎌오면서 20여년, 그들에게는 옥바라지 해주는 가족도 없고, 그러니 영치금도 없다. 또 북에서 남파됐다 잡혀 소위 간첩이란 죄명으로 갇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한다. 분단의 아픔이 바로 이것이로구나 또 한숨이 저절로 나온다.

전주 온 지 3일 만에 가족들이 면회 왔다. 교도소 당국에서 면회하기 전에 주의사항이라며, 특별사동 안의 이야기 말 것, 교도소 처우에 관해 이야기 말 것 등 주의가 있었다.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물으니 가족과 집안 이야기만 하란다. 매사 기막히는 일들의 연속이다.

면회장에 가니 철망과 두꺼운 유리로 꽉 막힌 면회실 양쪽에 교도관이 두 사람씩 서서 감시하고 있다. 유리에는 작은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어 소리가 통하게 되어 있었다.

아내는 만나자마자 사동 안의 사정과 교도소 당국의 처우에 관해 묻는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만 골라 묻고 있는 것이다. 괜찮으니 걱정 말라 하고 바깥 사정을 물었더니, 신부 목사님들이 석

방운동하는이야기를꺼냈다. 옆에있는 교도관이제지한다. 아내는 항변하다시간이5분 다 됐다며끌려 나간다. 처음면회는 이렇게끝났다. 서울에서머나먼길 노자 쓰고 온 면회, 허전하기 짝이 없다.

사방으로돌아와우리끼리변소 뒤쪽으로나와 제지를무릅쓰고 통방을했다. 유진곤이하는 말은 74년 5월 1일 자기가경영하는 목재소에정보부사람들이여러 명 찾아왔다는직원의보고를 받고사태가심상치않아 도피해있다가잡혀, 온갖고문과회유를 받았다는것이다.

내용인즉작고하신강무갑이강원도광산소송사건에서승소하여 거금을얻게 되었는데, 그중일부 금액을고향 후배인이수병에게조국통일과민주화운동자금으로쓰라고줘서 이수병이 그 돈을사업하는친구 유진곤에게맡겨놓고일정한금액을이자로 매월 얼마씩 받아 활동비로썼다는 것이다. 그런데이수병이 그 돈을 이북에서받은 공작금으로자백하면석방시켜큰 자금을 지원하여목재소를확장, 대기업으로키우게 해 주겠다는것을 듣지 않아 전기고문, 물고문온갖 수모를다 당했다고한다.

강무갑은일본의교도제대공학부 광산과출신으로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다. 그런데옥중에서얻은 폐병으로고생하면서생활이 어려워자녀들에게는고등교육도못시킨 분인데, 이수병에게 운동비로거금을줬다는말을 듣고 나는 마음속으로그를 높이 평가하였다. 유진곤은그 돈을 정보부에압수당했다는것이다.

이감 와서 며칠이지나 우리는교무과에불려나갔다. 교무과에는 정치범을담당하는부서가있었다. 과장밑에 있는 차석을 반장으로 ‘ 전향공작전담반’라는부서가 유신헌법을계기로4개 교도소에설치되었다고한다. 전담반소속은 법무부로돼 있으나 지휘체계는정보부산하에있다 한다.

반장은우리에게교도소규칙을잘 지키고사상을개조하라는 훈시를 한다. 장황한그의 말 중에서 지금도 기억나는것은 “ 유신만이살길이다. 유신을반대하는것은 계란으로바위를치는 격이다. 북한은부자 세습하는김일성 왕국이다 ” 등인데그자는 전향공작의고문, 가혹행위총지휘자였다. 자기가전주고보 출신이라자랑하기도한다. 교무과전담반직원들은모두가유신헌법 절대지지자들로조직돼있는 것이었다.

나는 곰곰이생각하였다. 면회시간문제, 운동시간문제, 통방 문제, 감방조명문제, 감방내 확성기문제 등을 내걸고소장 면담을요구하기로결심하였다. 소장은정복에권총까지차고 다니는 유별난사람이었다. 교도소에서소장 면담하기란사회에서 대통령 만나기보다더 어렵다는것이다. 며칠지나도소식이없다. 나는담당교도관에게항의하였다. 교도관은난처해하면서며칠만 더 기다리면꼭 성사되도록하겠다고하였다.

통방이철저하게금지된상황에서서로 이름을부르는것이 좀 불편해서우리는호를 지어 부르기로했다. 나는이곳이유서 깊은 전주, 우리의근대사에서가장 위대하고역사의금자탑인 동학농민혁명의요람지, 전봉준장군과 애국적 농민군, 야산에 모여든농민군이전 장군의 호령에 “ 서라! ” 하면백산이 되고, “ 앉으라! ” 하면죽산이되었다는역사기록에서나는 백산이란뜻으로 호산(皓山)으로지어 부르겠다고알렸다.

강창덕은야성(野星), 김한덕은여백(餘白), 김종대는원장(院長), 나름대로의뜻이 있었다.

어느 날, 특별사에문익환목사가들어오셨다는이야기가들렸다. 이튿날운동하러나가면서문 목사가 전창일이란팻말을 보고 내 방을 들여다봐서우리는서로 반갑게만났다. 문목사는 특별사의옥중옥이라는징벌방에갇혀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2중 철책이 있어 열쇠를 가진 교도관 외에는 접근을 할 수 없는 방이다. 문목사는그것이징벌방인줄 모르고있었던것이다. 우리는 같이 항의했다. 그래서인지얼마 후 문 목사는병사로전방되었다. 우리와격리시키려는목적이있었던것같다.

나는 1982년 말에 출옥한 후, 통일운동에헌신하고계시던 문 목사와함께 전민련과범민련운동에합류했다. 이과정에서 기록할만한 일화들이많으나지면상문 목사가평양에갔다 온 이야기중 한가지만소개하려한다.

북경에서평양 가는 ‘ 고려민항에 몸을 싣고 광활한만주벌판 위를 날아가는데, 비행기가압록강상공에도달하자기내 안내양이방송하기를 “ 승객여러분, 우리민항기는지금 조 · 중국경 압록강상공을날고 있습니다 ” 하기에말없이굽이쳐흐르는 압록강을내려다보면서탄식의눈물을흘렸다는것이다.

왜 조 · 중국경이란말인가! 분통이치밀었다. 문목사는더욱이 북간도용정에서성장하셨기에두만강, 압록강을국경이라 생각해본적이 없었던것이다. 김일성주석과도합 일곱 시간이나 독대하는동안에민항기상에서느꼈던비통한심정을말했더니, 김 주석은문 목사의손을 꽉 잡으면서 “ 목사님, 어째 생각과 그리 꼭 같소 ” 하기에서로 손을 굳게 잡은 두 분 사이에는 한참 동안 말없이침묵만흘렀다는것이다.

그러면서문 목사는나에게말씀하시기를 “ 김주석은공산주의자가아니야, 그는민족주의자야, 나는확인했어 ” 하는것이다. 나는 김 주석이주은래중국총리에게옛 고구려발해 땅인 서북간도를조선에반환해달라는요구를 했고, 그 과정에서백두산천지의과반을할양받았다는기사를어느 일본잡지에서본 기억이 있다고알렸다. 문목사는김 주석에대하여깊은 민족애로신뢰하고있었다.

6. 교무과장 면담

소장면담신청에대해하루는교무과장이부른다. 과장실에서 나는독대를하게되었다. 나는면담이유를조목조목설명했다.

첫째, 특별사에우리 긴급조치수감자가들어온 이후 계호분위기가아주 강화된이유를따졌다. 둘째, 면회시간5분, 하루 운동시간15분은 너무 짧다. 셋째, 감방전등 조명이너무 어두워서 책 읽는데시력에지장을준다. 넷째, 감방내확성기소리가 커서 귀가 아프고머리가 멍해진다. 확성기를철거하라. 방송내용도 하나같이저질이다. 유신헌법찬양, 기독교기복신앙설파, 모두가우리에게는정신적고통뿐이다. 이상과같은 문제를해결하기 위해서는소장과면담해야한다고주장했다.

내 말을 기록하던그는, 자기가소장과협의해서최선을 다하여 해결해볼 테니 맡겨달라고하면서, 자기는소장과공무원

직급이같은 지위라고한다. 자기도모를 일인데, 왜특정인들에게 ‘ 특별수용지침이’ 있는지, 20여년교도소 근무에 처음 보는 일이라한다. 상부에서내려온 우리 인혁당에대한 지침서를보여주는데,‘ 엄정독거, 완전격리 ’ 빨간색으로밑줄이그어져있다. 그가 되레 나에게하소연을하는 격이 되었다. 그래서이 문제는 법무장관을면담할문제라고했더니, 이 공문을봤다는말을 절대 하면 안돼요한다.

그가 아내와처갓집 내력을잘 알고 있어 나를 놀라게했다. 내 아내가공주사범을나온 미인이라며, 관동대학에서교수 노릇하는 내 처남도잘 알고 있다고했다. 사연을물으니그의 아내가 나의 처제와중고등학교동기 동창이었다. 그리고공주사범대학 출신이었다. 아내가면회왔을때는 교무과장이일부러 면회실까지 와서 아내를면담하기도했다. 이후, 얼마있어 약간 개선의조짐이 있었다. 교무과장직권으로해결될수 있는 문제들뿐이었다.

세월이 지나 교무과장도갈리고 권총 찬 소장도 갈렸다. 겨울이 오면서감방 안벽에는흰서리가두텁게끼고, 읽는책장 위에는 콧물이떨어지고, 얼어부은 귀에서도물이 떨어진다.

강화도안씨 이야기대로 ‘ 전향공작기관 ’은 것같았다. 교무과, 보안과, 일반폭력죄수합동으로특별사에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을끌어내전향을강요하며고문과폭행을가해 저녁에는 정신을잃고 일반수들에게업혀 들어 오는 것이다. 피투성이다. 옆방에서가슴 저리게하는 신음소리가나를 참을 수 없게 한다. 그야말로목불인견이다. 중앙정보부지하실 생각이 되살아나서 내 심성을사납게한다.

7. 전주교도소장 면담

나는 수개월이지나도이뤄지지않은 소장 면담을강력히요구했다. 이번에는될 때까지 단식할 것이라위협했다. 일주일이 되어도소식이 없어 나는 단식을 결행했다. 인혁당동지들도따라 했다. 이틀이지나 사흘만에소장이부르는것이었다. 새로온 소장은전임 소장과는다른 사람 같았다. 교도관제복도입지 않고 권총도차지 않았다. 소장실에서내면하니보안과간부가 옆에 앉아 기록을한다.

나는 처우개선몇 가지를요구하면서, 인간의군거성향(群居性向)은하늘이준 본능인데, 가정을떠나 폐쇄된공간에서징역사는사람들간에말을 못하게하는 것이 인성 교육한다는교도소에서 있어서는안될 일이 아니냐고했더니, 알겠다고하면서자기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주일마다나가는 독실한기독교신자라고 한다. 그는처우를개선해줄 의사를비친다.

나는 마지막으로특별사동에서는요즘 인간의 눈으로는차마 볼 수 없는 잔인한현상이벌어지고있다고알리니놀란 표정으로 무슨 일인가묻는다.“ 사상전향공작이선도적인방법이아니라 강압적인폭행과비인간적인고문으로자행됩니다 ” 하면서 “ 그들은장차 제 고향 북으로송환될때가 있을 것이요. 나는그것이 우리 역사의필연이라생각돼요. 그렇게되면 저 사람들이 이곳 전주교도소에서당한 이야기를온 세계를향하여폭로할텐데, 소장의2세 3세들이내 아버지할아버지가하신 일로 알게 되면 어떻게되겠는가생각해보셨습니까? ” 물었더니, 교무과에서

하는 일이지만법무부소관사항이아니고타 기관과협조해서하는 일이라 하면서 은근히 발뺌하는눈치였다. 타기관이라함은 정보부임이틀림없다.

그는 그 문제는못 본 척하라면서빨리 출소하여국가 의정단상에 가서 나더러 시정시키라고한다. 그러면서설명하기를, 현행 행형법에소장에게가출옥허가권한이규정돼있지만, 자기는 한 사람도허가하지못하고상신만할 수 있을 뿐이라고하면서 소장의재량권이적다면서이해를구했다.

소장 면담 후, 우리는면회시간5분에서7분으로, 운동시간15분에서30분, 뒤뜰에배치됐던통방 감시원인전투교도철수 등 몇 가지 소득은얻었다. 투쟁을통해 고달픔속에서도징역살이는 조금씩나아져가고있었다.

그런데내 건강에이상이왔다. 얼굴이많이 부어서동지들이 모두 걱정을하며 의무과진찰을권하기에의무과장의진찰을받게 되었다. 과장은이상이 발견되지않는다고하면서 책을 너무 많이 읽지 말라고권한다. 나도별로 아픈 증상을모르고있었다. 그러나부은 얼굴은가시지않는다.

아내가면회 와서 보고 내 신상에이상이온 것을 알고 소장과 의무과장을면담하고외진을요청했다고들었다. 소장은외진받는 것이 어려운것은 아니나전창일은중앙정보부의허가가있어야 교도소담 밖으로나갈 수 있다고하면서, 의무과장이전주에서 유명한내과의사를교도소로불러 진찰해보겠다하여 아내가 동의했다고한다.

2,3일 후 나는 의무과에나가 외래의사의진찰을받게 되었다. 혈압도재보고심전도검사 등, 세밀한진찰을하고 나서 외래의사는의무과장에게고혈압위험상태(Hypertension Critical)라고 영어로말한다. 그는내가 영어를못 알아듣는줄 알고 영어로 말하는모양이다. 저희들끼리혈압이210이 넘으니입원이 필요하다고숙덕인다. 나는모르는척했다.

며칠 후 아내가법무부에서특별면회허가를받아 시간제한 없는 면회가 허용되었다. 나는아내에게외래의사진찰에 대해 상세한이야기를해줬다. 아내가법무부에입원 신청을하겠다고 올라간후 며칠 지나 허가되어나는 예수병원에입원하게되었다. 모두가아내의헌신적노력 덕분이었다.

8. 전주예수병원 입원과 아내와의 대화

내가 예수병원1인실에입원했는데전주경찰서,청량리경찰서, 정보부, 그리고교도소에서간부 한 사람과 교도관2,3명이 24시간 상시 계호한다. 5,6명이복도와병실에서지키고있다. 나는 병원측에대해 부끄럽고미안한생각이들었다. 아내는내 침대 옆 작은 침상에서떠나지않고 있었다. 고혈압의원인을알기 위하여며칠간의정밀 종합진찰이필요하다는것이다. 나는청량리경찰서까지왜 와 있는가아내에게물었더니, 그사람은자기를 따라다니는감시원이라는것이다.

나는 중앙정보부에서야전침대몽둥이로구타당한후로는 허리를잘 쓰지 못해 진찰을부탁했다. 진찰결과는본태성고혈압이며, 허리는촬영 결과 척추 부위를에워싼근육조직이파괴

돼 무리한 움직임은 아주 위험하다는 것이다. 나는 이 진찰 후, 하루도 빠짐없이 오늘까지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 8일 동안 아내와 같이 있으면서 들은 이야기를 다 쓰자면 소설 한 편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중요한 몇 가지만 이야기하련다.

(1) 긴급조치 구속자 가족회

긴급조치 구속자 가족회가 조직되어 회장에 윤보선 전 대통령의 영부인 공덕귀 여사이고, 부회장에 현 대통령 김학민 군의 아버지 김윤식 전 국회의원이라는 것이다.

가족회는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박형규 목사 부인, 김지하 어머니, 문익환 목사 부인, 이우정 여사 등을 위시해 많은 학생 가족들, 그리고 오글 목사와 시노트 신부를 비롯한 많은 성직자들, 문정현 신부, 함세웅 신부, 최기식 신부 등 많은 사람들의 성원을 받으며 우리 인혁당 가족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고 아내는 자랑스레 무용담을 늘어놓는다.

지키고 있는 계호원들도 재미있게 듣고 있다. 나는 아내가 너무도 기특하였다. 그리고 한없이 사랑스러웠다. 그리고 또 한편 고생시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다.

(2) 시신 쟁탈전, 그리고 재판기록 변조사실의 발견

4월 8일 대법원 판결 후, 18시간 만에 집행된 사형수들의 시신을 인수받아 가족들은 응암동에 있는 함세웅 신부 성당에 가서 추도회를 가지려 했는데, 고문흔적이 알려질 것이 두려운 정보부는 시신을 자기들 입회하에 매장 혹은 화장하려고 경찰을 동원해 응암동행을 막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시체 쟁탈전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문정현 신부는 경찰차 바퀴에 깔려 불치의 불구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명동성당, 그리고 종로5가 기독교회관은 시국기도회로 민주화 운동의 성지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

집회에서 가족들이 앞장서서 ‘ 인혁당은 조작됐다! 공개재판 다시 하라! ’ 외치다 아내는 정보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을 때, 모 과장이란 자가 인혁당이 왜 조작이라 유언비어를 퍼뜨리느냐 하기에, 내 남편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을 나는 똑똑히 들었다 하며 항변하니, 그 자는 ‘ 이여자 정말 고문 받아봐야 알겠나 ’ 하기에 아내는 ‘ 그래 고문해봐라. 내 남편이 받은 고문 내도 받아보자 ’ 했더니 한발 물러서면서 ‘ 아주머니, 인혁당은 조작된 것 아니요. 피고들이 법정에서 모두 시인했어요. 내가 기록을 보여드릴 게요 ’ 하면서 서고에서 재판기록을 찾아와 전창일 이 법정 진술한 곳을 찾아 보이는데, 놀랍게도 ‘ 인혁당 조직했지요? ’에 대해 ‘ 네, 했습니다. ’ 다른 질문도 모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분명히 들은 부인사항들이 시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이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책상을 치면서 ‘ 이럴 수가! 이럴 수 있나! ’ 하며 분통을 터뜨리며 성토했더니, 이 자는 서류를 도로 가져가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는 것이다. 아내가 보기에는 그 자는 정말 변조된 것을 모르는 것 같기도 하더라는 것이다.

몇 시간이 지나더니 ‘ 이제 나가면 제발 날조됐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보부에 끌려와서 있었던 일 일체를 밖에 나가 말하지 말아야 해요. 약속하는 각서를 쓰시면 집에 보내 주겠소.

아이들도있고 하니 말이요 ' 하기에아내는각서를쓰고 나왔는데, 바로 그날이목요기도회가있는 날이어서, 그길로 종로5가 기독회관에가서 정보부에서있었던일 일체를그대로폭로했다는 것이다.

아내의보고를들은 세상은놀랐다. 대법원은변조된재판기록을가지고상고를기각하다니! 사법의서울을쓴 사기극! 그리고 18시간만에사형을집행하다니! 이것이박정희유신공화국인가!

(3) 유엔 인권위원회에 보낸 진정서

아내가전하는그 많은말들 중 한 가지 더 기록하면, 아내는 우리집 1층에서몇 해 전부터양장점을경영하고있었는데, 내가 구속된후 경찰이가게 앞에서 드나드는손님을 불심 검문하는 통에 손님이끊겼다는것이다. 그래서할 수 없이 양장점을명동 빌딩 속으로옮겨 아이들을학교 보내며근근이살아온다는것이다. 이러한구속자가족의생존권마저위협하는경찰의비인도적 처사에대하여인권 탄압 생존권유린사례로유엔 인권위원회앞으로 진정서를작성, 일본신문기자에게전달을부탁했는데, 후에 그것이7개 국어로번역되어여러 나라 신문에소개됐다는것이다. 그로인해 경찰 내부에서도큰 파문이일어났다한다.

이재문의소식이궁금했는데, 계호원들의귀와 눈이 두려워 묻지 못하다가눈치와 입놀림으로물었더니무사히 활동한다는 대답에마음이놓였다. 나는아내의 기특하기만한 무용담에만 병통치약이나먹은 듯이 전신이후련했다.

정보부에서고문당한후유증으로나는 때로는누웠다가혼자 일어나지못했다. 철문을발로 차면 교도관이와서 일으켜세워주곤 하였다. 아내가전주성당에계시는 문정현 신부와 같이 소장을면담하여문 신부가쓰던 나무침대를차입해줘서 침대에 누워 자니 홀로 일어나기쉬워 교도관의신세도면할 수 있었다. 언제나우리에게는고마운문정현신부였다.

9. 남민전 사건과 아내의 구속

종합 진단을마치고퇴원하니동지들이모두 반기며기뻐한다. 나는아내에게서들은 많은 빅뉴스를알릴 통방거리가너무나 많았다. 아내도내가 전주교도소로이감온후, 행형법을공부하여 웬만한문제들에대하여서는꽤 알고 있었다. 수형자가병이 났을 때 의무과장의허가를얻어 특별음식을차입할수 있다는 조항을가지고법무부에가서 교섭한결과 교도소의무과장에게 전창일가족이협의하면허가하라는지시를내렸다.

아내는 내가 좋아하는꽃게장과개소주(건강식품)를차입해 넣었다. 그리고귀한 수박 큰 덩어리 두 개도 넣었다. 교도관은 교도소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하며 차입물을넘겨준다. 나는 수박을깡통 뚜껑으로만든 칼로 쪽쪽 쪼개서특별사동에갇혀 있는모든사람에게돌렸다. 모두들놀란다. 그리고게장도사동에 있는 큰 주전자에넣어 끓여 각방에배급하였다. 입맛당기는 구수한냄새가사동을진동한다. 10년만에, 또어떤 이는20년만에 처음 먹었다는사람도있었다. 나는아내가그 무거운수박을 어찌 들고 왔는지궁금하였다.

나는 소장 순시 때 여름이 되면 수박, 참외 등을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에게 구매 물품으로 팔도록 진정하였다. 소장이 들어줘, 그해 여름부터 재소자들은 감옥에서도 수박을 사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일주일이면 한 번씩 특별음식물을 차입해 우리는 같이 나눠먹기도 하였다.

그런데 하루는 내 방 바로 앞으로 사동 교도관의 책상을 옮겨놓고 교도관이 항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더니 유진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교도관이 신문, 방송 듣고 알려주기를 밖에서 남민전 사건이 터졌는데, 나의 아내도 구속되었다는 것이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교도관의 책상이 내 방 앞으로 온 것도 그래서구나.

나는 너무나 큰 충격에 며칠간 식음을 전폐하였다. 무엇보다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태산 같다. 큰딸은 대학 2년, 둘째 딸은 대학 1년, 막내딸은 중학교 1학년에 다닐 때였다. 이가 혹한 역경! 아빠 잃은 어린 귀여운 내 딸들이 이제 어미마저 잃게 되다니! 나에게는 따스한 일가친척도 없는 38 따라지 이산가족 외톨이 신세인데! 아이들이 불쌍하다. 나는 목 놓아 울고 싶었다. 너무나 괴로워 죽고 싶은 심정이 더더욱 나를 괴롭힌다.

내 사정을 알게 된 옥중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동정의 눈짓을 보낸다. 인혁당 동지들은 더욱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통방을 하라 해도 하고 싶지 않은 심정으로 말없는 고독과 우울한 허무 속에서 흐르는 연민의 시간만을 벗하고 있었다. 갇혀 있을 아내를 생각하면 미쳐버릴 것만 같다.

같은 유치장에 갇혔던 권오헌 양심수 후원회장의 후일담에 의하면, 임인영 여사(아내)에게서 자기는 공권력과 싸우는 방법을 배웠다고 자주 이야기한다. 그의 말에 의하면 모두들 갑자기 잡혀와 의기소침해 있는데, 임여사가 잡혀 들어오자 간수들에게 큰소리로 항변하면서 저항도 하고 설렁탕 주문하여 각 방에 돌려주면서 격려하여 줬다는 것이다. 간수들도 임여사는 함부로 다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내의 혐의 내용은, 첫째 이재문, 신향식, 안재구, 김병권 등이 반민주적 박정희 유신체제를 타도하기 위하여 결사한 조직이 '남조선민족민주전선(남민전)'인데, 그 조직을 상징하는 깃발을 인혁당 사건으로 처형된 사형수들이 입었던 옷으로 만든 사실이 탄로났다 한다. 그래서 인혁당 가족들 여러 명이 잡혀 고문 취조를 받으면서 임인영(아내)이 그 옷을 사형수 가족으로부터 거두어 남민전 사람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금 취조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인혁당 사건으로 지명수배 받고 있던 이재문을 내 집에 감춰준 사실이 남민전 수사과정에서 드러나 범인은닉 혐의와, 셋째로 불법단체 가입 혐의 등이었던 것이다.

취조과정에서 첫째와 셋째 혐의는 완강히 부인하여 혐의가 풀리고, 밖에서도 임여사 석방 진정들이 쇄도하여 20여일 갇혀 있다 풀려나 불구속 입건되었다. 재판에서 범인은닉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범인은닉은 내가 한 일인데, 무고한 아내가 벌을 받게 된 것이다.

아내는 석방되자 곧 면회를 하러 내려왔다. 하지만 짧은 면회시간에 구체적 이야기는 할 수 없어 그냥 혐의가 풀려 나왔다는 이야기만 했다. 오랫동안 취조에 지쳐서 그런지 아내의 모습

은 초췌해보였다. 하지만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차지한 것 같이 기뻤다. 감방에 돌아와 소식을 통방했더니 모두들 기뻐한다. 이제 모든 것이 정상을 되찾은 것만 같다.

전주에 이감온 후, 통방을 통해 각자 향후 정세에 관해 의견 교환이 있었는데, 우리 인혁당 동지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주한미군을 남한에서 철수시키려 하는 카터가 당선돼 미군은 곧 철수할 것이며, 엉터리 재판으로 중형을 받은 우리들도 곧 석방될 것이라는 의견들이다. 그도 그럴 것이 무기징역이나 장기형을 받을 만한 죄를 졌다고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싸가지고 온 보따리도 풀지 않는다 한다. 언제 갑자기 보따리 들고 나오라 할지 모르기 때문이라 한다.

나는 동지들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었다. 모두가 희망적 관측에 의한 낙관론이다. 미국에 대한 견해도 너무나 환상적이다. 때마침 나는 아내가 넣어준 찰스 레이치(Charles A. Reich) 미국 예일대학 교수가 쓴 ‘The Greening of America’라는 책 내용을 소개하였다.

저자는 이 책에서 오늘의 미국 사회는 재래의 폭력혁명과는 다른 비폭력의식 문화혁명을 통하여 미국의 정치적 구조를 급변시킬 것을 예고한다고 역설하면서 “역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거짓 공약을 남발하며 당선되면 그만이다. 대통령 선거란 거짓말 명수들의 경연장이다”라고 비평한 글을 참고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큰 기대를 갖지 말라고 하였다.

그리고 “박정희는 죽을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임을 알고서도 죽였기 때문에 우리를 쉽게 내놓을 리 없다. 그래서 ‘엄정독거, 완전격리’라는 법에도 없는 특별수용지침까지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박정희가 비명에 죽기 전에는 나갈 생각 말고 보따리 풀고 차분히 징역살이 잘 하자”고 권해도 그들은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같이 살면서도 ‘통방토론’하면 나는 심기가 불편할 때가 많았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박정희는 미녀를 옆에 끼고 술 마시다 자기의 심복부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즉사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갇혀 있는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한 소식이었다. 모두가 흥분하고 있는데 교무과 유신패들은 침울하다.

박정희 피살 후, 전두환 신군부 출현은 나에게는 어두운 미래를 예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 동지들은 미국에서 더 이상 군부통치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민주화를 역행하던 신군부 통치는 결국 광주사태를 불러왔다. 후일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명명된 광주사변으로 감옥 안 양심범들에게는 일대 이감소동이 벌어졌다.

10. 대구교도소로 이감

1980년 어느 날, 우리 인혁당은 대구감옥으로 이감되었다. 대구에 있던 인혁당과 민청학련은 대전으로 이감되었다는 것이다. 이태환, 정만진, 이재형, 임구호, 이강철이었다. 이성재, 나경일, 황현승은 광주로 이감되고, 우리는 그곳의 특별사동에 또 수용되었다. 전주의 특별사동과 똑같이 국가보안법위반 장기수들이 수용되어 있다.

보따리를놓고 모두 끌려 나가 머리를 빡빡 깎였다. 항변했지만 소용없다. 갇힌후 처음 있는 일이다. 진짜죄수가된 기분이다. 이튿날교무과로불려 나갔다. 과장은교무를담당한과장 같지 않게 뚝뚝하다. 경직된군인같은인상이다. 직원에게교무과장이왜 저 모양인가물었더니, 대전으로이감 간 민청학련이 강철이과장과언쟁하다과장 책상을뒤엎은사건 후 우리에대해 굳어져있다는설명이다. 나는이강철학생의용맹에대해 흐뭇한만족을느꼈다.

그런데 대구교도소에서는전주교도소와는달리 우리에게 ‘ 사상전향서를 요구하는것이었다. 우리는거부하였다. 전향서 문제에대해서는후술하겠다.

(1) 대구소장 면담

어느날, 나는담 밖에 있는소장실로불려갔다. 큰회전의자에 앉은 소장은 왜소한체구에보는 이에게도인상적으로작은 사람이었다.

소장은나를 응접의자에앉히고대좌하였다. 보기와는달리 소장은조리있고위엄도있으면서인자한인상을풍겼다. 그러면서 첫 질문이 “ 전창일씨는집에서부인과싸운 적이 있습니까? ” 묻기에, 나는의외의 질문에 이상히 생각하면서 “ 간혹있지요 ” 했다. 그랬더니미소지으면서 “ 누가이기십니까? ” 또묻는다. 나는 “ 옳은쪽이 이기지요 ” 대답하면서 “ 왜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 하니그는우리 집사람을잘 알고 있다 하면서이감자명단에 전창일이라는이름이있어 가슴이철썩 내려앉았다한다.

그는 계속 설명하기를자기가법무부교정과장으로있을 때, 집사람이여러 번 찾아와전주교도소수용자처우문제를가지고 자기를괴롭혔다는것이다. 전창일씨입원문제, 영양음식차입문제까지너무나완강해혼났다는이야기를웃어가며하는 것이다. 나도웃었다.

그러면서소장은앞으로종종 불러낼터니잡수시고싶은 음식 대접하겠다며무엇이먹고 싶은가묻는다. 나는같이 온 동료들을 두고 나 혼자 그런 과분한처우를받을 수 없다고했더니, 그럼 인혁당모두 같이 하겠다하여나는 고맙다고인사하고돌아와 동료들에게알렸더니모두들좋아하였다.

그후 우리는한 달에 한 두 번 소장실에불려나가중국음식 대접을후히 받았다. 모두가아내 덕이구나하며 홀로 고맙게생각하였다. 교도관들이전하는바에 의하면소장은, 일제시대서대문형무소에소년 급사로취직하여해방후형무관이되면서고학을계속하여단국대학야간을다녔다. 또대학원에서석사학위까지 딴 사람이며, 행형학책도 쓴 학자라한다. 과연존경받을 만한사람이었다.

(2) 사상전향서 문제

교무과에서는계속 전향서를쓰라고종용한다. 전향서를써야 사면받을수 있고, 또 특별사동에서빠져나와우리들끼리합방하여같이 지내게하겠다는것이다. 동료들은동요하는기색이었다. 주로운동시간에밖에 나와 의논을하곤 했다. 나는끝까지 거부하자했는데 다른 동지들은쓰자는 것이다. 써야내준다면

쓰고 나가 싸우고, 또들어오는한이 있어도나갈 수 있는 수순은 밟자는이야기이다.

아내가다른 가족들을통하여내가 전향서쓰는 것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를듣고 면회 와서 윤보선전 대통령이나함세웅신부가 전향서를쓰란다면서나에게강력히권하는것이었다.

그리고 윤보선 전 대통령께서는전두환의초청으로청와대에 두 번이나들어갔는데, 그때마다 인혁당석방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아내는대구의전재권, 정만진동지 부인과셋이서윤보선씨 집 별채에서공여사의동의를 얻어 일주일동안 석방을위한 금식기도를했다는것이다. 윤보선씨가집사람에게말하기를 " 세상에서내가 전두환씨의초청에응한다고비난하는줄 알면서도 그를 만나는것은 오직 인혁당을석방시키기위함이야. 내가 무엇을그에게서바랄 것이 있겠는가 " 하더라는것이다.

전향서에는 ' 공산주의사상을갖게 된 동기 ' 라는조항과 ' 범죄를 저지른이유 ' 란 조항이있어, 그것이마음에걸리는것이었다. 그것을긍정하고넘어 간다면 인혁당은조작이라여겨온 진실이 훼손되는것이기때문이다.

전향서 쓰기를 종용하는교무과에이런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그 조항을쓰지 않아도좋다는것이다. 그래서우리는이 조항을 안 쓰기로약속을하고 각자 전향서를썼다. 쓴전향서는정보부의 심사에합격해야인정을받는다는것이다. 그런데다른 동료들은다 합격했는데나만은불합격이라는통고다.

교무과에서는합격된사람들은다른 사동으로옮겨 합방하지만 나만은특별사동에남아 있어야한다고한다. 나는좋다고 하면서모두들전방 가라고권했으나, 모두들나를 남겨두고가지 않겠다고하여 다 같이 특별사동에서그냥 지내기로하였다.

교무과는계속 나에게합격할수 있게 쓰라고권유하지만나는 거부하였다. 한달이 지나 그들은나에게한 두 글자만고쳐달라고 하고, 동료들도모두들권하기에나는 서너 자 고쳐줬다. 한두 자라도고쳐야재제출할수 있다는것이다. 불합격된것을 또다시 그대로 제출 못한다 하여 일리있는것같아 그리했던것이다. 이번에는합격이라는것이다. 웃기는일이었다. 불합격된번저 것과 내용에는아무런차이가없었는데말이다.

우리는다른 사동으로옮겨 한 방에 세 사람씩 혼거하였다. ' 엄정독거완전격리 ' 수용지침에해제된것이다. 전과는많이 다른 처우를받게 되었다. 우리는구속된이래 처음으로종이와펜을 가질 수 있는 ' 자유도 ' 가졌다.

운동시간에맑고 높은 늦가을 하늘에 떠가는 흰 구름 속을 헤치며줄지어날아가는기러기떼를쳐다보니문뜩 시상이 떠올라 다음과같이 한시를엮어보기도했다. 이시는 80년대 중반에 월간지『말』에도 실렸고, 일본의한 문예지에도실렸었다.

思 故 鄉

北浮白雲悠然望　　愁雲千里思故鄉
艱難愁恨繁雪鬢　　怨嗟獄事參去便
秋空鴈聲 更悽然　　故鄉消息參來便
有慕血肉皆離散　　生死一書無家問

失鄕一去四十年　　千里悲秋常囚客
去秋鐵窓來寒霜　　切國哀史何時罷
— 全昌一作 (1980年 晩秋 於大邱監獄無期懲役服役中)

고향생각

맑은 하늘에 북쪽으로 떠가는 흰구름을 멍히 쳐다보니
흘러가는 구름 천리 길, 고향생각 아련히 떠오르네.
한맺힌 어려움에 흰 귀밑머리 무성해져,
이 억울한 징역살이 전해다오
가을 하늘 남쪽으로 날아가는 기러기 소리 더욱 더 구슬프구나.
내 고향하늘 거쳐 온 너들이 고향소식이나 전해주려나
내 사랑하는 혈육 이리저리 헤어져 죽었는지 살았는지
편지 한 장 없고
고향 떠나 40년 머나먼 수 천리, 무기수의 슬픈 가을이로다.
이제 가을이 떠난 철창에는 또 다시 찬 서리 오겠구나.
쪼개진 이 나라 비통한 역사는 언제나 끝장 날 것인고!

우리는1982년 3·1절 특사에서무기수는20년으로감형되고, 유기수는석방되었다. 같은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특사로 나머지인혁당사건 연루자모두 8년 8개월만에한많은징역살이에서 풀려났다.

출옥하여맞이한1985년 4월 9일, 고인들의10주기 추모행사를 처음으로공개적으로치르자고준비하였으나동지들의만류로 몇 해 더 늦춰야했다. 지금은천주교 인권위원회의 ‘ 인혁당사건대책위원회’와 ‘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 ’ 공동주최로 해마다 추모행사를치르고있다.

석방된 후, 나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만세를 절규하며 형장의이슬로사라진동지들의유지를받들어 ‘ 전국민주화운동연합(전민련)’과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 운동에참여하여 수 차례 법정투쟁과옥고를치러야했다.

막내딸까지어려운 속에서 어미의 보살핌으로대학을 나와 시집갔다. 사위도학창시절부터민주화와조국통일을위하여싸워온 알려진투사이다. K대학총학생회장으로삼민투위원장, 그리고 서울 미국문화원점거농성사건등으로옥고를치루기도했던 사람이다.

아내는범민련사건으로또 다시 갇혀있는남편, 그리고결혼하여임신한신부를두고 국가보안법불고지죄로또 다시 투옥된 사위의 이중 옥바라지를하는 중에 딸까지 해산하게되면서 일인삼역에지치고또 지쳤다. 피로회복을위해 맞은 잘못된주사약(알부민)으로얻은 병과 몇 해 동안 투병하다2003년 11월 29일 다섯 번째로입원하려던날 한많은생을 마쳤다.

아내가짬을 봐가며 써놓은수기마저누차 계속된가택수색으로 압수당해지금은아내에대한 아무 기록도갖고 있지 않다. 늦게나마졸필의이 글을 사랑하는아내 영전에보낸다.

또 글을 마치면서이 불의의박정희권력형죄악상에항거하다 ‘ 추방이란 수모를당했던진실의사도 오글 목사님과시노

트 신부님에게감사와, 이사건으로평생 불구의몸이 되신 문정현 신부님을비롯한많은 고마운분들에게깊은 감사를올린다.

아! 4월 9일이여

● 강 창 덕

*강창덕은 건국대를 졸업하고 영남일보, 대구매일신문 기자로 일했다. 4월혁명 후 통일운동에 참여, 여러 집회에서 연사로 이름을 날리었다. 5 · 16쿠데타 때 체포되어 3년을 복역하고 유신반대운동에 참여, 인혁당재건위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9년을 복역했다. 현재는 통일연대 고문, 민자통 대구경북회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5년 이 해가 가면 내 나이 80! 여태껏 무엇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가 자문하고자 괴한다. 이제는 정신마저 희미해서 지난 날의 기억마저 잘 할 수 없다. 애써 과거를 회상하며 이 글을 쓴다.

어디엔가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뿐이다.

지나간 30년 세월 해마다 4월이 오면 중앙정보부가 고문 조작한 인혁당재건위 사건에 희생된 님들의 생각 절절하였지만, 올해 4월 9일 30주 기일에서 대문형장에서 이슬처럼 운명하신 서도원, 도예종, 송상진, 하재완, 우홍선, 이수병, 김용원, 여정남 8명의 열사님을 추모하고 회상하는 심정 유달리 가슴 쓰리고 아프게 한다.

비록 사형은 면했다 해도 8년 또는 9년의 옥고를 치루고 출소한 무기수와 유기수 중에서 고문 후유증 등으로 유명을 달리한 이태환(무기), 류진곤(무기), 정만진(20년), 이재형(20년), 조만호(20년), 전재권(15년)님과, 5년형을 받고 감옥에서 옥사(의문사)한 장석구님에 대한 추모의정 또한 유별하다.

그때 피신하여 후에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을 조직하고 항쟁하다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고 옥사한 이재문 열사에 대한 추모의정 또한 간절하다.

님들의 정신 계승에 부족함이 너무도 많다. 유가족에 대한 봉사활동도 미미하고 진상규명 명예회복을 위해 힘써 주신 여러분들의 은혜에 조금도 보답을 못해 항상 죄스럽고 부끄럽다.

조지 오글 목사님, 제임스 시노트 신부님 건강하신지? 이분들은 기도회 나 반체제 집회 같은 모임에서 항상 인혁당 사건은 당국의 고문으로 만든 사건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혔다. 그리하여 결국 한국에서 추방당하셨다.

문정현 신부님을 비롯한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님, 기독교목사님, 불교계 스님, 윤보선 전 대통령님, 공덕귀 여사님, 천주교 인권위원회의 인혁당 대책위와 인권변호사님들의 재심청구 협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고문조작사건 결정, 열사님들을 추모하는 정신계승사업을 해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베푸시는 옥중 동지와 후배 동지들의 물심양면의 희생적 노고. 그 외에도 기록해야 할 수많은 역사적인 사실들 앞에 정중히 고개를 숙인다.

사형수 8명 전원, 무기수 7명 중 5명, 유기수 9명 중 6명, 민청학련 여정남, 남민전 이재문 포함 25명 중 서울 지방 5명을 제외한 20명이 대구, 부산, 경북, 경남 출신들이다.

서도원, 도예종, 송상진, 하재완, 조만호는 민족민주청년동맹(민민청) 위원장, 간사장 그리고 주요 간부들이었고, 우홍선은 통일민주청년동맹(통민청) 위원장이었고, 이수병은 대학생민족통일연맹(학생민통련) 위원장이었고, 여정남, 이재형, 임구호는 경북대학교 학생운동(정사회, 정진회)의 주도적 간부였다.

강창덕, 김한덕, 전창일, 이성재, 이태환, 전재권은 민청당 주요 간부였고, 나경일은 노동운동 간부였다. 정만진은 영남대학교(구 대구대) 4·19 주동 학생이었고, 김종대, 이창복, 황현승, 류진곤은 민주화 청년운동을 했고, 장석구는 대구일보, 민족일보 기자였고, 이재문은 영남일보, 민족일보 기자였다.

대다수가 4·19 전후 혁신정당운동, 민족자주평화통일운동,

노동운동, 민족청년운동, 민주학생운동, 민족언론운동에 몸을 담고 활약한 투사들이다.

그중 이수병, 우홍선, 김용원, 전창일, 김한덕, 이성재, 류진곤, 김종대, 황현승, 이창복, 장석구, 이재문은 서울에서, 서도원, 도예종, 송상진, 하재완, 여정남, 강창덕, 이태환, 나경일, 전재권, 조만호, 정만진, 이재형, 임구흥은 대구에서 활동하였다.

나 자신은 대구 경북에서 60여년간 반일 통일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때문에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이후 기타 사건에 연루되었다.

나 자신의 경력을 간략히 기술하는 것은 많은 동지들의 삶에 대한 증인이 되는 보람을 느끼고 싶어서이다. 양해바라고 싶다.

▲일제시대

나는 두 번 일제 경찰에 구속당했다.

그 첫번째는 1944년 여름 경산경찰서 하양경찰관주재소에 연행되어 지하 땅굴 구류간(약 1평)에 구금되었다. 구속사유는 조선조말기 고종 때 관직에 계시다가 한일합방으로 낙향하신 할아버지, 아버지의 자손이었기에 때때로 어깨 너머로 들었던 을미사변, 3·1운동 등 합방 전후 이야기, 그리고 만주 일대 독립군 무장투쟁, 특히 보천보사건 등 항일투쟁 이야기를 마을 소년들에게 유포시켰다는 것 때문이었다.

두 번째는 1945년 8·15 직전 일본 해군 지원병을 강요하는 경찰 지시를 거부, 잠시 도피했다 하여 경산경찰서에 연행되어 유치장에 구속되었다.

뼈 안 다치는 매(우신매)도 맞아보고, 수일 후에 훈방되었다. 반일감정의 싹이 생긴 것은 수평운동(水平運動), 건국동맹 사건 등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루었던 집안 어르신들의 영향도 많았다.

▲미군정시대

1947년 11월 26일 밤 대구공회당에서의 중앙일보, 세계일보 대구지사 주최 일반 남녀 학생 웅변대회 사건 때 연사로 서 구속되어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었다. 당시 치안재판에서 벌금형을 받고 학교까지 퇴학당했다.

웅변 원고 내용 이유엔에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과 단독선거 실시를 결의하여 분단을 획책한다고 비방하고, 통일정부 통일국가 건설을 주장한 것이 연합국 비방, 미군정포고령 위반행위라고 하였다.

그날 밤 대회가 진행중에 경북 학련 소속 학생들이 연단을 테러하여 수라장이 되었고, 경찰출동으로 웅변대회는 중도에 무산되었다.

▲이승만 독재시대

1952년 2월 5일 경북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반이승만계 서상일(徐相日) 후보와 친 이승만계 배은희(裵恩希) 후보가 다툴 때 서상일 후보의 비서로 핵심적 선거활동을 했다. 이때 북진무력통일 반대, 남북협상, 평화통일을 주장한다고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남대구경찰서에 구속되었다. 형무소 수감중 서상일 후보가 탄압으로 낙선된 후 기소유예로 석방되었다.

1956년 5월 15일 정부통령선거 때는 평화통일운동을위해 중고등학교교직을사임하고진보당대통령후보인조봉암선생의 경산군선거사무장을맡아 경산군과조직이없는 청도군, 영천군까지평화통일운동의일환으로선거운동을하였다.

▲제2공화국 장면정권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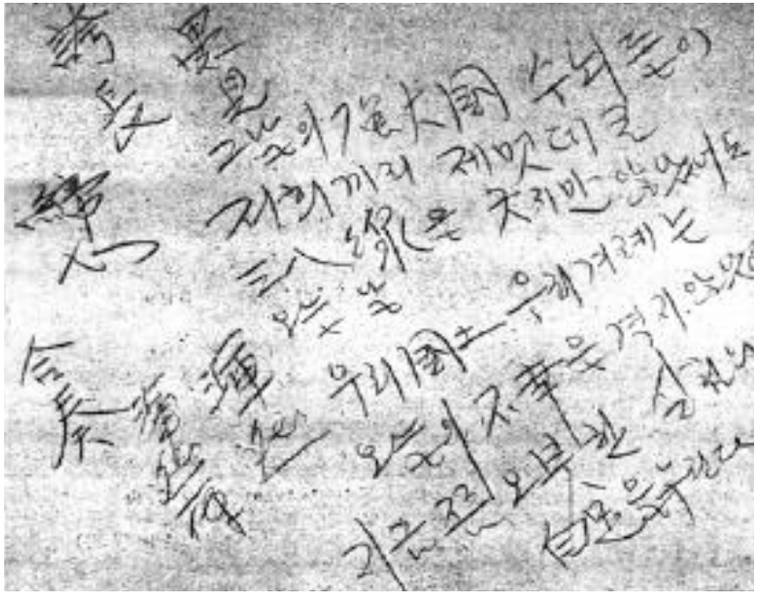
1961년 4월 2일 대구 시내에서결행한2대 악법 반대 데모(반공법, 데모규제법제정 반대)에참가하여구속된후 기소유예로 출소하였다. 이데모는당시 대구 경북의모든 민주운동단체의 공동투쟁이었다.

▲박정희 군사독재 시대

첫 번째는1961년 5월 10일 대구시내만경관앞 광장에서개최된 사회당경북도당주최 ‘ 남북학생회담촉진 시민궐기대회 ’에 연사(사회당도당 조직위원장)로나가궐기사를하였는데, 5 · 16 군사혁명재판에서소급법으로7년 징역에3년 복역하였다.

두 번째는1974년 5월 6일 긴급조치위반혐의로남대구경찰서에 구속되었다. 군법회의재판에서중앙정보부가고문 조작한 민청학련배후로지목된인혁당재건위사건에연루되어무기징역을 받았고, 8년8개월간복역하였다.

반일 통일민주화운동에7차 투옥 약 12년간 복역한셈이지만, 앞으로남은여생도반외세자주평화통일, 반독재민주화, 민중생존권확보운동에몸을 던지고싶다.



▲ 상소이유서뒷면에남긴 고 하재완선생의친필필적

왜 이렇게살아온60년 세월의반일 통일민주화운동의보잘 것없는역사의기록을적느냐? 다른깊은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하고싶다.

그것은 ‘ 인혁당재건위사건 ’는 중앙정보부의고문 조작사건에 수많은나의 동지들이사법살인을당하고옥고를치를 때 함께 고난을겪었고, 오늘날산 증인의한 사람이되어 억울한사건을 일부라도규명하는데도움이될까 하여 나 자신의운동경험부터 밝혀둘필요가있다고느꼈기때문이다.

서도원(청구대학), 도예종(대구대학), 송상진(초등학교) 등은 교직에있으면서2 · 28 및4 · 19 학생민주항쟁때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행사하여교분이싹텄고, 4 ·19후 일본경제시찰단입국

반대운동때 영남일보사에서있은 좌담회에서도예종(민민청측 대표)과나(사회당측대표)는일본의경제침략의서곡이라는견해일치로유대가깊어졌다.

대구공회당앞 광장에서있었던 일본경제시찰단입국반대 집회(공투위주최)에연사로서도원(민민청대표)과함께 하였을 때 연설 내용도별 차이가없어서한층 친숙해졌다.

달성공원의3·1절 통일대집회및 시가행진데모할때 서울 방면의동지 이외는전원 참여하였고, 그후4·2데모등 각종 집회 및 시위에함께 참여하였으나, 5 16쿠데타로대부분구속되어 합법운동은잠복하였다.

대구형무소에서헌병, 보안사요원의감시를받으며100여 명이약 2개월동안수감생활을하였는데, 그때혁신정당, 민자통 등 통일운동단체, 교원노조, 피학살자유족회, 청년단체, 노동단체 등 각 부문단체의간부급이상호 친목교류를공고히하였다. 당시 이들을ABC 등급으로분류하여C급부터B급까지순서적으로 석방하고, A급은서울 혁명검찰부로이송되어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그러한과정 속에서민민청서도원(5년), 교원노조김문심(무기), 이목(10년) 등, 피학살자유족회이원식(사형에서무기), 이복녕(10년), 사회당류한종(7년), 강대희(7년), 강창덕(7년), 신대영(10년) 등, 통일단체민자통은안경근(7년), 안민생(10년), 김성달(10년) 등 그외 다수 사람이중형을받고 최하 3년부터5년, 10년 이상 복역하여쿠데타의혹독한피해를당했다.

이들은 옥중에서서로의 운동관점을정리하고, 출소후에도 별 이탈없이다양한서클 형태로각 부문운동에참여하였다.

나는 서도원, 도예종, 송상진, 하재완, 이재문, 나경일, 정만진, 백정호, 전재권, 조만호, 이태환, 이재형, 임구호, 여정남, 전창일, 김한덕, 우홍선, 이성재, 이수병, 장석구(김종대, 이창복, 황현승, 김용원제외) 등21명을 1950년대 후반부터알고 있었다.

지역 언론계에서기자로 일할 때 강창덕(매일신문), 이재문(영남일보), 장석구(대구일보)재로 교류하게되었다.

대통령 단일후보 운동

1967년 5월 3일 실시된제 6대 대통령선거를앞두고그해 2월 대구에서 ‘반독재재야민주세력단일후보추진위원회’가결성되었다. 결성장소는군방각이었고, 위원장류시벽, 부위원장조용만, 대변인강창덕, 섭외담당이재문, 운영위원류한종, 서도원, 도예종, 송상진, 하재완, 이태환, 전재권, 정만진, 조만호, 나경일, 안민생, 박삼세, 김호일, 도혁택, 김종도, 권오봉, 이복녕약 20명이 참여하여조직체계를구성하였다.

물심 양면으로지원하면서친목단결하였다. 이운동은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을타도하고민주화를쟁취하기위하여신민당 경북도당기타 진보적정치세력과연합하여전선체형태로구성되었고, 당시신민당의윤보선후보로단일화를성취하였다.

마지막에는대중당서민호후보까지사퇴하였다. 이운동은 대구에서출발, 중앙무대에서완결되었다.

3선개헌 반대투쟁

1969년 8월 21일 대구시내현대예식장에서3선개헌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경북도지부결성대회에재야세력에서연합전선 형태로참여하였는데, 류한종대표를선두로강창덕, 이재문, 정만진, 백정호, 서도원, 도예종, 송상진, 하재완, 이태환, 나경일 30여 명이 참여하였다.

동년8월 30일 대구시내수성천변에서개최한 ‘ 3선개헌반대집회에 유진오, 박기출, 장준하등이 연사로참여하였고, 가두시위에모두 참가하고, 그후수 차례 시내 반월당네거리신민당 당사앞부근도로에서강행한3선개헌반대시위에빠짐없이참가하였다.

민주수호국민협의회 운동

1971년 4월 27일에 실시될제 7대 대통령선거를앞두고, 박정희 군사독재를종식시키고민주화촉진의방법으로김대중신민당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는선거전략밑에서몇 달 전부터 민주수호국민협의회운동을준비하였다.

그 당시 재야진영의류한종대표와서도원, 도예종, 강창덕, 이재문, 나경일, 송상진, 하재완, 정만진, 전재권, 이태환 수 차례 범어동 ‘ 기요고식당에’서 논의한바 있으며, 시내동성로 대구백화점7층 717호에 민주수호경북협의회사무실을개설하고 민주화운동의거점으로삼았다. 그리고결의문도작성하고조직체계도만들고운동의동력확보에치중하여추진해나갔다.

그때 경북대학생운동의지도급학생인 이재형, 임구호,여정남, 정화영등 정진회, 정사회회원들과긴밀한관계를맺었다.

1971년 4월 22일 현대예식장에서결성식을거행하고결의문 채택, 중앙본부대표의 연설이 있었다. 천관우대표는<언론의자유>, 김재준대표는<학원의자유>가연제였다. 결의문은,

1. 민주주의를유린하는일체의독재에대결 투쟁한다.
2. 민주공명선거를위해 총력을경주한다.
3. 민주기반강화를위한 민중의역량을개발 결집하는선봉이 될 것을 다짐한다.

그리고간부진인선도끝냈다.

대표에최해청(전청구대학장), 박삼세(전경북대교수, 6 · 3 투쟁 때 해직), 류한종(재야대표)이었고, 운영위원으로는도(노동운동가), 이백희(전대구시장), 김순택(인권변호사), 강창덕(전대구매일신문정치부기자), 김호일(전대구일보편집국장), 서도원(전 청구대강사), 도예종(전대구대강사), 송상진(전초등 교사), 하재완(전양조장 경영), 이재형(전경북대학생운동), 백정호(학원강사), 우종수(한의원), 나경일(전재일모직노조운동), 권오봉(노동운동), 이태환(전수리조합직원), 이재문(전민족일보 기자), 정만진(대구대 · 19학생운동주도), 도혁택(출판사), 류근삼(청년운동), 임구호(경북대학생운동), 여정남(경북대학생운동) 등이 참여했다.

지도위원으로류한종, 최해청, 박삼세, 김순택, 주병환(전국회의원, 신민당도지부장), 실무진으로총무위원장강창덕, 선전겸 대변인이재문, 청년위원장정만진이었다.

1971년 4월 26일에는결의문2항 ‘ 민주공명선거를위해 총력을 경주한다를 실천하기위해 ‘ 민주수호경북협의회공명선거감시단을 조직하여부정선거를감시하기로하였다.

신민당 경북도지부와협의하여경산군각 투표소에참관인을 배치하기로하였다. 그리하여대형버스1대에 45명의 회원이 경산 신민당에도착하여신민당군당과협의, 군내1읍 10개 면에 회원들을배치하고다음날(27일, 선거일) 아침투표시간전에 투표소에도착, 투표마감시간까지부정투표방지를위해 과감한 활동을하였다.

몇몇 투표소에서는공화당측깡패들과싸우기도하였고, 투표 당일 각 투표소순찰임무는이재문선전 및 대변인이담당하였다.

기억나는대로적으면 도예종(투표소명미상), 강창덕(하양 제1투표소), 나경일(고산면 투표소), 이태환(압량면방면), 송상진(와촌면방면), 하재완(자인면방면), 전재권(안심면방면), 정만진(남천면방면), 서도원(진량면방면), 백정호(와촌면어느 골짝 투표소), 권오봉(하양면 투표소) 등등이다.

30여개 투표소를모두 기억할수는 없다. 당시서류는위수령 발동후사무실을폐쇄하여강창덕총무위원장이보관중긴급조치사건 때 가택수색을당하면서압수되었다.

지하신문「참소리」

1974년 2월 이재문, 나경일, 강창덕, 백정호유신반대를위한 선전물을만들기로결의하고제호를「참소리로, 논단은「진실로」로 하였다. 기사는주로 각 대학의 유신반대데모 소식과 선언문등을 실었다. 논설은이재문, 강창덕,서도원, 도예종등이 담당하였다.

인쇄는등사판이었고, 배포는대구시내중앙통을경계로동쪽은 나경일, 서쪽은강창덕이맡아 새벽 신문배달시간대를이용하고, 지문방지를위해 고무장갑을끼었다.

초판 준비, 완료, 실행직전에정보 누설로유보중민청학련사건이발생하여모두 구속당해중단되었다.

1974년 1월 경 이재문, 강창덕, 나경일은유신반대전선조직을 결의하고, 이재문은학계, 강창덕은언론계, 야당정치인, 나경일은노동계를대상으로활동 분야를정하였다.

강창덕과접촉한야당인사와언론계인사중에보통군법회의 법정에증인으로출두한인사는김인갑(신민당경북도당부위원장), 김재홍(신민당대구남구당부위원장), 홍종흠(매일신문기자) 등이다.

서도원, 도예종, 송상진, 하재완은 지식인층을대상으로 유신반대사업을전개하고있었고, 그외의 많은 인사들이암암리에 유신반대사업을감행하여수사당국의감시와주목의대상이 되었다.

그러한 대구지방의 정세는 박정희 군사독재세력에게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저항세력의 본산이라고 지목당해 증오와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신반대투쟁 전선에서 고문 조작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가장 큰 희생을 당한 숨겨져 있는 역사적 사유라고 하겠다.

아, 4월 9일이여
가신 님들의 명복을 빌면서

영원한 님, 그대의 길을 따라

● 정 화 영

*정화영은 경북 예천에서 출생하여 대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북대 정외과에 입학하였다. 68년 경북대 이념서클인 정사회에 가입한 후 3선개헌 반대투쟁으로 제적되었다. 1973년 복교한 후 73년 11·5 경북대 반유신투쟁을 주도하였으며,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되어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재구속되어 6년간 복역하였다.

고속버스는 김천을 지나 추풍령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75년 4월 9일 오후 4시 경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 나왔다. 인혁당 선배들의 사형이 집행되었다는 것이다. 서도원, 도예종,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여정남 이름이 나의 귓전을 때렸다. 나는 옆에 같이 타고 가던 임규영에게 동행하고 있는 경찰이 안들리게 떨리는 목소리로 사형집행 뉴스를 전했다.

나는 숨을 죽였다. 가슴이 꽉 막혔다. 온몸이 떨렸다. 머리털이 뻗쳤다. 뼈가 으스러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지금도 사형당한 인혁당 선배들을 생각하면 그 때의 느낌이 되살아나서 소름이 끼치고 머리털이 쭈뼛 서고 서러워 눈물이 난다.

삼선개헌 반대투쟁

1967년 내가 경북대에 입학했던 그 해는 6·8부정선거 다시하라는 학생 데모가 전국을 뒤흔들고 있었다. 나는 그 해 6·8부정선거규탄 시위에 열심히 참여했다. 교내 시위에 스크럼을 짜고 앞장서 싸웠다.

1968년 나는 경북대 토론서클인 정사회(正思會)에 참여하게 되었다. 정사회 활동을 통해 사회를 이해하고 비판하게 되었다. 각종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때로는 졸업한 선배들과 함께 한잔하면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갔다.

1969년 박정희는 연초부터 개헌 논의를 흘리기 시작했다. 3선개헌을 하겠다는 것이 6월 경 확인되었다. 이렇게 되자 3선개헌 반대투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경북대는 정사회가 중심이 되고 총학생회가 전면에 나서 싸웠다. 진원규 총학생회장을 중심으로 열성적으로 투쟁했다. 7월 투쟁으로 진원규 총학생회장, 유정선 정사회 회장이 제적되고, 나는 자퇴가 권고되었다. 그 뒤 제적되었다. 홍윤순, 임구호 등 많은 학생이 무기정학, 유기정학을 당했다.

1969년 여름방학 중에 2학기 투쟁을 위해 여러 방향으로 준비를 해갔다. 그 당시 졸업한 문재현 선배도 여정남 선배와 같이 뒤에서 열심히 도왔다. 8월 말 나는 여정남 선배와 같이 진원규 총학생회장이 피신해 있는 동촌비행장 뒤편 마을에 갔다. 피신해 있는 집에서 꽁보리밥을 진원규 회장과 함께 먹었다. 셋이서 마을 앞 저수지에 가서 수영을 하였다. 진원규 회장 등의 때를 밀었더니 기름기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뽀송뽀송 할 뿐이었다. 피신하면서 보리밥만 먹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안쓰러웠다.

그 당시 경북대 3선개헌 반대투쟁은 전국에서 도유별났다. 박정희의 고향에서 3선개헌을 더욱 더 반대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하였다. 늘 2천여 명의 학생들이 격렬하게 3선개헌 반대투쟁에 적극 참가하였다. 때로는 학교 운동장에 모여 좌우로 갈라 밀쳐 싸우는 연습도 하였다. 각목으로 연습도 하였다. 여학생은 행주치마를 두르고 와서 돌을 나르는 연습을 하였다. 가두시위 때는 여학생이 날라다 주는 돌로 투석전을 벌였다.

9월 나는 입대영장을 받지 않고 강제입영하게 되었다. 3선개헌 반대투쟁으로 정사회는 해체되었다. 그 뒤 정진회로 거듭 태어났다. 군대에서 휴가나 왔을 때면 나는 여정남 선배와 임구호 등

과 같이 어울려 지냈다.

11·5 유신반대투쟁

72년 8월 제대를 하고 다시 복학하려고 학교에 갔으나 복학이 좀처럼 되지 않았다. 곧 10월 유신 쿠데타가 일어나 학교는 완전히 폐쇄되었다. 나는 당시 군대에서 결핵을 얻어 나왔다. 중등증 초기였다. 폐의 5분의 2가 동공이 되어 있었다. 각혈이 가끔씩 나왔다. 고향 예천으로 돌아가 요양하기로 하였다.

73년 봄 복학이 결정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 쿠데타가 성공했다고 자신한 모양이었다. 강압적 유신헌법은 사회를 숨죽이게 했다. 이제 학생운동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다고 큰소리쳤다. 나는 복학 후 정진회의 후신인 한국풍토연구회 모임이나 토론회에 참여하였다. 회원으로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선배로서 후배들과 어울려 토론도 하고 관계도 맺었다.

임규영, 황철식, 이광호 등 후배들과 관계를 가졌다. 73년 봄은 적막강산이었다. 민주주의를 말살한 유신헌법이 기본적인 간의 권리를 억누르는 것을 알지만 감히 누가 나설 수 있는 엄두를 못 내었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다.

73년 9월 말 추석이었다. 나는 고향 예천에서 소식을 들었다. 10월 2일 서울대에서 학생 데모가 있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라는 것이었다.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구나 생각했다.

대구로 돌아와 곧 임규영을 만났다. 서울대 시위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도 반유신 투쟁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고 의사타진을 하였다. 임규영은 동의했다. 임규영, 황철식 등과 만나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임구호를 만나 진행되어 가는 얘기도 하였다. 여정남 선배를 만나 여러 가지로 상의하였다. 임구호와 함께 피신할 수 있는 곳도 다녀왔다. 경산 하양에 있는 친구의 집이었다. 그 친구는 사과밭을 하고 있었다.

10월 하순 경 우리는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전력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싸움을 여러 차례 하기로 전술을 세웠다. D-day는 10월 30일. 1차 투쟁은 담력과 결단력이 있는 강기룡을 중심으로 하기로 했다. 이강철을 만나 지원금을 얻어 쓰기도 했다. 당시 이강철은 대구백화점 9층에서 큰 탁구장을 운영하고 있어 여유가 있었다.

10월 30일 1차 투쟁은 경험부족과 여건의 미성숙, 강압적 현실 등으로 기대했던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우리는 다시 회합하여 1차 투쟁의 어려움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시 준비하기로 했다. 유신 하의 강압적 현실에 선소규모 투쟁으로는 돌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몇 선으로 정해 투쟁하려던 방식을 폐기했다.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내가 전면에서 서 책임지기로 했다. 여정남 선배와 만나 합의했다. 보통 데모는 오후 2시에 하는 것이 상례였다. 우리는 적의 허를 찌르기 위해 월요일로 결정했다. 시간도 오전 10시. 73년 11월 5일.

나는 준비에 바빴다. 대구 서문시장에 가서 등사기를 샀다. 학교 주위에서 사지 않았다. 돈은 사촌에게 빌렸다. 여정남 선배

로부터 「반독재민주구국선언문」을 넘겨받았다. 이 선언문은 서도원 선생이 작성한 것이었다. 나는 황철식에게 등사할 장소를 물색하라고 했다. 황철식은 반야월에 있는 친구 방을 이틀간 빌린다고 했다. 글씨를 쓸 사람을 강동균으로 정했다. 강동균은 한국풍토연구회 회원으로서 글씨체가 좋다고 하였다. 강동균은 대구 한일극장 뒷골목에서 어머니가 장사를 하는데 한풍회 회원이랑 여러 번 같이 가본 적도 있고, 강동균도 잘 알아서 같이 하기로 하였다. 강동균, 황철식, 나 셋이서 같이 반야월에 갔다. 강동균이 ‘ 가리방을 긁었다. 글씨가 또렷하고 글자체가 좋았다. 셋이서 등사 잉크를 손에 묻혀가며 2천 장을 등사했다.

시위에 사용할 핸드마이크를 구하기 위해 시내 한일극장 옆 전파사에 갔다. 마이크를 빌리는데 보증을 세우라는 것이었다. 그 당시만 해도 전화가 별로 없었다. 유정선집에 전화를 했다. 보증을 선 것이다. 나는 11월 5일 투쟁계획을 유정선에 전했다. 또 이강철에게도 거사 시간과 일정을 소상히 알려주었다. 이강철은 공대 신유균과 함께 참여하여 11월 5일 거사를 성공할 수 있게 하였으나, 이강철, 신유균, 최문수, 강기룡 함께 구속되어 고초를 겪었다.

11월 5일, 드디어 그 날이 왔다. 아침 일찍 등사된 「반독재민주구국선언문」을 나눠가지고 약속장소로 갔다. 엄혹한 유신 치하의 폭압적 상황을 부수기 위해 나는 하나의 전술을 구사하기로 했다. 유신체제를 긍정적 논조로 다루어 학생들로부터 질타의 대상이었던 경북대학교 학보사의 학보보급소를 불지르기로 했다. 보급소는 데모 장소와 가까운 경북대 로타리에 있었다. 나는 휘발유를 사서 한풍회 회원에게 주면서 로타리 옆 학생회관 숲에서 기다리라고 하였다.

1교시가 끝났다. 10시다. 교양학부를 비롯하여 도서관, 각단과대학으로 흩어져 반독재민주구국선언문을 배포하였다. 로타리로 모이자고 외쳤다. 유신헌법 이후 강압통치로 시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시위에 대한 두려움과 박정희의 폭압에 대한 공포감이 사회를 휘감고 있을 때였다. 어용교수들에게 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데모를 저지하느라고 뛰어다녔다. 교수들은 자기 과 학생이 데모에 참여 못하게 막느라고 야단법석이었다.

나는 먼저 경북대 로타리 버드나무 아래 있던 학보보급소에 휘발유를 뿌렸다. 불길은 하늘을 뚫고 타올랐다. 타타탁탁. 수양버들 타는 소리가 로타리를 진동했다. 검은 연기가 솟았다. 불꽃이 치솟았다. 학교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흥분해서 모여들기 시작했다. 나는 반독재민주구국선언문을 큰 소리로 읽었다. 그 순간 “ 정화영, 나 또 데모하나! ” 교수들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스크럼을 짰다. 후문을 향해 도청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유신헌법 철폐하고 민주헌법 제정하라! 중앙정보부를 해체하라! 우리의 구호가 학내를 진동했다. 시위행진이 진행될수록 시위대는 늘어갔다. 어용교수들은 데모를 막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이날 나는 시위를 성공시키기 위해, 아니 성공시켜야 하기 때문에 온 힘을 다 썼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녔다. 교수와 싸우랴 진두지휘하랴 동분서주했다. 건장한 교수들이 나와 시위대 앞을 막으려고 했다.

나는 논개가 적장을 껴안듯 교수를 꽉 껴안았다. 그리고 3m 아래 도랑으로 함께 떨어지기로 하고 밀어부쳤다. 그렇게 할 때마다 교수들은 다치지 않으려고 피해 나갔다. 대여섯 명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나니 교수들이 물러서기 시작했다. 앞에 나서서 막는 교수가 없어졌다. 따라만 오고 있었다. 성공, 성공이었다.

우리는 구호를 외치며 전진했다. 가두시위를 시작했다. 경북도청 앞 도청교까지 나아갔다. 도청교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이 이제야 알고 출동한 것이다. "유신헌법 철폐하라!" 구호를 외쳤다. 도청교 앞 시민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구경했다.

"정화영 잡아라!" 경찰이 외쳤다. 경찰이 내가 있는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전진할 수가 없었다.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순간 퇴로를 생각했으나 갈 길이 없었다. 마침 택시가 지나가고 있었다. 택시를 세워 급히 탔다. 택시기사는 나를 태우고 달렸다. 경찰은 차를 타고 택시를 따라오고 있었다. 경적을 울리면서 따라왔다. 경대교를 지나 방천 둑으로 달렸다.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생각한 나는 택시기사에게 급해서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며 미안하다고 했다. 택시기사가 나를 내려줬다. 고마운 택시기사.

나는 방천 둑을 뛰어 내렸다. 수성천을 건넜다. 수성천 물이 무릎 위까지 차왔다. 강물을 건너니 숨이 몹시 가빴다. 결핵을 앓고 있어서 더욱 숨이 찼다. 강물을 다 건넌 뒤 힐끗 돌아보았다. 나를 따라오는 형사는 물 한 가운데 있었다. 걱정 없다고 생각했다. 잡힐 것 같지 않았다. 방천둑을 올라 골목으로 사라졌다. 이 골목 저 골목 계속 꺾어 가며 빠른 걸음으로 달아났다. 바지는 반이 물에 젖어 있고 신발에는 물이 가득하였다. 영신고등학교 옆에 가서 신발의 물을 털어 신고 골목으로 골목으로 만 갔다.

수성들 황금동 뒷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옷과 신발이 젖어 있어서 갈 수가 없었다. 양말, 신발, 옷을 말린 뒤 피신처로 갔다. 하양 사과밭에서 한 달 반 동안 사과 꼭지를 따면서 보냈다. 나는 맛있는 사과 선택법을 배웠다. 사과밭 주인도 맛있는 사과만 먹는다.

73년 11월, 12월 임구호가 하양을 몇 번 다녀갔다. 12월 말경 임구호가 안전하다고 하여 학교로 돌아왔다. 73년 12월 말 경, 11 · 5 투쟁 대열에 참여했던 선후배가 함께 송년모임을 가졌다. 지난 일을 얘기하며 74년 투쟁을 준비하기로 했다.

11 · 5 반유신투쟁은 유신쿠데타 이후 지방에서 가두시위를 전국적으로 처음 한 일이었다. 「대구매일신문」과 「동아일보」에 기사화된 것도 처음이었다. 11월 5일 경북대의 반유신투쟁이 전국 대학 데모의 도화선이 되었다. 여정남 선배는 내가 피신한 곳을 몰라 많이 찾았던 모양이었다. 피신한 곳은 임구호만 알고 있었다.

긴급조치시대

서도원, 하재완 선생 등 소위 인혁계 선생들을 나는 임구호와 함께 대구백화점 신관 7층에서 자주 만났다. 민주수호경북협의회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다. 선생들과 식사도 같이 하고 함께 저녁에 술도 마셨다. 이재문 선생도 계셨고, 이재문 선생 부인도 같이 할 때가 있었다. 부인은 여걸이셨다. 임구호와 함께 서도원 선생이 침술하시던 한약방에도 같이 가곤 했다. 서도원 선생은 신경통 침술 치료에 일가견이 있는 무허가 한의사였다.

74년 1월 초, 나는 여정남선배와함께 성당못뒤 하재완선생 댁으로갔다. 하재완선생은사모님과딸이 여럿 있었다. 그 당시 막내로사내아이가있었는데고추를내놓고있었다. 집에서 메추리를사육하고계셨다. 하선생은나에게11월 5일 투쟁을잘 했다고 격려해주셨다. 한잔하라고메추리서너 마리를정성들여 잡아 주셨다. 여정남선배와나는 이강철을만나 이강철형님이 경영하던동산기독병원아래 음식점으로가서 메추리를구워 맛있게한잔 하였다.

여정남선배는서울로간다고했다. 서울가서 일본어학원을 다닌다고했다. 나는임규영, 황철식과만나 3월투쟁을준비하기로 했다. 그 때 유진숙이라는여학생이사범대에서열심히한다고 거론됐다. 73년12월투쟁에서눈에 띄는 역할을많이 했다고 하였다. 굉장히열성적이고역량이 있다고 했다. 유진숙은사범대학 학생회여학생부장이었다.

임규영과황철식은유진숙을형이 만나서우리 쪽으로오도록 설득해달라고하였다. 우리쪽으로오도록설득하기가만만찮다고하였다. 황철식은유진숙에대해 소상히얘기해줬다. 나는 유진숙을그녀의집이 있는 남문시장대도극장경북여고주위에서 자주 만났다. 처음에는인간적인문제부터얘기를 시작한 것같다. 우리의신뢰가깊어가는과정마다하나씩하나씩토론을 했다. 중앙정보부가김대중을일본에서강제로 납치해온폭압성에 대해 토론했다.

74년 1월 긴급조치1호가 발동되었다. 개헌청원서명운동도 전개되었다. 긴급조치위반으로구속되는민주인사가속출했다.

분위기가험악해져갔다. 나는유진숙과다방에서, 빵집에서, 길을 걸으면서유신헌법의폭압성에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코가 오똑하고날렵한 유진숙은의외로 사물에 대한 인식이 빨랐다. 유신헌법반대투쟁에적극성을띠게 되었다. 나는만족했다. 대단히 열성적이라고. 여학생문제는유진숙과상의하기로했다.

유진숙은효성여대총학생회간부인 한상옥을소개해주었다. 유진숙, 한상옥, 나셋이서만나 인사를나누었다. 한상옥은 효성여대기숙사에있었다. 한상옥은기숙사전화번호를나에게 알려줬다. 한상옥은차분하고세련된여학생이었다. 효성여대근처 수성못주위를거닐면서여러 가지 얘기를나누었다.

교양학부에서열성적이었던한풍회 회원 정영순도내가 만나기로되었다. 정영순은능력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나는정영순에게전화를하여 만났다. 시내에서, 동촌에서만나 많은 대화를 나눴다. 유신반대투쟁에나설 것을 설득했으나잘 따라오지 않았다. 유신반대투쟁이란자기를 버리는것이다. 엄혹한상황에서 자기를버리고대의를따르는것이 쉽겠는가!

당시는 앞으로의투쟁을 놓고 여러 가지 견해가 나타났다. 탄압이 엄혹하니후퇴해야한다고 하는 주장도 있었고, 전국이 동시에 다발적으로투쟁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나는당시 학생으로서당사자였다. 싸움이라는것은, 폭압적권력에 대한 싸움은싸우면서깨지고, 깨지면서조직이확대 발전해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조직화된대중조직이있다든가, 전위조직이있어 전국적공감대가확실하다면전국적동시투쟁도가능할것이다, 그러나조직이미약한단계에선가능한것부터한 단계 한 단계

싸워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이 문제로 임구호와의 견의차이가 있었다. 현실인식에 대한 차이 등 이러한 상황이 결국 여정남 선배와 이재문 선배의 격돌을 불러왔다. 여정남 선배가 목침으로 이재문 선생을 쳐서 이마가 깨졌었다. 이재문 선생 염소목장에서의 일이었다. 여정남 선배는 인혁당 선배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듣게 됐다. 견해의 차이에 대한 논쟁은 좋지만 폭력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여정남

그는 경북대 투쟁의 선봉이었다. 대부였다. 후리후리한 키(184㎝), 빛나는 부리부리한 눈, 활기찬 발걸음, 힘있는 목소리, 불굴의 열정, 그가 가는 곳엔 늘 후배가 함께 했다. 일이 벌어지면 끊임없이 돌진해 나가는, 그리고 차곡차곡 챙겨가는 투쟁의 선봉장이었다. 그의 부친은 태고종의 대처승이었다. 처음에 논향촌동에 절이 있었다. 통인사(通印寺)였다. 그 절을 수성못 입구로 옮기고 신축하였다. 나를 비롯한 후배들은 통인사에 드나들며 초하루 보름에 제를 올리면 국수를 얻어먹곤 했다.

아버지는 보통 키의 승려이셨고, 어머니는 코가 오똑하고 얌전하고 착한 분이셨다. 형님 두 분과 누님, 남동생 둘이 있었다. 바로 밑 동생이 월남전에 갔다 와서 성격이 달라졌다고 걱정하였다. 월남 갔다 온 동생이 분신을 하였었다. 여정남도 불을 끄다가 화상을 입었다. 그 동생은 경북대 의대 병원에서 치료하여 겨우 소생하게 되었다. 막내동생이 문제라고 걱정했다. 사고뭉치라고 했다. 분신을 기도했던 동생은 그 뒤 승려가 되었다. 화상 입은 얼굴과 손은 말이 아니었다.

여정남은 64년 한일회담 반대투쟁으로 제적되어 군대에 갔다 왔다. 69년 3선개헌 반대 투쟁 때 경북대 투쟁을 뒤에서 지휘했다. 71년 4월 정진회 반공법 사건으로 김성희, 이현세, 정만기, 정욱표, 여석동과 함께 옥고를 치렀다. 월남파병을 용병이라고 선언문에 쓴 것이 반공법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72년 12월 임구호, 임규영, 이한용과 함께 유신쿠데타 후 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되었었다.

여정남은 수영을 잘했다. 후배들과 수영장에 가면 여정남 대후배가 되어 물에 잡아넣기를 하면 우리가 늘 딸렸었다. 내가 결핵 걸린 것을 안 뒤로부터는 나에게는 술을 권하지 않으면서 자꾸 안주만 먹으라고 닦달을 했다. 운동자금이 모자라면 자기 집 절에 있는 초를 내다 팔아서 보태주곤 했다. 내 인생에서 여정남은 잊을 수 없다. 나는 여정남을 그리워한다.

그리운 님

그대
그리운
그리운 님아
목이 길어서 그리운 님아

예쁜 눈
우뚝한 코
훨친한 키
늘씬한 몸매

그대는 나의 사랑
나의 천사

그대가 간 가시밭길
천길만길 낭떠러지
빙글빙글 돌다 다시 떨어져도
따라가고 싶은 사랑의 길

그대는 그대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그대는 진달래
온 산천에 흐드러지게 피어나

고운님 맞이하고

그대는 먹구름
비가 되어 산천초목을 적셔주고

그대는 태풍
이 세상의 더러운 것을 말끔히 날려 보내고

그리하여
그대는 눈이 되어
세상을 하얗게 덮어주고

우리 머무르는 곳 진흙탕 속일지라도
그대의 사랑 받고
그대의 정성 받고
그대의 꿈을 받아
하얀 초가삼간을 짓고 싶어라.

아 사랑하는 님
나의 영원한 님

영원
영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74년 1월 8일 대통령긴급조치1호가 발동되었다. 개헌청원서명운동저지를위한발작의신호탄이었다. 여정남선배가서울을 다녀온뒤 서울과연락선을갖기로하였다는얘기와서울에서

사람이온다는얘기를들었다.

74년 2월 초 서울대에서유인태, 김재근, 전홍표가와서 함께 달성군강창에갔다. 그날저녁 민물매운탕을먹으면서반유신 투쟁에연대하기로했다. 여정남, 이강철, 정화영, 임규영, 황철식과함께1박했다. 특히국가보안법문제가있으니전국적명칭은 쓰지 않기로하였다. 각대학마다자체의명칭을쓰기로하였다. 박정희는전국적연대 문제에대해 국가보안법을적용하여 가혹한탄압을했기 때문에그것이우려되었던것이다. 김재근은 대구 출신으로서울대상대 경제학과4학년이었다. 형님이경찰 고위직에있다고하였다.

달성군강창 모임은전국적연결망의시작이었다. 서울대가 서울 · 강원 · 충청등 중부지역을맡고, 경북대가영남지역을, 전남대가 호남지역을맡는 역할 분담 얘기가 진행됐다. 연락선은 서울대 · 경북대 · 전남대가대전에서만나 정보를교환하기로하였다. 강창은금호강이대구를거쳐 내려오는지점으로곧 낙동강과 접하게되는 곳이다. 강창나룻터의물은 오염되어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그더러운물에서도강태공은붕어를낚아 올리고 있었다.

강창모임 후 여정남은대구에는거의 없었다. 혹시내려오면 이강철과셋이 만나거나, 임규영과셋이 만나곤 했다. 이강철은 그해 졸업했기때문에학내 몫은 대충 내 책임 하에 전개되었다.

74년 2월 말 할아버지가돌아가셨다. 나는부산대 김재규와의 약속 때문에 장례식에갈 수 없었다. 김재규와부산대 정문 앞, 서면로타리, 부산역앞 등에서만나 유신반대투쟁에함께 하기로 했다.

74년 3월 학교가개학한뒤 나는 준비관계로바빠졌다. 임규영으로부터대전에서연락선으로부터접한 상황을들었다. 서울에서 황인성, 광주에서윤한봉이온다고 하였다. 3월초에 임규영, 황철식, 이광하, 장성백등을 만나 3월투쟁을다져 나갔다.

74년 3월 20일 저녁성당못주변식당에서황철식, 이광하, 장성백 등 후배들과만나 내일(3.21) 있을데모를최종 점검하고선언문, 현수막, 구호를준비했다. 74년3월 나는 여정남으로부터경북대가선도투쟁을할 것을 권유받았다. 준비하겠다고대답했다.

3월 21일 며칠 전이었다. 나는수성동임구호집을 찾아갔다. 두 달만의만남인것 같았다. 3월21일 데모를한다는것을 전했다. 임구호는반대 논리를폈다. 임구호와나는 대륜고등학교동기이다. 고등학교에서한 반을 한 적도 있었다. 경북대에입학하여서도같이 투쟁했다. 정사회는임구호가먼저 가입했다. 73년 11월 5일 투쟁 이후 우리는거의 노출되어견제가곳곳에서나타났다. 11 · 5 투쟁은수사기관에전혀 노출되지않은 상태에서진행되었다.

3 · 21투쟁을위한 준비가다 되었다. 10시. 맡은바대로 분담하여유인물을살포하고구호를외치고하였으나우리의뜻대로 되지가않았다. 작년시위와는차이가있음을직감했다. 나는 미리 대비해 두었던 비산동 은신처로돌아갔다. 임규영을만나 다시 준비하기로하였다. 검거선풍이시작되었다.

3월 28일 경 임규영이중앙정보부요원과함께 은신처로온 것이다. 임규영은이승룡과함께 만나는과정에서체포되어바로

오게 되었다고하였다. 임규영은이 부분에대해 늘 미안하다고 한다. 이승룡은11·5투쟁에서는열성적이었다. 그후수사기관과 연계된것같다. 1978년내가 교도소에있을 때 이승룡은경북대 뒷산에서자살하였다고한다. 의문사라고하여 조사된바도있다.

나는그 뒤 임규영에게이승룡과의선을 자르라고부탁했다. 이승룡은임규영은못 만나고다른 후배들과만났다. 이승룡은 74년 3월투쟁의모든 것을 수사기관에알렸던것이다. 프락치역 할한 것을 의문사조사과정에서확인하게되었다. 이승룡, 그는 죽었다. 자괴심에의한 자살인지정보기관에의한 타살인지, 그 것은 지금으로선알지 못한다. 그럴수 있는 상황을알 수 있는 사람이있을 것이다. 역사의비극이었다. 유신정권의비극적상 황의 소산일뿐이다. 명복을빈다.

고문·고문·고문

74년 3월 말 경 중앙정보부에체포된뒤 다음 날 잡혀와있 던 임규영, 황철식, 이광하, 장성백, 강기룡, 유진숙, 김진규, 윤규 한, 조태수, 김시형, 이승룡과함께중앙정보부차에 실려 서울구 치소로가게 되었다. 다음날부터수사가 진행되었다. 대구에서 먼저 체포되었던후배들의진술을시인하는상황이었다. 반유신 투쟁을각오하고시작한것이라서별로 두려움이없었다.

4월 3일 긴급조치4호가 발동된뒤부터는태도가달라졌다. 조사의강도가높아졌다. 윗선을대라는것이었다. 나는이용택6 국장이있던 중앙정보부6국에서조사받았다. 정보부와경찰 혼 합팀은인간이아니었다. 자기들뜻대로되지 않으면침대 마후 라로 마구 구타했다. 엉덩이는시커멓게멍들었고, 등은구타를 당해 멍든 줄이 등을 덮었다. 걸음도제대로걸을 수가 없었다. 새벽이면등이 찢어지는것 같았다. 잠을잘 수가없었다. 쪼그리 고 앉아등을 오므리면아픔이좀 덜한것 같았다.

중앙정보부에서고문을받다가구치소로돌아가는날은 사 는 것 같았다. 중앙정보부에불려가는날이면반 죽는 날이었다. 일주일의자에앉혀놓고잠을 재우지않았다. 발이 퉁퉁 부어올 라 걷는 감각이없어졌다. 의식도몽롱해졌다. 감각기능, 의식기 능이 상실된것이다.

중앙정보부가작성한대로 손도장을찍을 수밖에없는 무의 식 상태였다. 하루는등을 하도 구타하기에시멘트바닥에엎드 려 버렸다. 죽이라는것이었다. 그러니까구타를중단하는것이 었다. 수갑을며칠씩계속 차고 있으니손목은피가 나고 시커멓 게 멍들어졌다.

나는 그때 결핵이 심했었다. 중앙정보부놈들은X-ray 검진 을 하고 난 후 나에게마스크를씌웠다. 기침이계속 나왔다. 재 수없게결핵 걸린 놈을 취조한다고생각한모양이었다. 나를취 조할 때는 중앙정보부놈들도마스크를쓰고 했다. 모진고문을 받으면서도나는 두 가지 문제에대해서는함구하기로결심했다.

첫째, 선배들에대한 것이었다. 여정남선배를 보호하기위 해, 선을자르기위해여정남부분은절대로얘기하지않았다. 이 부분은공소장에먼저 기재해놓고사후에맞추느라고검찰 진술 조서를작성했던것이다. 인혁당선배들에대해서도물론 함구했

다. 중앙정보부지하 대기실에서하재완선생을만났다. 서로모른 척했다. 하재완선생은나에게사인을했다. 손바닥에X자 표시를 했다. 나는알았다는사인을보냈다.

둘째, 여학생에관한 것이었다. 유진숙과같은 차를 타고 대구에서서울로올라가면서유진숙, 나모두 모른 척했다. 혹시라도 저놈들이눈치를챌까봐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무언의약속은 계속 지켜져서중앙정보부수사과정에서도드러나지않았다. 여학생이름이거론되지않은 관계로유진숙은석 달만에기소유예로풀려나게되었다. 유진숙은지방에선유일하게구속된 여학생이었다.

서울구치소는4월 중순 이후부터는구치소전체가긴급조치였다. 한방 건너 한 방이 노란딱지가붙어있는긴급조치위반자들이었다. 친구임구호가구속된 것을 안 것도 공소장을받아보고 난 뒤였다. 임구호와내가 단 둘이 만난것이 공소장에기재되어 있지 않은가. 중앙정보부나경찰 조사에서한 번도 조사받은 적이 없는 사실이공소장에기재되어있었으니말이다.

긴급조치로수감된 민주인사가이렇게많다 보니 서울구치소도 누가 누구와공범관계인지알 수 없었을것이다. 나는중앙정보부로조사받으러갈 때 여정남선배를같은 차 안 바로 옆에서 만났다. 여정남선배는너무나지독하게고문을받아서정신이 없다고하였다. 제정신이아닌 듯 실성한사람같았다. 언제어디서체포되었느냐고물었더니, 4월16일 서울 어느 초등학교 정문 앞 후배와의약속 장소였다고하였다.

중앙정보부는공소장을먼저 작성하여놓고 검찰 심문조서를 작성하였다. 여정남에게민주사회주의교양을받고 그에 동조하였다고 반공법을적용하였다. 서울구치소에서강철선 검사에게 그런 사실이없다고하였더니, 여정남선배에게서쪽지를받아가지고 왔다. 민주사회주의를배기하였다는쪽지였다. 민주사회주의라면문제가될 것이 없다고생각하여인정하여주었다.

강철선검사는나와 단 둘이 있을 때 자기도유신헌법을반대한다고하였다. 저런검사가있을까생각했다. 비상보통군법회의, 비상고등군법회의의재판은형식적이었다. 박정희독재정권의 현실을보여주는것이었다. 중앙정보부가총지휘하고, 군부가 앞잡이가되고, 검찰은실무자가되어 청와대박정희의조종에 따라 꼭두각시놀음을하고 있었다.

민청학련과인혁당을통합심리하다가분리심리하기도하는 등 저놈들 입맛대로하였다. 나는1심에서 징역 20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장관확인과정에서징역 15년으로감형되었다. 이강철, 임규영도같이 감형되었다.

74년 가을 전국 대학에서는반유신데모가격렬해졌다. 안양교도소로이감된뒤 상고 취하하는쪽으로긴급조치자들의의사가 형성되어가고 있었다. 대부분의학생이 상고를 취하하였다. 나는 임규영과함께 상고포기를하지 않기로하였다. 여정남선배, 인혁당선생들이사형언도를받은 것을 생각하면포기할수가 없었다. 같이재판을받아야한다고생각했다.

1975년 2월 17일 우리는석방되었다. 2월12일 국민투표란 것을 실시하여국민적합의가이루어졌다고하면서석방시킨것이다. 민청학련부분에선졸업생은제외한다면서이강철을석방

시키지않았다. 여정남선배와인혁당의친구 임구호, 인혁당선생들은남겨둔채 교도소문을 나섰던것이다. 임규영과나는 상고중이어서구속집행정지로출소하게되었다. 나는임규영과함께 안양교도소에서출소하여바로 서울구치소로달려갔다. 그러나 면회는이루어지지않았다. 하재완선생 사모님이영교여사를 구치소앞에서만났다. 사(死)자가있어서큰일이라며걱정을하셨다. 걱정말라고하였지만, 마음을놓을수가 없었다.

인혁당

4·19혁명 직후는민주주의에대한 국민들의열망이드높은 때였다. 12년동안 이승만독재정권아래에서신음하던모든 세력들이민주주의와민족통일에대해 다양한견해와요구를나타냈다. 이승만정권은전쟁을통한 통일을주장했다. 소위북진통일론이다. 6·25라는민족상잔의전쟁을거치면서우리는얼마나 고통을당했는가. 전쟁을통한 통일은민족의파멸을가져온다는 교훈을얻은 것 아닌가. 전쟁이없는 통일을원했던것이다. 그러나 이승만정권은전쟁이없는 통일, 평화통일을주장하면탄압을 가했다.

4·19 직후혁신계는평화통일이란대의로단결했다. 대구에는 혁신계단체인교원노조, 피학살유족회, 민통련, 민자통, 민민청 등이 있었다. 특히민족민주청년동행(민민청)의청년운동이 활발했다. 민민청의위원장에서도원, 간사장(사무총장)에도예종, 총무에송상진이었다. 민족자주평화통일협의회(민자통)의 실무 · 사회단체가통일전선을형성한것이었다. 대구사람들이중심이 되었다한다. 민자통은지금까지명맥을유지하고있다.

5·16쿠데타이후 박정희는평화통일세력을파괴했다. 평화통일을주장하는사람을국가보안법, 반공법으로묶어 처벌했다. 서도원선생도5·16 후에구속되었다. 도예종선생은피신했다.

미국은 동북아에서냉전체제유지를 위해 36년간 우리나라를 억압했던일본과의국교를맺도록강압하고있었다. 박정희정권이 일본과의굴욕적인한일회담을추진하자국민들의반대투쟁이 격렬하게일어났다. 정당, 사회단체, 학생을 전 국민이 한일회담반대투쟁에참여했다. 64년3·24, 6·3투쟁을도예종선생이배후에서지도했다고하여 1차 인혁당사건을 일으켰다. 도예종선생이서울에서청년 학생들과한일회담반대투쟁에참여한 것이 발단이었다.

69년 3선개헌반대투쟁시나는 유한종선생을만났었다. 그분에게서김순덕변호사를소개받아변호사면담을한 적이 있었다. 대구에계신 진보적민주인사들은다양한방법으로3선개헌반대투쟁에참여했다.

1971년 3월 민주수호국민협의회가결성되었다(명동대성빌딩).

공동대표: 천관우(언론인) 이병린(변호사) 김재준(한신대총장) 함석헌
사무처장: 김승균
운영위원(12명): 김정례(전보사부장관) 계훈제(민족운동가) 김승균(사무처장) 이호철(소설가) 김순경(의

사) 천관우김재준함석헌이병린등

1971년 4월 22일 민주수호경북협의회가대구 현대예식장에서 결성식을가졌다. 사무실은대구백화점신관 7층(717호)에 두었다.

공동대표: 최해청(청구대학장) 박삼세(경북대교수) 유한종(재야대표) 주병환(전신민당국회의원) 김순덕(변호사)
총무위원장: 강창덕(전매일신문기자)
선전위원장겸 대변인: 이재문(전민족일보기자)
청년위원장: 정만진(대구대 · 19 학생운동주도)
운영위원: 김종도(대구지역민주노조운동대표) 이백희(전대구시장) 김호일(전대구일보편집국장) 서도원(전 청구대강사) 도예종(전대구대강사) 송상진(전 교사) 하재완(전양조장경영) 나경일(제일모직 노조운동) 백정호(학원강사) 우종수(한의원) 이태환(전수리조합직원) 강창덕이재문정만진여정남 임구호

경북협의회는민주주의를유린하는독재에대항하여투쟁하고, 민주주의와민중의역량을강화하는데선봉이될 것을 다짐했다.

경북 · 대구지역의진보적민주인사들은4 · 19 이후부터평화통일운동을주도했다. 외세에끌려다니는정부를규탄하고외세에대해자주적입장에서호혜평등을실천하려고하였다. 또한 박정희폭압정권에맞서 반독재민주주의투쟁을전개하였다. 민주주의와민족자주, 평화통일을이루려는민주인사라면당연히 유신헌법반대투쟁에참여해야하지 않겠는가.

인혁당선생들은영구집권을꿈꾸며국민을수탈하고탄압하는박정희군부세력을반대하고몰아내는일에 당연히참여했다. 유신반대투쟁에청년 학생이투쟁대열의중심에서고, 윤보선을비롯한정치인, 지학순주교, 박형규목사를비롯한종교계, 진보적민주인사, 각계층이참여했다. 이러한반독재민주화투쟁과정에서민청학련학생운동이발생한것이다. 윤보선전 대통령이, 지학순주교가자금을지원한것이다. 제세력이반독재반유신 민주화투쟁대열에하나가된 것이다.

서도원선생을비롯한인혁계진보적 민주인사들은모두가 다 투쟁경력이있는 분들이다. 아니역량을갖고 있는 인사이다. 현실정치에선후선에있었으나민족 민주운동에선다 아는 민주인사였다. 여정남을앞세워3선개헌반대투쟁을지도하고반유신투쟁을위해 여정남을서울로보낸 것이다. 서울에있는 선생들은 여정남을보호하고지도한것이다. 대구지역민주인사들은이렇게 4 · 19 이후부터민주, 민족자주, 평화통일운동을전개하여왔다.

인혁당은없었다. 당이라면당의 강령, 목적과조직체계가 있어야한다. 인혁당은살인적 고문에의해 조작되었다. 대구나 서울에서전국적으로진보적민주인사들의연계는늘 있어 왔다.

민주인사는민주인사대로, 학생은학생대로전국적으로연결된다. 학생은전국 학생토론회를통해서연결되어왔다. 사회적문제가발생하면서울이고지방이고당연히제 세력들이역량에따라 대응하게되어 있다. 당시상황과능력에따라, 또 정국을인식하는태도에따라 대응하게되는 것이다.

인혁당선생들도그런 입장에서반독재민주화투쟁에나선 것이다. 꼭단체의이름을걸고 투쟁하는것만이아니다. 각자의 입장과처지에따라 참여하는것이다. 인혁당에관계된선생들의 투쟁경력은다양하다. 민주주의와평화통일, 민족자주적입장에서서 해오신분들이다. 노동운동등 각자가선 위치에따라 사회운동을해오신분들이다. 그분들은민주주의에대한 신념, 반외세 민족자주의길, 평화통일을이룩하려는열정이확고했다. 그리하여인간이인간답게사는 세상을끊임없이모색하였다.

여정남과 인혁당 선배들의 사형집행

75년 2월 17일 석방된후 전정효와함께 학내 투쟁에대해 상의했다. 박명규를중심으로싸움이진행되고있었다.

75년 4월 8일은 민청학련사건대법원선고날이다. 임규영과 나는 구속집행정지상태라서4월 8일에 다시 경찰서에구금되었다. 75년4월 9일 안양교도소를향해 경찰관과함께 가는 중이었다. 추풍령을넘기 전 고속버스안에서사형집행소식을들었다. 하늘이 무너졌다. 몸서리가쳐졌다. 이렇게포악무도한놈들이 있을까. 4월9일 안양교도소감방은몹시 추웠다. 우리는기결수

▲ 1975년 4월 8일의 ‘ 민청학련 · 인혁당사건 ’ 대법원공판 모습

가 되었다고하여 머리를 깎였다. 4월10일 형집행정지로다시 석방되었다. 안양교도소에서하룻밤을지냈던것이다.

4월 8일 10시 대법원에서선고한지18시간만인새벽 5시부터 형이 집행되었다. 사형을당한 것이다. 교수형을당한 것이다. 사법살인을당한 것이다. 교도소에들어간뒤 가족을한번도면회하지못하고저 못된 박정희와포악한놈들에의해 세상을떠난 것이다. 박정희와포악한일당들은사형집행뒤 고문 사실이 드러날까봐 시신을가족에게넘겨주지않고 강제로화장시키기까지 했다. 영결미사를드리려는가족과종교계의염원도뿌리치고 화장시켰던것이다. 세상이들끓었다. 세계가분노했다.

박정희는대구지역의진보적 민주인사들에게왜 그토록가혹하게대했을까?

첫째, 박정희는자기의 고향에서비판세력이강성하다는데 대해 불쾌하고불안했다. 다른지역에대해 변명의여지가없었던 것이다.

둘째, 장기집권을통해 권력의정당성을상실한유신정권은 권력의생존을위해사건을왜곡조작하여반유신세력의결집을 붕괴시키려했다.

셋째, 73년11월 5일 경북대반유신가두투쟁을3선개헌반대투쟁, 한일회담반대투쟁등 전국적인투쟁의연장선으로파악하고 반유신투쟁의중심을와해시키려했다.

박정희는왜 그렇게도급하게인혁당인사들은처형시켰을까?

첫째, 박정희는쿠데타를일으켜반대세력을처단했다. 또한 굴욕적인한일회담을통해 민족을팔아먹었다. 3선개헌을통해 집권연장을획책하고유신쿠데타를일으켜영구집권을획책했다.

둘째, 박정희식개발독재의한계로인해 경제는파탄지경에 이르렀다. 72년8·3조치를통해 민중수탈정책을자행했다. 이에 대한국민적저항에두려움을느꼈다.

셋째, 김대중납치사건으로인해 국내외적으로박정희와그의 중앙정보부가지탄의대상이되었다.

넷째, 월남이패망했다. 이러한불안을이용하여독재정권을 연장하려고하였다.

다섯째, 반유신반독재투쟁전선에청년 학생, 언론인, 종교인, 정치인등 광범위한세력의결집에두려움을느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고문 조작을통해 인혁당을만들었다. 인혁당을통해 저항세력을잠재우려전 세계에서도유례없이사형을집행한 것이다. 공포정치폭압정치를자행한것이다.

다시 구속되고

엠네스티한국본부를중심으로학생운동출신들이노동현장으로 들어가기위한 교육이시행되고있었다. 나는임규영을만나 고향에서결핵 치료를받은 뒤 노동기술교육을받기로하였다. 임규영은경북 영주에서자동차정비교육을받기로하였다.

1976년 8월, 나는고향 동네에서경찰 앞잡이의교묘한수법에 걸려싸움을하게되었다. 그앞잡이는나와관계가없는 말을 하여 이간질시켜어떤 사람이캄캄한밤에 칼을 들고 오게 만들었다. 이싸움 때문에나는구속되었다. 지서순경들은이 싸움이 있기 전에 정화영이곧 구속될것이다고하였다는것이다. 시골 지서에는나를 감시하는형사가있었던모양이다. 지서에서방위근무를하던후배의뒷얘기다.

상주경찰서감방에서유언비어를퍼뜨렸다고긴급조치를적용하였다. 감방의다른 죄수를매수하여조작한것이다. 3년형을 선고받았다. 억울했다. 대구교도소에3년형을마쳤다. 그러나 석방되지않았다. 민청학련의형집행정지가취소되었다. 다시민청학련의잔여형기14년을 살기 시작했다.

대구교도소에는특별사동이있다. 0.75평 감방이70여 개 있다. 주로 북에서 남파되어온첩보원이나반공법, 국가보안법위반자들이수감되어있다. 여기에긴급조치범들도들어오게된다.

나는 국가보안법, 반공법, 내란예비음모, 긴급조치위반, 특별사동에 들어올 죄목이 4개나 되니 당연한 코스가 아닌가.

70년대 제일교포학생간첩단사건으로 들어온 서승, 명동성당 학생사건으로 들어온 최열, 강기종, 김용석을 만났다. 뒤에는 광주의 윤한봉이 이감 와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장기표, 이부영 선배도 대구교도소 감옥 동기이다.

북에서 온 분들의 역할은 다양했다. 연락책으로 왔다가 체포된 사람, 남파되어 가족과 접선하다가 신고로 체포된 사람도 있었다. 총각으로 넘어와서 체포되어 20년 이상 된 사람도 여럿 있었다. 나는 그들을 총각대장이라고 놀렸다. 북에 가족을 둔 사람은 면회가 있을 수 없었으니 늘 외로운 사람이었다. 가족이 있다 해도 면회 오는 사람이 드물었다. 그러다 보니 팬티 런닝 셔츠 하나 넣어 줄 사람이 없었다. 서승은 제일교포라서 유복한 편이었다. 우리는 서승과 힘을 합쳐 영치물도 나누어 주고, 비누, 치약 등 세면도구 등을 사서 각방으로 분배하여 넣어주기도 하였다. 식당에서 튀김이나 짜장면을 구매하여 온 사동이 나눠 먹었다.

특별사동 위층에는 청소하는 기결수들이 있는데, 이들은 양말, 팬티, 런닝 셔츠 등 내의가 풍부한 편이어서 한번 입은 것을 세탁하지 않고 창 밖으로 내버리곤 하였다. 북에서 온 분들은 내버린 내의를 운동시간에 교도관 몰래 주워 다 입었다. 전향하지 않으면 계속 독방에 갇혀 있어야 만 했다. 자기 사상을 지키려는 싸움은 처절한 것 같았다. 이과정에서 전향공작으로 폭행당해 죽었다고 하였다. 작은 독방에 갇힌 죄수들의 운동시간은 하루 30분 뿐이었다. 사람을 시들게 만들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연습장이었다.

남민전, 박정희의 죽음

79년 4월 경 나는 마산교도소로 이감되었다. 교도소에는 광주에서 이감 온 한국외대 선경식이 있었다. 명동성당 학생사건으로 4년 동안 징역을 살고 있었다.

옆 독방에는 월남전에서 월남 수녀를 강간하고 살해한 파월 병사가 무기징역을 살고 있었다. 정신이상이 되어 특별감방에 있었다. 매일 아메리카 징역을 산다고 소리쳤다. 근혜, 근영, 지만이를 욕하고 있었다. 그 무기수는 박정희와 미국 때문에 월남전에 가게 되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반외세 반독재를 몸으로 느끼는 무기수.

79년 10월 중순 큰 사건이 터졌다고 가깝게 지내던 교도관이 알려주었다. 무슨 사건이냐고 물었더니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이라고 하였다. 신문을 보여 달라고 하였더니 살짝 가지고 왔다. 이재문, 안재구 선생 등등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가. 나는 그들이 투쟁대오를 단단히 꾸렸다고 생각했다. 박정희에 의해 죽임당한 인혁당 선배들을 생각하면 무슨 투쟁을 못하겠는가.

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뉴스가 들어왔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인과응보란 바로 이것이다. 18년 동안 권력의 유지를 위해 얼마나 포악한 짓을 하였던가.

대구교도소로 다시 이감되었다. 그해 말 다시 대전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이강철, 임구호, 장영달, 나 넷이서 만났다. 이재형 선배, 정만진 선배, 전재권 선생, 이태환 선생과 같이 지낼 수 있

었다.

81년 김대중내란음모사건으로한화갑, 김옥두, 김홍일, 이협, 전대열, 함윤식등도들어와교도소생활을같이했다. 황인오, 권운상, 박종렬, 권진관, 양관수도있었다. 박종렬은내가교도소한 번 있을 때 두 번 들어왔다. 충남대학생선재규, 선병렬등 8명이 들어왔다. 교도소긴급조치사동이해방구가된 듯하였다.

대전교도소에도북에서온 첩보원사동이 있다. 그 사동은 얼마나지독하고엄하게대했는지통방소리하나 들리지않았다. 여기서우리는터놓고통방했다. 특별사동도분위기가달라졌다. 마음 놓고 통방하는소리가들렸다. 들깨를심어서먹기도하고, 상추를심어서먹기도하였다.

81년 8월 15일 이강철, 장영달과나는 구속집행정지로석방되었다. 이강철은7년 반, 장영달은7년, 나는6년의 징역을살았다. 석방된다는소식을듣고 인혁당선배들을두고 나간다고생각하니설움이복받쳤다. 나는서럽게엉엉 울었다. 6년동안 살면서 경제학공부를열심히했다. 책구입이넉넉지못했던나는 동료들에게좋은 책이 들어오면빌려 밤새워읽기도하였다.

독방에서혼자있으면공상이가득하다. 기와집을지었다부수고 다시 새 기와집을짓기도하였다. 여정남과인혁당선배들을 생각하면울분이솟아나곤했다. 나는포악한박정희를수십 번이나죽였다. 몸을땅에 파묻고목만 내어 놓은 상태에서칼로 목을 치기도 하고 권총으로머리를 두드리며죽이는 상상을 몇 번이나하였던가. 논둑을날아오르는꿈을 몇 번이나꾸었던가. 어떻게하면 저 포악한박정희를죽일 수 있겠는가. 그고문하던 놈을, 고문하던중앙정보부를파괴하는방법이없을까…

석방된뒤 이강철은대구에서테니스장을운영했다. 나는테니스장에자주 가곤 했다. 경찰이매일 집에 와서 동정을살펴 움직일 수가 없었다. 6년이란세월에세상이많이 변해 있었다. 버스값도몰랐다. 임규영과황철식은남민전으로구속되어있었다.

82년 나는 서울로올라왔다. 83년부터김승균선배의도움으로 일월서각에있게 되었다. 김승균선배는인혁당선배들과함께 투쟁한분이다. 나는장영달, 배기선, 송진섭과만나반합법단체를 만들기로했다. 민청협팀과 합동으로83년 3월부터비밀리에 준비모임을가졌다. 정화영너 왜 민청련을만들려하느냐는 의심과항의를받아가면서말이다.

83년 9월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을결성하였다. 나는 민청련을토대로전국적인청년단체를만든 뒤, 진보적대중정당을 전환하는희망을가지고있었다. 전두환군사정권에대항할연합단체를만드는구상도하였다. 민청련의기관지「민주화의길」도 나오게되어 우리 목소리를내게된 것이 무척이나기뻤다.

[자료]

반독재구국선언

4월민주혁명제11주년 기념 학술토론대회를마치면서용감하고 슬기로운선배들의피와 눈물로 이룩되었던4월 민주혁명 열한돌을맞이하려는오늘, 또다시그 때와같은심정으로우리

들의 젊은 가슴이 술렁대야 한다는 것은 이 어찌된 역사의 아이러니란 말이냐. 우리들의 영광스런 선배들이 목숨 바쳐 쟁취한 민주주의의 싹이 하루아침 한강변의 총성으로 무참히 짓밟히고,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인 군사독재는 이 땅을 다시 한 번 공포, 빈곤, 부패, 역설이 소용돌이치는 암흑천지로 만들고 말았다.

4월 민주혁명의 민중의 에네르기가 그 권리 회복의 수단으로 표시한 민주행동을 국가질서문란이란 누명을 씌워 무참히 짓밟고, 민족자주를 지키려는 전 국민적 한일협정 반대의 사를 무시하고 저희들의 정권유지의 한 방편으로써 매국적으로 체결하여 이 땅을 다시 한번 일본 군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시켰을 뿐 아니라, 파탄에 직면한 민족경제를 민족의 단합된 자주적 총력으로써 재건하려 하지 않고 무절제한 외국차관 도입으로써 이 나라를 경제적 국제식민지화하고 말았으며, 다시 구제할 수 없는 악순환만 거듭하게 하였다.

비등하는 국내외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개값도 안되는 헐값으로 귀중한 우리 젊은이의 생명을 용병이란 오욕에 찬 이름을 들어가며 월남에 보내어 저희들 정권유지의 도구로 삼았던 것이다. 어제까지 집 한 칸 없던 자들이 권력의 주변에 들어서기만 하면 하루아침에 수십 수백억의 거부가 되고, 속칭 도둑촌의 영화를 누리게 되어 부정과 부패는 이 나라의 심장부로부터 말초에까지 보편화되었고, 권력층, 무이상, 무도덕과 로 말미암은 향락주의, 찰나주의는 정여인 사건으로 집약되었고, 우리 선조 전래의 미풍양속, 고유문화는 헌신짝처럼 짓밟히고 음란한 양키 섹스 문화로 탈바꿈하고 말았다.

일부 지배층은 무한한 부와 유례없는 향락을 누리는 가하면 대다수 국민은 빈곤과 민생고에 허덕이는 참상을 낳게 하여 국민의 불평과 불만은 날로 높아가게 되었던 것이며, 집권자들은 고도로 발달한 탄압방법을 통하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입을 막았던 것이다. 무소불위의 중앙정보부는 국민생활의 전 분야를 감시 간섭하여 한국 전 국토를 창살없는 감옥으로 만들었으며, 언론기관에 대한 탄압, 유혹, 매수정책은 이 땅을 여론과 언론이 없는 암흑천지로 만들었던 것이다.

저희들 영구집권을 획책하여 저희들이 만든 헌법을 위배해가며 3선개헌을 감행했던 것이며, 그것도 부족하여 전 국민을 군대식으로 묶어두려고 국가안보란 미명하에 향토예비군을 만들었고, 자유와 진리의 거점인 학원마저 명령과 복종 지배의 병영화를 위하여 국가안보와는 무관한 군사훈련을 강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머잖은 장래에 닥쳐올 전 민족의 염원인 조국통일을 지연시키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며, 역사의 흐름에 역류하려는 옹고집은 민족사에 비참한 한 페이지를 남기게 되고 말 것이다. 한필화 오누이의 비극은 전 민족적 비극의 조그마한 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일 것이다. 조국의 평화적 민주적 통일은 이 땅에 참된 민주정권이 수립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 백의민족은 역사상 유례없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범국민적 반독재 민주구국전선의 결성을 제의한다.

—매국적한 · 일협정을무효화한다.
—구국운동의일차적인작업으로써공명선거수호를위하여 국민적궐기를촉구한다.
—학원민주화를전취하기위해서전 대학생및 고등학생의 각성 분위기를촉구하며, 학원병영화를전면 반대한다.
—조국의민주주의를위하여노동자, 농민, 소시민, 양심적인 지식인, 중소기업가, 종교인들에게요구한다. 반만년동안 단일민족고유문화를지켜오고, 어떤외침도과감히물리친 조국의영광을되살려반외세, 반독재전선에총궐기하라.

4월의 맑은 하늘 아래 우리의 끓는 피를 조국에 바치자
혼탁한 거리거리에 민주주의의 청신한 물결이 넘쳐 흐르게하자.
조국의민주혁명만세!

1971. 4. 7

경북대학교정진회, 서울문리대문우회,
서울상대후진국사회연구회, 연세대학교한국문제연구회,
고려대학교현대사상연구회, 서울법대사회법학회,
고려대학교한맥, 부산대학교한얼,
서울공대산업사회연구회, 계명대학교대학토론회

민청학련사건과 나

● 임 규 영

*임규영은 경북 안동 출생으로, 1971년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에 입학하여 학생운동을 시작했다. 1972년 포고령 위반, 1974년 민청학련사건으로 구속되었으며, 1979년에는 남민전사건으로 구속되어 10년간 복역했다. 현재는 구미 신평중학교 교사로 재직중이다.

30년 전 일을 회고하여 막상 글을 쓰는 것이 간단치 않다. 나 자신의 이야기가 쑥스럽기도 하거니와 최소한의 자료도 없이 가물거리는 기억에 의존하여 글을 쓰려니 당시의 많은 동지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것 같아 염려가 앞선다.

이 글을 쓰면서 도안타까운 점은 내가 정만기 선배로부터 물려받은 큰 가방 하나 분량의 각종 문건 자료에 관한 것이다. 그 자료는 60 70년대 초반까지의 경북대를 중심으로 전국의 학생운동이 생산한 각종 선언문, 성명서, 지하신문, 원고 등이었다.

당시 상황으로는 내가 그 자료를 보관할 수 없어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어느 후배에게 신신당부하여 맡겨두었다. 그런데 훗날 감옥에서 나와 내가 다시 회수하려 했을 때는 전량 잿더미가 되어버린 뒤였다. 그 친구는 " 부담스러워 아궁이 속에 넣어 깨끗이 태워버렸다고" 했다.

박정희 군사독재의 가혹한 탄압이 당시 주요 활동가들이 자신의 고귀한 정신적 노고를 바쳐 제작 · 배포하였던 귀중한 역사적 자료들을 보관할 수 없도록 한 근본 원인이지만, 그 후 나는 그 자료들에 대한 아쉬움이 생길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새로운 학생운동의 주체 한풍회 결성

' 민청학련과 나 ' 와의 관련을 이야기하자면 먼저 경북대학교 학생운동과 1973년 11월 5일에 있었던 ' 반유신 시위투쟁 ' 을 소개하지 않고는 평지돌출이 될 것 같아 당시 내가 듣고 겪은 사실을 언급하고 민청학련사건으로 넘어갈까 한다.

원래 대구 · 경북지역은 8 · 15 이후 민족민주통일운동이 활발하였던 곳으로 주지하다시피 4 · 19 이후에도 민족 · 민주 · 통일운동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였던 주요 정치조직사건에 관련된 인사들이 많이 나왔다.

60 70년대 전반기까지의 경북대학교 학생운동은 이러한 토양 속에서 생성되고 전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4 · 19 이후를 보면, 서클 회장단 연합회인 ' 맥령회 ' 가 조직되어 6 · 3항쟁 무렵까지의 학생운동을 주도했으나 그 한계성 때문에 해체되었고, 65년부터는 대중적 서클인 ' 정사회 ' 가 출범하여 학생운동을 담당하게 되었다. 정사회는 1967년 6 · 8부정선거규탄투쟁과 1969년 3선개헌 반대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하는 데 큰 위력을 발휘하였다.

특히 3선개헌반대투쟁은 전국적 대중투쟁을 주도해 낼 만큼 모범적이었다. 연일 계속된 시위 투쟁에서 엄청난 대중 동원력을 발휘하여 경찰력을 무력화시킬 정도였고, 시위대는 시내 중심부 진출을 끝내고 학교로 돌아오면 다시 운동장에 집결해서 경찰 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한 훈련을 하였다고 전해진다.

그 후 정사회는 당국의 탄압으로 해체되고 ' 정진회 ' 라는 서클이 그 뒤를 이어 1970년에 등장하게 된다. 이 무렵은 삼선개헌을 완료한 박정권이 탄압을 한층 강화하던 시기라 정진회는 ' 고 전태일 열사 추도식 투쟁 ' 과 ' 등록금 인상 반대투쟁 ' 등을 거치면서 불법화되고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때 불법화의 직

접적 계기는 정진회 지도교수였던 김성혁 교수의 사퇴였다. 그는 '전태일열사 추도식'이 자신의 소신과 어긋난다고 하여 지도교수직을 사퇴하였다고 한다.

바로 이 시기인 1971년, 나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에 입학하였다. 나는 그해 봄 교정에서 정진회가 주도하는 집회를 자주 목격할 수 있었고, 각종 성명서나 선언문도 얻어 볼 수 있었다.

그 내용은 관료적이고 반민주적인 학교행정을 고발하고 학원 민주화를 주장하는 것과 매판적 군사독재세력의 반민족적 · 반민중적 성격을 폭로 · 규탄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그 무렵에 나는 정진회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 시골서 갓 입학한 내가 학내 사정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각종 유인물을 읽어보면서 공감은 하였지만 생소한 전투적 표현들 때문에나 자신의 정서를 일치시키기엔 막연한 두려움을 느껴야 했다.

그러나 차츰 나는 그 두려움을 걷어내고 내 마음 속 깊이 잠자고 있던 자유 · 평등에 대한 열망과 민족 자주의식을 서서히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다. 또한 교내에서 평화적 집회 따위가 학교 당국과 교수들의 우격다짐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도 당시 구경꾼이었던 나를 자극하였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친구로부터 학생운동서클인 정진회에 대한 이야기를 얻어듣고 학과의 한 해 선배를 상대로 탐문하여 정진회의 9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내가 '탐문까지' 해야 했던 데는 사정이 있었다. 그 무렵 '정진회'는 지도교수가 사퇴하여 당국으로부터 불법 · 불온단체로 내몰린 지제법 되었기 때문이다.

가입 후, 나는 1학년 다른 회원들과 함께 선배들이 시키는 대로 각종 유인물(정진, 자유의 종, 한일백서, 각종 선언문과 성명서 등)을 교내 강의실 등을 다니며 열심히 학생들에게 배포했던 기억이 난다.

내가 정진회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971년 4월 중순경,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북대에서는 '4 · 19 제11주년 기념 전국 대학생 서클 대항 학술토론회'가 정진회 주최로 열리기로 되어 있었다. 개최하루 전날 나를 포함한 1학년 신입회원들 몇 사람이 토론회 준비로 분주하던 신암동 소재 대일여관에 가서 정보과 형사들의 감시 속에 선배들을 도와주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하지만 이튿날 토론회는 난장판이 되어 도저히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없었다. 토론회 장소인 학생회관은 폐쇄되어 있었고, 교수 · 직원으로 구성된 '진압부대'는 새까맣게 몰려와 사복 형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요즘 말로 원천 봉쇄를 하였다.

멱살잡이와 고함소리가 난무하고 일반 학생들의 접근은 차단되어 학생회관에서의 개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중에 백여 명이 법대 강의실로 옮겨 일단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얼마 후 밀어닥친 그들로 인해 그곳도 난장판이 되어 폭력사태로까지 번졌다.

나의 눈에선 분노로 눈물이 묻어났다. 나는 당시 강의실 맨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먼저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보직교수는 교수답지 않게 씩씩하고 덩치도 컸으며, 좀 모자랄 정도로 저돌적이었다. 흥분한 학생들에게 떠밀려 그가 내 발 밑에 넘어져 버렸다.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그를 실컷 밟고

늘씬하게두둘겨패주어버렸다.

이 사건은한낱 에피소드에불과하지만, 엉뚱하게도폭력과 아무 상관없는이현세, 여석동선배가혐의를쓰고 학교에서제적되는일로 번졌다. 신입생인내 얼굴이아직 알려지지않은 탓이었다.

그런 곡절은있었지만이 토론회를계기로 ‘ 반독재구국선언문 ’이 발표되어, 토론회에참가한학생들을통해 이 선언문은전국 각 대학으로배포되었다.

당국은이 토론회가가지는의미를중시했기때문에선언문 내용의일부 표현(반외세, 월남파병용병 등)을 빌미로경북대학교 학생운동의핵심들을반공법위반 혐의로검거, 군기지내에 감금하고무지막지한고문을 가한 후 끝내 재판에회부하는 세칭 ‘ 정진회필화사건’이 발생하였다.

사실 이 무렵 국내외정세는박정권에게심히 불리하게돌아가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후 자본주의나라들의맹주로서의 지위를확고히하고 있던 미국이60년대에와서 정치 · 군사 · 경제적으로혼자서세계의헌병 노릇을계속하는데힘이 부치고 있었다.

특히 베트남전은이를 가속화했다. 이러한배경에서미국은 1969년 8월 ‘ 닉슨독트린’이라는새로운대아시아정책을내놓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정책의정치 · 군사적측면은 베트남에서의 철군과아시아에서의병력 감축, 일본의군비증강과공동방위분담요구, 중국과의화해 등을 기본 골격으로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는주한미군감축, 자주국방강조, 남북접촉(7·4 남북공동성명) 등으로나타났다. 이러한주변정세의변화는박정권에게적지 않은불안감을주었다.

또 국내적으로는60년대의차관경제가파탄에이르러부실기업문제(8 · 3사채동결조치등), 외채상환부담및 국제수지악화, 농업과공업간의불균형등 심각한경제문제에직면했고, ‘ 광주대단지사건 ’을 비롯한대중의생존권을위한 투쟁은유례없이 고양되어가고 있었다.

이러한안팎의위기적정세 속에 71년 봄에 치루어야하는 대통령선거는박정권에게는큰 정치적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삼선개헌후 국민대중으로부터고립되어가던 박정권으로서는 유례없는부정선거와지역감정조장에매달리지않고서는재집권의 가능성이없었다. 이와같은 상황이박정권으로하여금자기 출신 지역의저항세력을가혹하게탄압해야하는 기본적인동기였다고할 수 있다.

이 탄압의광풍으로정진회의활동은사실상와해되었다. 이로 인해 대구 · 경북지역에서는71년 봄에있었던전국적인 ‘ 교련반대투쟁과 ‘ 대통령선거참관운동’이 저조할수밖에없었다.

남은 회원들은위축되어잔뜩 움츠러들었고, 패배주의에사로잡혀 술집을찾아다니면서한탄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는 안타까운심정으로 ‘ 학년대표’가 자신의책무를다하지않고 태만할 때는 나 자신이대표 역할을사실상해버리는등 오히려더 적극적으로앞장서서활동하곤했다.

그 무렵 우리 1학년회원들사이에는겁을 먹고 이탈하는회원과 인간관계를다지며새로운모색을해나가는회원으로갈라

져 갔다. 몇몇뜻맞는회원들을중심으로비록 미숙하지만정진회를 계승할역량이서서히준비되어가기 시작했던것이다.

여름이되면서 ‘ 정진회반공법위반 사건 ’의 공판이열렸다. 공판 때마다많은졸업한선배들과회원들이방청을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다. 공판이끝나면 으레 술집에모여 노래를부르고환담을나누기도하였다. 이때 나는졸업한임구호선배를알게 되었다.

그와여러 문제에대한 이야기를나누면서나는 빠른 속도로 그 분과공감대를넓혀나갈수 있었다. 임선배의집은 학교에서 비교적가까웠기때문에시간이나면 나는 임 선배 집에 가서 어머님이차려 주시는밥도 얻어먹고, 부근찻집에서많은 이야기를 나누는일이 자주 있었다. 또기회가있으면나와 가까운이수일, 황철식 등 1학년 회원들을임 선배에게소개하고같이 이야기를 나누는경우도가끔 생기게되었다.

이 무렵 임 선배가가진 사회와역사, 자연과인간에대한 관점은 내가 대학에들어와서나름의세계관을형성하는데크게 도움을 주었다고말할 수 있다.

바로 이 무렵에나를 포함한몇몇 회원들을중심으로새로운 친구들이합류하면서정진회를계승할 새로운 학생운동의주체가 형성되기시작하였다. 학교에서가까웠던이수일의자취방과 나의 하숙방이근거지가되어 친구들이주로 모여들었다. 황철식은 아예 집에서양식까지가지고와서 관속같이비좁은이수일의 자취방에눌러 붙어 살기도했다.

대학 1학년에불과하였던우리들은미숙하기짝이 없었지만 여러 문제들에대해 밤을 새워 토론을자주 하곤 했다. 첨예한어떤 문제들에대해서는서로 열을 내며 박박 우기기도하였다. 그러면서우리는새로운대중적학생운동조직의필요성을절감하고 그 결성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다. 지금회상하면 ‘ 뜻맞는벗을 찾기 위해서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 ’고 말해도 부끄러운마음이들지 않는다.

이렇게열심히활동하는사이에우리 벗들 상호간에는동지적 유대감이자리를잡아갔다. 지금도그 시절 우리 벗들의얼굴을 하나하나떠올리면, 그이름 일일이불러보고싶고 그리움에 서러워진다.

그러던중 여름방학이끝날 무렵 구속되어있던 정진회사건 선배들이보석으로석방되었다. 재판정방청석에서보았던여정남, 김성희, 이현세, 정만기, 여석동, 정욱선배를비롯한구속되었던선배들과도면식이트이기시작했다.

2학기에접어들면서전국적인학생시위가다시 발발하기시작하였다. 나는그 무렵 고려대학교 ‘ 한맥회 ’가 주최하는토론회에 정진회대표로참가하는전정효선배를(정진회사건으로수배중이었으므로그 무렵 구속됨) 비롯한선배들을따라가서참관을 하였다. 그토론회를참관하면서나는 적지 않은 견문을넓힐 수 있었다.

이윽고시위가 격화되자박정희 정권은 위수령을발동하여 학원에대대적인탄압을가해왔다. 주요대학의학생운동서클이 강제 해산되고, 많은학생들이제적되어강제징집조치를당했던 것이다. 우리학교 선배들도다시 피신하였다.

이 와중에도우리는 ‘ 꿈을 버리지않고 새로운학생운동의 토대를구축하는작업을착실히진행시켜나갔다. 우리는당국의 경계심을불러오지않기 위해 기존의선배 정진회원을참여시키지 않는 반면 여학생들이참가하도록노력을많이 기울였다. 그리고 이념적색채가표면에드러나지않도록나름의세심한배려를 해야만했다.

드디어1971년 11월 하순 경 겨울방학을앞두고 ‘ 한풍회 ’ 창립총회겸 토론회를1학년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가운데 교내 인문관강의실(지금은철거되고없다)에서가질 수 있었다. 주제발표는아마 내가 했던 것으로기억된다. 그직후 나는 그 동안 활동하면서서로 의지하고신뢰가깊은 벗이었던이수일(후일그는 나를 다시 만나 ‘ 남민전준비위원회 ’ 활동을 같이 했다)을떠나 보내는상실감도겪어야했다.

이렇게새로운학생운동의대오를탄생시킬수 있었던데에는 임구호, 전정효, 이현세, 정만종 등 많은 선배들의도움이보이지 않게 있었다. 특히당시 정진회회장이었던전정효 선배의 도움이컸다.

우리는지도력의부족과일천한경험으로인하여적지 않은 애로를겪어야했지만열성적인회원들이많았기때문에활발한 운영을해나갈수 있었다. 이듬해2학년이되어 우리는72학번 1학년 신입회원을모집했다. 의욕은커서 많은 신입 회원을모집했으나, 생각이깊지 못하고경험이미숙하였던관계로결과적으로 실리는제대로챙기지못하였다. 강기룡, 최문수 후배를제외하면 쓸만한친구를별로 찾지 못한 우리는실망도컸으나능력이 닿는대로 열심히활동하였다.

유신 쿠데타와 한풍회의 발전

그 해 10월, 한반도를둘러싼정세의급격한변화와날로 격화되는민중의저항에직면한박정희는유신 쿠데타로권력을영구화하려고했다.

계엄령이선포된직후 나와 몇몇 친구는학교에서제적당한 이현세선배를주로 만나 다가올 일들을예측해보고 의논을나눈 적이 있었다. 그러나아직 이 시점에서는반유신운동을구체적으로논의하는단계는아니었다. (나중에알았지만여정남 선배도관여한일이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나는 당시 학교가휴교중이라고향집으로 와서 어머니곁에 있었다. 그러던11월 하순 경 어느 날 집으로 형사가들이닥쳤다. 나는연행되어당시 대구경찰서뒤편에있던 경상북도경찰국대공분실로끌려갔다.

일제 강점 시기에지은 낡고 음산한건물이었다. 내가방에 발을 들여놓자마자정보 형사들은불문곡직하고욕설을 퍼부으며 몽둥이로패기 시작했다. 지은죄를 내 놓으라고위협을했지만 사실 나는 내가 무슨 큰 잘못을했는지선뜻 이해할수 없었다. 나는그 날 밤새껏경찰봉으로전신을얻어맞았다. 미리잡혀온 사람들의진술내용을알고서어느 정도 짐작이갔지만그 내용도 별것 아닌 것이었다.

박정희를비판하고유신체제를반대했다는정도가전부였다.

내가 붙잡혀간 후 집에 계신 어머니의 걱정은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큰집 종형들에게 알리고 다시 힘쓸 만한 일가분에게 부탁해서 그 분의 주선으로 대공분실로 종형 두 분이 나를 찾아 오셨다. 어색한 만남이었지만 나는 종형께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 종형들은 나의 안부만 확인하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

여정남, 임구호 선배, 나 그리고 이한용이 잡혀왔고, 몇 사람은 수배된 상태에서 우리는 포고령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알고 보니 이 사건의 발단은 얼마 전 대구 시내 몇 개 고등학교에 유신 쿠데타를 규탄하고 항쟁을 선언하는 유인물이 '구국장교단' 명의로 살포되었고, 그 선언문의 일부 구절이 여정남 선배가 평소 즐겨 써온 것과 유사하다고 여 선배를 용의자로 지목하여 검거하면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 때 여정남 선배는 중앙정보부에서 여기저기 살이 짓뭉게지고 터지는 가혹한 고문을 당했고 한 쪽 귀도 먹어 있었다. 여 선배 자신이 한 일은 아니지만 알리바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구호, 이현세 선배를 만난 사실이 나오게 되면서 확대되었다. 여정남 선배는 복잡하게 얽혀 대대적인 검거 선풍으로 확대될 것을 매우 염려하였다고 한다.

중앙정보부에서는 과학적 수사를 한답시고 종이의 지질을 감정하는 등 수선을 떨다가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우리를 그냥 놓아주기도 뭐 했는지 구속하여 군법회의에 회부하였던 것이다. 계엄하에 허가 없이 사람들을 만난 것은 포고령의 '불법집회' 죄명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어쨌건 그 해 겨울은 별나게 추웠고, 나는 온기 한 점 없는 일제 때 지은 경찰서 유치장에서부터 낡은 군용 모포 한 장으로 고생꽤나 해야 했다. 1심인 보통군법회의에서는 소년수라고 장·단기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서울에서 열린 항소심(고등군법회의)에서는 선고유예를 받고 이듬해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할 수 있었다.

풀려 나온 나는 1973년 3월에 3학년으로 복학했다. 앞서 사건 때 학교 당국의 권유로 자퇴를 하였기 때문이었다. 학교로 돌아온 직후 우리들은 한풍회 3기 신입회원을 모집하고, 이광하를 새 회장으로 선출한 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 나갔다.

그간 겪었던 지도력의 미숙함도 많이 극복되어 갔다. 그 해 여름방학을 맞아 한풍회원 약 30여 명은 임구호 선배의 고향집과 가까운 경북 영일군 대보에 6박 7일의 일정으로 연수회를 다녀왔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거의 매일 미리 준비한 세미나를 열어 사회와 역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조직적인 공동생활을 통해 인간관계를 다져갈 수 있었다.

연수회를 떠나기 전, 임 선배가 나에게 야영생활에 필요한 장비를 마련하려거든 학교 산악부 지도교수인 안재구 선생을 찾아가면 구할 수 있다고 소개해주었다. 그러나 당시 우리는 재정 상태가 비교적 넉넉해서 이미 장비를 임대로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안 선생을 만날 기회는 없었다.

이 무렵 나는 새로운 선배 몇 분을 만날 수 있었다. 3선개헌 반대 투쟁 때 제적당하여 군대에 징집되어 갔던 유정선, 정화영 선배가 2학기부터 재입학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옥을 다녀온 후 나는 여정남 선배와 자주 만나왔는데, 여 선배가 이강철 선배를 소개해주었다. 당시 이강철 선배는 대구백화점 9층을 통째로 빌려 큰 탁구장을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돈이 풍부했다. 나는 두 분 선배를 따라서 학생 신분인 나에게는 좀 분에 넘치는 요릿집을 다니며 이강철 선배와 얼마간 교분을 나눌 수 있었다. (황철식도 더러 자리를 같이 했다) 물론 돈은 이강철 선배가 썼고, 이후 이강철 선배는 전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었다.

1973년 여름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온 우리들은 학생회 선거로 바빠졌다. 앞으로 다가올 반유신항쟁과 학원민주화투쟁을 예상할 때 학생회 선거를 수수방관할 수 없었다. 우리는 총학생회가 가지는 학생대중에 대한 영향력과 직접 선거로 치루어졌던 각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가 제공하는 넓은 대중적 공간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학생회 선거를 통하여 많은 학생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 속에서 학원민주화와 반유신항쟁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도 있었다. 당시 총학생회장 선거는 소수 대의원들이 선출하는 간접선거였기 때문에 기성세대의 선거를 방불하게 하는 심한 타락상을 보이고 있었다. 물론 민주적인 학칙으로 개정하기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우리 선배들이 한때 학생회와 대의원회를 모두 장악했던 60년대 말, 민주적인 학칙 개정을 시도했지만 학교 당국의 완강한 거부로 성공하지 못한 상태였다.

대개의 후보는 기성사회의 정상배와 다를 바가 없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에 깊숙이 개입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학우들로부터 도매금으로 그들과 같은 취급을 당할 위험도 상존했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 수는 없었다. 우리는 보다 폭넓은 학우들과 연대하기 위해서 총학생회장 선거에는 직접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직접 선거인 단과대학 학생회장 선거에는 가능한 한 우리 후보를 내기로 하였다. 결국 총학생회장 선거에서는 우리가 지지한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었는데, 이는 이강철 선배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

그 후보는 한때 한풍회 회장을 해서 우리와 인연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ROTC 출신 후보보다 낫다고 판단해서 지원했던 것이다. 단과대학 선거에는 공대와 사범대에서 우리 후보가 출마했는데 사범대학에서만 당선되었다. 그러나 총학생회장 선거가 끝나고 우리들은 미리 약속한 대로 당선자와 합의해서 총학생회 학예부장과 사회부장에 황철식과 이광하를 추천해 학생처에 명단을 올렸으나, 당국이 인준을 거부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1973년 11월 5일, 반유신 항쟁의 깃발을 올리다

1973년 10월 2일, 세상 사람들이 유신 파쇼의 강압 아래 질식당할 것 같은 강요된 침묵이 흐르던 이 땅에 드디어 그 무겁던 정적이 깨어졌다. 서울문리대생들이 반유신항쟁의 첫 봉화를 올린 것이었다. 이미 지난 봄에 여정남, 임구호 선배가 서울을 다녀

왔고, 서울에서이철 선배 등이 반유신투쟁을준비하고있다는 소식을임 선배가나에게귀뜸을해준 적이 있었지만이렇게찾아올지는몰랐다.

10월 4일 경에는한 해 후배인강기룡이나의 자취방에찾아와서 서울문리대의시위사건을이야기하면서 “ 우리모두만 있을 수 있느냐”고 나의 생각을물어와 “ 좀기다려보자고” 대답해서 돌려보냈다.

그리고나서 하루 이틀 후 정화영선배가나를 찾아왔다. 정 선배는나에게반유신항쟁을조직할것을아주간결하게제안했다. 정 선배는배짱이세고 추진력이대단한분이었다. 나도정 선배의 제안을 두말없이접수하고그 자리에서곧 바로 역할을 분담했다. 당시로서는정 선배는재입학한지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학교 사정에밝지 못한 편이었다. 그래서학내 조직은주로 내가 맡아 한풍회원을중심으로설득하기로하고, 정 선배는 다른 일을 맡기로합의하였다.

그날 이후 나는 비밀을유지하기위하여엄격하게인물을선정해서그들과접촉하기시작하였다. 구속을각오한투쟁을해야 했기 때문에본인의결단이요구되는일이었음에도불구하고황철식, 이광하, 최재룡, 강기룡, 최문종 아홉 명의 동지들이쾌히 투쟁에동참하기로동의해주었다. 그리고이들 동지들도각각 일을 나누어맡아 잘 처리해주었다.

이 무렵 서울문리대시위투쟁이다른 대학으로파급되는것을 막기 위해 정보기관의사찰이한층 강화되어있었기 때문에 매우조심스럽게투쟁을준비해야만했다. 하지만우리는한풍회에 들어와있던 신뢰할수 없는인물들을어느 정도파악하고있었기 때문에보안을유지하는데크게 어렵지않았다.

나는황철식등과 함께 이강철선배와도자주 만나 의논하였다. 그리고정화영선배와나는여정남선배를몇 차례 만나 당시의 정세에관한 이야기를나누고 여 선배의 조언도 청취하였는데, 가을비가추적추적뿌리던날 밤 동인동어느 한적한대포집에서 만난 일과, 밤 안개가옅게 깔린 어스름달밤에달성공원에서 긴장되게이야기를나누었던일은 아직 내 뇌리에선명히 남아 있다.

이렇게시위 준비가착실히진행될즈음에자연발생적인반유신 항쟁의 기운이나타나기시작하였다. 한영남대생이 ‘ 통일혁명당목소리방송 ’을 청취해서자기 학교에다벽보를붙인 사건, 경북대도서관에유신독재를규탄하고궐기를선동하는벽보가 붙은사건, 일청담주변에전단이살포된사건 등이 연이어일어났다. 우리는이러한사건들을보면서 시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다고판단했다.

그러나10 · 2 서울대시위사건은나라 전체에엄청난충격파를 던졌지만, 한달이 다 가도록또 다른 충격을몰고 올 전국적인 시위투쟁은일어나지않았다. 71년가을 위수령때 학생운동에 가해진대대적인탄압의손실이아직 회복되지못했던것이다.

그리고73년 1학기에 있었던 고려대학생운동에대한 탄압(세칭 ‘NH회 사건 ’과 ‘ 검은9월단 사건 ’)의 손실도컸다. 과연 서울대생들이지펴 올린 항쟁의불길이단발성으로허무하게사

▲ 경북대학교전경

그러들고말 것인가아니면요원의불길이되어 전국적으로타오를 것인가는세상사람들의초미의관심사였다.

실제로 우리들에게이러한 교착상태를깨뜨려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다. 여정남선배는 " 서울에서한 동지가내려와서이러한 요구를했다"고 우리에게전해 주었다.

우리는서둘러 각기 임무를 분담해서구체적인준비작업에 들어갔다. 한때시내 중앙통일대에전단 살포를계획하기도했지만 역량 손실과 유신독재의반격을 우려해서취소되고, 우선 강기룡이단독으로시위투쟁에나서기로했다. 그래도비교적분위기가좋다는정치외교학과를중심으로시위투쟁을조직하기로 했던 것이다. 10월말 경에 시도된정외과중심의투쟁은교내에 진주하고있던 진압역량의신속한출동으로시위투쟁으로발전하지 못한 채 좌절하고말았다.

이것을지켜본우리는아직 학생 대중이폭압의공포에얼어붙어있는심리상태라고판단하고모든 역량을투입해서시위투쟁을 전개하기로최종 결정했다. 첫째초기 진압 역량을압도해서 반드시성공시켜야하고, 둘째최대한가장 격렬한시위투쟁을 일으켜서최대한가장 큰 충격을전국에파급해야만된다는 절박한이유에서였다. 그래야만교착되어있는 투쟁전선에돌파구가 열리고, 서울문리대학생들의시위투쟁을헛되이하지 않는다는생각이우리들의머리속을지배했다.

사실 이 무렵에시위투쟁을성공시킨다는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아니었다. 교내에상주하는사복경찰병력과교직원들의 신속하고기동성있는출동, 그리고곧 바로 교내로진입할기동경찰대와같은 진압 역량은말할 것도 없고, 유신의폭압 아래 극도로 위축되어있는 학생들의심리상태를감안한다면대담하고 치밀한계획이우리에게필요했다.

특히 우리는투쟁 초기에시위 진압역량을압도해서신속히 군중을모으고시위대열을편성하는과정이승패의관건이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유선 비밀유지에신경을세심히썼고, 시위투쟁의상식을벗어나는날짜와시간을선택했으며, 우리의역량을 한곳에집중하기로결정했다.

드디어시위일자와시간을1973년 11월 5일, 월요일, 오전10시로 정했다(이것은여정남선배가받아준날짜와시간이다) 이 선택은우리에게불리한측면도있었지만, 그동안주말까지바짝 긴장해왔던 정보당국이방심하기쉬운 때라는점이 우선 고려되

었다. 그리고 당시 학생이 가장 밀집해 있고 진취성이 강한 곳이라 판단된 교양과정부 건물에 역량을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준비는 착실히 진행되었다. 정화영 선배는 강동균, 장성백 등 몇 명과 함께 반야월 근방에 미리 구해둔 집으로 가서 선언문, 격문, 플래카드를 비롯한 각종 시위용품을 준비했고, 나머지 우리들은 수시로 만나 인원 동원 대책과 그 밖의 역할을 맡았다.

그 무렵 나에게는 약간의 고민거리가 생겼다. 임구호 선배가 나를 만나 '어떤 선배의 의견'이라며 시위투쟁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 의견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이었지만 너무 늦은 주문이었다. 이제 와서는 소용이 없는 일이었다. (사실 여정남, 정화영, 임구호 선배가 반유신 투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투쟁 이후를 계산해 나를 '이번 투쟁에 관여시키지 않도록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실행되지는 못했던 것이다)

11월 5일 월요일 오전 9시, 당시 교양과정부 4층 한 강의실에 40여 명의 학우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긴장된 표정으로 모여들었다. 이 자리에는 오지 않았지만 이강철 선배가 별도로 의과대학 등에서 약간 명을 동원해 주기로 했고, '현대사상연구회'라는 서클의 몇몇 간부들에게도 바로 그 시각에 긴급히 만나 협력을 요청해 두었고, 개별적으로 동보할 만한 사람들에게도 당일 아침 바로 그 시각에 만나 협력을 요청했다.

강의실에서는 자세한 영문을 모르고 소집된 후배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행동 준칙을 주지시켰으며, 준비물이 점검되었다. 소수 인원은 선언문과 격문을 가지고 다른 건물에 파견되어 있었다.

이윽고 10시 정각이 되자 편성된 조별로 각 강의실로 뛰어들어가 준비한 격문과 '경북대학교 반독재민주구국투쟁위원회' 명의의 '반독재민주구국선언문'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시위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강의실과 복도는 순식간에 선동연설과 구호, 인파로 어지러웠다. 4층에서 1층으로 과감하게 훑어 내려오면서 우리들은 당시 가장 중심지였던 로타리로 집결할 것을 학생들에게 호소했다.

그 판국에 공부한다고 자리에 앉아 버티던 일부 학생들에게는 의자가 날아갔고,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듯 강의실을 빠져나갔다. 내가 건물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교양과정부에서 로타리로 이어지는 몇백 미터의 아스팔트 길이 인파로 덮여 있었고 서서히 로타리 쪽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교양과정부 앞에서 한 후배(당시 1학년으로 괜찮은 후배였다)가 우리들을 비웃고 욕하던 철부지 학생 두어 명의 면상을 주먹으로 후려갈겨 주는 것을 목격하고(그녀석들은 기세에 눌려 반항도 못하고 얻어맞았다) 그를 한마디 나무란 후 로타리로 왔다.

그러나 학생들은 아직 시위대오를 갖추지 못한 채 웅성거리고만 있었다. 주동자들도 무질서한 많은 학생들 속에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무력한 소수가 되어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한동안 갈피를 잡지 못하는 듯하던 상황도 곧 수습국면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저기서 시위대열을 갖추자는 호소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조직적으로 동원하지 않은 학

생들 가운데서우리들보다더 열정적이고대담한선동가들이나왔다는것이다. 그들은이 절호의기회를놓칠 수 없다는듯 온몸을 던져 학생들에게호소하고있었다. 그러나쉽게 시위대열은조직되지않았다.

바로그때 근처 목조건조물(버스표판매소정도의규모로학교신문보급소)에서시뻘건불길이 치솟아올랐다. 그순간 ‘ 와 ’ 하는 학생들의함성이일시에터져 나오면서순식간에자발적인시위대열이형성되어갔다. 우리들중 누군가가휘발유를끼얹고불을 지른 것이 큰 효과를본 것이다.

이제는시위 주도자의선창에따라 학생들이구호를외치기시작했다. 바로이때 몇몇 교수들이달려와서시위를말리기시작했는데그들은 당황해서제정신이아닌 듯 했다. 사범대학학생과장은시위대열앞을 막아서다범같은정 선배와우리들에게떠밀려땅바닥에내동댕이쳐졌고, 노기등등하여소리소리지르며우리를질책하던김영희 총장(그는박정희의사범학교동기동창이었다)도별 수 없이 비켜서야만했다.

그러나 대부분의교수들은멀찍이 비켜서서말없이 우리들을 바라보고만있었다. 아직은경찰이 출동하지않았기 때문에우리는아무 거리낌없이 ‘ 박정희물러가라라는 현수막을앞세우고 후문을향해 곧장 행진해갔다.

유신헌법철폐, 민주헌법제정, 민중생존권보장, 민족자립경제 수립, 노동삼권보장, 언론 · 출판 · 집회 · 시위 · 결사의자유 보장, 학원자유보장, 통일논의의자유 보장, 김대중납치사건진상규명, 중앙정보부해체 등의 구호를계속 외치면서앞으로나아갔다.

시위는선두에200 300명이 스크럼을짜고그 뒤를 많은사람들이우글우글따라가는형세였다. 주변연도와언덕배기에는구경꾼으로인산인해를이루었다. 오늘하루 학사행정은완전 공치는날인 것 같았다. 내느낌에는선두가너무빨리 전진하는것같아 걱정이었는데, 그들은학교 후문 가까이 다가가자구호를외치며달음박질로도청 쪽으로뛰어갔다. 자연후미는뒤로 처질 수밖에없었다. 이윽고선두가학교에서1km 정도 떨어진도청 정문 앞 교량(도청교)를건너는데, 방금도착한경찰기동대가다리 한가운데에포진하기시작했다. 더이상 전진이불가능하자선두 시위대는학교로되돌아왔다.

그리고나서 시위대는후문 부근에서기동경찰과대치하는가운데황철식의주도 아래 농성과성토를계속했다. 한참후 시위대는다시 로타리로행진을시작했고, 그숫자는한때 천 여명으로 불어나기도했다. 그러나이 무렵 시위 주동자들은학생들틈에 섞이면서학교를빠져나가기시작했다.

로타리로돌아왔으나더 이상 시위를 이끌어나갈주도자들이 없자자연 열기가식고 흐름이끊어졌다. 사진을찍던자칭 신문기자가학생들에게붙잡혀카메라를빼앗기는소동이한 쪽에서는 벌어지기도했다. 최재룡과몇몇 학생들이나와서만세삼창을 하고 시위를마무리한다고선언했다. 그렇지만시위에참여했던 학생들은한 동안 로타리주위를좀처럼떠나려하지 않고 삼삼오오모여 수군거리고있었다. 그들과마찬가지로나도 아쉬웠다. 원래 우리가구상하고기대했던것에는미치지못한 점이나앞으로의일 때문이었다.

그날, 대구의매일신문석간 사회면4칸 짜리 시사만화옆에는 우리들의시위투쟁에관한 기사가4 5단으로취급되었는데, 활자가듬성듬성뽑혀지고지워진채 알 수 없는 내용으로실려 있었다. 평상시에는있을 수 없는 이런 기사는세인의주목을끌 수밖에없었다. 그리고이튿날동아일보는1단 기사로우리의시위사건을짧막하게보도했다. 그런데해외에서는일본 언론들이 시위 사실과선언문의요지를보도하여우리들의투쟁을비중있게 다루어주었다고한다.

또 여정남선배에의하면, 우리들의 ‘ 반독재민주구국선언문 ’은 시위를하루 이틀 앞두고서울로보내어졌고, 11월5일에 있은 재야인사들의시국선언발표를자극하였다고한다.

그리고여기서한가지짚고 넘어가고싶은 것은 우리들이내세운 투쟁구호중 ‘ 유신헌법철폐하고민주헌법제정하라는 주장은 이후 반유신투쟁의중심적인고리로등장한다는사실이다.

우리들의시위투쟁은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면서전국에 퍼져나갔다. 유신독재는즉각 대구북부경찰서의정보과장을직위해제시키고30명의 전담 수사요원을확보하여 경찰서에 ‘ 수사본부 를 차렸다는신문보도가나왔다. (나중에들은 바에 의하면서울에서도수사요원들이내려왔다한다)

서울문리대시위투쟁후, 강압적인언론통제로쉬쉬하던그들이 이렇게공개적으로신속한반응을보인 것은 사태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로우리들의전격적이고기습적인투쟁에 뼈아픈타격을받았다는것을 의미했다.

학교는벌집을쑤셔놓은듯이 되어 많은 학생들이연행되어 조사를받았고, 이과정에서이강철, 신유균, 강기룡, 최문동지가 구속되었다. 그리고정화영 선배와황철식, 이광하, 최재룡 등 다수가수배되기에이른다.

나도 당일 학교를빠져 나와 피신 길에 올라야했다. 그날오후 나는 고등학교1년 선배로당시 영남대에다니던김광택선배의 자취방으로찾아갔다. 그는고3 때 학생회장을했는데삼선개헌 반대 시위를주동했다가퇴학을당해 대학 진학은우리와같은 해에 했다. 준비가없는 선배에게무리라는생각을했지만영남대를 부탁하고싶었고, 그곳에서잠시 피신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기위해서였다.

선배는나를 반갑게맞아주었다. 이튿날대낮에나는 모습을 약간 변장해서후배 정영순(그녀는이번 투쟁에나서지않았다)을 만나기위해 학교 부근을찾았다. 그러나온통 학교주변은사복경찰로깔려 있었다. 후배의얼굴만보고 미행하는경찰을골목에서따돌리고돌아올수밖에없었다.

그 선배 자취방은오래 있을 곳이 못되어곧 바로 나는 유형종을 찾아가서몸을 의탁했다. 그는당차고눈치가빠른 친구였는데, 선배들때부터 적극적으로운동을 도와왔던사람이었다. 그의 주선으로나는 안전한피신처를구할 수 있었고, 또한그는 적극적으로나를 도와 무슨 일이든처리해주었다.

나중에들은 이야기지만정화영선배는당일 도청 부근 큰길에서 시위대열을빠져 나와 지나가는택시를잡아타고내달렸는데, 동태를감시하고있던 사복경찰들도잇달아택시를잡아타고 전조등을켜고 경적을울리면서정 선배가탄 택시를추격했다고

한다. 다행히택시운전사의적극적인협조로정 선배는자신이 지리를잘 아는 지역으로경찰들을유인해서택시에서내리자마자 미로같은골목길로뛰어들어가그들을따돌리고역시 안전한 곳으로피신하였다고한다.

강동균과장성백은시위 이튿날나를 찾아오려다가학교 부근에서경찰의불심검문에걸려 연행되었으나, 그들의한여 정도를 알지 못했던경찰은그들을곧 석방해버렸다는소식도들려왔다. 이런일을 보면 ‘ 수사본부도’ 상당한기간 허둥지둥하고있었던 것 같았다.

나는 피신하는동안 학교소식을알기 위해 사람들을찾아다니다가몇 차례 경찰과조우해서검거될뻔한 위기를맞기도했으나 임기응변과주위 사람들의도움으로용케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들은팔을 뻗으면닿을 눈 앞에서나를 놓치곤했다. 수배기간에임구호선배, 이광하, 최재룡(그는나의 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자취를 같이 했는데, 수배기간에는과외선생으로 변신해있었다)과도다시 만나게되고, 두어번 피신처를옮기기도 했다. 당시는몰랐지만여정남 선배는연속 시위투쟁을하자고 나를 애타게찾은 모양이었으나연결이되지 않았다. 이일로 임 선배가여 선배에게질책을당했다한다.(확실하지않지만내가 임 선배를만나기전에여 선배가나를 찾았을가능성이높다)

그러나이 투쟁으로그 동안 교착되어있던 투쟁전선에돌파구가 뚫려 전국적인반유신항쟁의불길을타오르게한데는결정적으로기여했지만, 경북대학교의학생운동조직이모두 드러나서 이제부터가문제였다. 향후지속적인활동을조직할믿음직한 사람을묻어놓지못한 것이 걱정이었다.

당시 이 문제를우리들이고려하지않았던것은아니지만우선 적당한인물이부족했고, 그밖에도사정이있어 실행에옮기지 못했던것이다. 이러한잘못은80년대 초기까지의경북대학생운동에좋지 못한 영향을미치게된다.

11월 하순이되자 반유신투쟁의불길은다양한형태로전국의 주요 대학에서타올랐다. 한차례 폭풍이몰아쳐간 경북대학교에서도교내에 남아있던한풍회원들과민주화를열망하는학생들의 노력으로총학생회가움직여지고격렬한 시위가 불붙기 시작했다.(이 무렵 사범대여학생부장이었던유진숙, 한풍회1학년 회원인 박명규, 역시한풍회원인교양과정부부회장 정영순 등이 큰 활약을했다)

연일 많은 학생들이시위투쟁에참여해서경찰과 투석전을 벌였다고한다. 여학생들도많이 참여했는데, 한여학생은시위도중 머리가터지는부상을입기도했다고들었다.

12월 초가 되자 계속 확산되어가는 전국적인학생시위투쟁에 유신독재는휴교령과종강으로대처하면서한발 물러나10월 2일 이후 시위와관련되어구속, 수배된모든 학생들에게사면조치를 단행했다. 따라서구속되었던서울대 · 경북대학생들이석방되고수배 학생들의수배도해제되었다.

민청학련사건, 그리고 여정남 선배를 잃다

방학을맞이한 대학가의반유신 시위투쟁은일단 휴면기에

들어갔다. 그러나뒤이어학생들의투쟁에고무된애국적각계인사들의유신헌법철폐운동이벌어지기시작했다. 1973년12월 하순 함석헌, 장준하, 백기완선생 등 재야인사30여 명이 헌법개정청원 100만인서명운동본부를발족시켰고, 여기에통일당, 학계, 성직자등이 합세했다. 1974년1월 7일에는이희승, 이호철, 백낙청 선생 등 61명의 문인이서명한개헌지지발표가있었다.

이렇게 유신헌법철폐운동이각계로확산되어가자 박정희는 권력을내놓고물러날것인지, 아니면자신의권력을유지하기 위해 더 강력한폭압에매달릴것인지를선택해야할 기로에서게 되었다.

결국 박정희는새로운폭압을선택했다. 1974년1월 8일, 유신독재는긴급조치1호라는흉기를들고나와 민주화를열망하는국민들을위협하기시작했다. 곧바로장준하, 백기완선생에게 긴급조치1호 위반이라는죄명을씌워 징역 15년을 선고하는군사재판을벌였다. 엄동설한의긴장된정국이조성되었다.

당시 나는 가족이라야연세 많은 어머니뿐이었는데, 일시고향집에서머물다가걱정하시는어머니를두고 대구로떠날 때는 마음이몹시 무거웠다. 그러나투쟁을중단할수는 없었다. 조심조심 동지들과앞으로의문제를상의해나갔다. 이무렵여정남선배는 정보당국의감시를피해 집을 나와있었던것으로기억난다.

다가오는봄에는 유신독재와의한판 승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우리는지난 가을 시위투쟁이지녔던고립분산적인투쟁의 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각 지역의주요 대학과연대를하기로 했다. 서울과의연결은아마 여정남선배가주선했을것으로 짐작되며, 이강철선배가나섰다. 우리는서울대와연결을맺고 대구지역다른 대학에도민주학생을찾아내어연계를맺으며, 부산대에도연락을취하기로했다. 그 무렵 이런 문제와앞으로의 투쟁에관한 논의는주로 이강철, 정화영선배, 황철식과나 4명이 해나갔던것으로기억된다. 간혹여정남 선배를만났던것 같다.

74년 2월, 대구근교강창에서우리들은서울에서내려온유인태 선배, 김재규, 전홍표를만났는데, 이자리에는이강철, 정화영, 황철식, 나네 사람이참석했다. (유선배는71년 정진회에서 주최한4·19기념 토론회때 대구에와서 하루 전날 여정남선배와협의를한 후 토론회는참석하지않고 급히 돌아간적이 있다고한다)

여기서유인태선배가주로 서울지역의정세를알려 주었고, 우리는대구쪽사정을그들에게알려주었다. 또, 이자리에서는 전국주요 대학간의연계문제와다가올투쟁에대한 대강의의견교환이이루어졌는데, 대학간의연계문제는서울·중부지역은서울대가, 영남지역은경북대가, 호남지역은전남대가각각 맡기로 하고, 다시이들 3개 대학이별도로만나서서로 협의한다는것이었다.

그리고개학 후 일정 기간 역량을확대한후 동시다발적인 대중적시위투쟁을위주로투쟁을전개하되학생운동의상당 부분이 정보당국에노출되어있는 점을 고려해서지나치게시기를 늦추지않는다는등의 의견일치가있었다. 물론추후 논의를계속해 나가기로했다.

그후 나는 이강철선배를따라 부산으로내려가김재규선배(김 선배는71년 정진회가주최한4 · 19기념 토론회에도참가한 적이 있다)를비롯한부산대학생들을만나 향후 학생운동에대한 논의를하고 서로 긴밀히연대할것을 합의하고돌아왔다.

우리는새로운투쟁을준비해나가는과정에서지난 가을 투쟁에 헌신적으로싸운 새로운 인물들을적극적으로인입하려고 힘썼을뿐만 아니라대구의다른 대학과의연계도백방으로노력했다. 그러나당시 그들 대학에서는준비된 조직이 없어 성과를 기대할수가 없는 실정이었다.

한편 투쟁이준비되어가면서나는 정기적으로주로 대전 등지에서서울대의황인성, 전홍표, 전남대의윤한봉, 김상윤선배와 만나 협의하고결과를선배들에게보고했다.

기억이확실하지않지만아마 이 무렵을전후해서나는 지난 가을 투쟁 때 혜성처럼나타나서우리의관심을모았던사람, 바로 윤규한을박명규(당시그들은1학년에불과했다. 그리고박명규는75년 이후 많은 활동을한다)의소개로만났다. 당시누군지 알 수 없었던윤규한을만나기위해 박명규에게찾아보라고부탁해 두었는데, 좋은결과가나왔던것이다.

윤규한은11월 5일 시위투쟁에도참가해서우리들보다오히려 더 잘 싸웠고, 그리고우리들의투쟁에앞서 자기 친구인정용화 남매와함께교내에벽보를붙이고전단을살포하는등 독자적인 투쟁을했던 것이다. 만나자우리는단도직입으로이야기가통했다. 한마디로그는의식, 품성, 능력면에서훌륭한재목으로성장할 가능성을충분히가진, 우리가오랫 동안 찾아 헤매던사람이었다. 그와의만남이1 2년 전에만이루어졌다면나는 기꺼이 선배들에게말씀드려그에게뒷일을맡기자고제안했을것이다.

유진숙은이 무렵 나와의접촉은없었던것 같다. 그러나그는 가을 반유신투쟁에참여한전국의여학생들중에활약이컸던 ‘ 3여걸의 한 사람으로회자되기도했던 것으로기억된다. 또 이 무렵 나는 김진규와도의기투합해있었다.

이 시기에여정남 선배가 서울로 떠났다. 지금기억으로는 비산동쯤인것 같은데, 검정색물감을 들인 군용 야전점퍼차림에 빨간색 마후라를목에 감은 여 선배는나와 잠시 만나 길을 걸으면서 “ 서울로간다 ”고 말해주었다. 그리고는 “ 건투를빌다 ”는 격려의말과 함께 나의 손을 굳게 잡아주고떠나갔다. 결국이 만남이여정남선배와의마지막만남이되고 말았다.

우리는새로운투쟁을준비하면서여건이작년 가을보다많이 악화되어있다는것을 느꼈다. 먼저, 11 · 5 시위투쟁을통하여 경북대학교학생운동세력이정보기관에대부분노출되어버렸던 것이다. 절대권력자의고향인 대구에서의가을 시위투쟁은 그들에게뼈아픈정치적타격을주었으므로사건 후 유신독재는 전력을경주해서우리들을추적 · 감시 · 와해공작의표적이 되어 있었다. 주변의학생들이불려가서회유와협박을당하고 왔다는소식이꾸준히들려오는실정이었다.

손바닥들여다보듯빤한 형편에서우리들의활동은매우 제약될 수밖에없었다. 또, 비록일시적이긴하지만유신독재가긴급조치1호라는흉기를휘두르자많은 사람들은놀라 움츠려들었던 것이다. 그들의의도와공작은적지 않은 성과를거두었음

이 서서히현실로나타나기시작했다.

이러한사정은정도의차이는있을지몰라도전국적인현상이었을것이다. 그러나우리는이러한변화된정세를진지하게고려해서대책을세우지는못했다. 지난투쟁의성과에도취되는경향도없지않아있었다.

선배들사이에도심각한의견대립이있었던것 같다. 당시여 선배에게서조금 들은 바도 있었지만, 훗날 ‘ 남민전준비위원회 ’ 활동을할 때 서울에서이재문선생에게도그때의상황을지나가는이야기로들은 바가 있었다.

아무튼 우리는유신독재가날카로운발톱을감추고반격의기회를노리고있다는것을 알면서도투쟁을포기할수 없는 운명이었다. 당시의역사적조건에서봤을 때는 유신독재와의대결을 그 시기, 그방법말고달리선택할자유가우리에게는없었는지도 모르겠다. 다가올역사를위하여……

3월 초순이지나자우리는자진해서3월 18일에 시위를하겠다고 대전 모임에서서울대와전남대동지들에게통보했고, 그들도 이를 받아들였다. 물론주된 투쟁은서울에서벌어질것으로예상하고, 그들도우리가먼저 도화선에불을 당길 것을 원했다.

그러나3월 18일의 시위계획은누설된것 같아서21일로 연기하기로하였다. 우리는제2의 ‘ 반독재민주구국선언문 ’ 준비했다. 그리고시위계획을구체적으로짰는데, 시위주동자를1선과 2선으로나누고1선이 투입되는시위에는노출을염려하여2선은 소극적인방조만하고, 1선도역량을한 곳에 집중하지않고 여기저기나누어배치하기로하였다.

이것은더욱 불리해진정세를제대로읽지못하고과욕을부린 나머지역량의집중이아니라분산을초래했던것이다. 이렇게 분산된힘을가지고는긴급조치의시퍼런칼날에잔뜩 움츠러있는 학생대중을투쟁의 현장으로불러낼수가 없었다. 반면에상대방은가을에당한수모를만회하기위해만반의준비를하고 있었다. 나중에안 일이지만내 가까이에도정보원을박아두고 있었다.

3월 21일 시위 주동자들은참으로무력한존재가되어 계획과 달리 시위투쟁은실패하고만다. 바로그날부터검거선풍이 불었다. 한사람 한 사람 체포되기시작했다. 나와몇몇 학우(이들 가운데정보원으로변절한한 인물이있었다)는시내 고등학교들에유인물을살포하기도했지만, 며칠후에 내가 유신독재의함정에빠져 검거되고, 나의잘못으로정화영 선배가 체포되는 것으로경북대학의시위투쟁은사실상종언을고하게된다.

훗날큰 교훈이되었지만지금도나는그때의일을생각하면 부끄러움을금할 수 없다. 우리를검거하기위해 그들은집요한 작전을펼친 것 같았다. 대구에는이미 중앙정보부6국 부국장과 간부들이내려와서직접 수사를 지휘하고있었다. 나는그들이 우리 사건을단순한시위사건이상으로다루고있다는느낌을직감할 수 있었다. 우리는3월 말 서울로압송될때까지중앙정보부 경북지부에서혹독한심문을받았다. 이때까지는주로 경북대 시위사건자체에수사가집중되었다.

그러나서울에서시위가터지기시작하자13명을 추려서서울구치소로압송했다. 이제부터본격적인수사와고문이우리를

기다리고있었다. 초기에잡힌 우리들에대한 수사의초점은대체로전국조직, 배후, 사회주의, 폭력혁명으로옮아갔다.

우리가지옥을헤매고있던초기에긴급조치4호가선포되었다. 이조치는유신체제를반대하는사람들에게최저5년 이상의유기징역형에서최고사형에까지처할 수 있는흉기였다. 수사의압박은정 선배와나에게집중되었다. 정선배는불굴의투혼으로 잘 견뎌냈고, 나는정 선배의그늘이있어잘 견딜 수 있었다. 그들은남산 중앙정보부지하에서물고문, 몽둥이질과같은고문을 동시에또는번갈아가며거의매일되풀이했다.

그리고가끔 황철식을불러내어무엇이나올까봐두둘기는 것 같았다. 서울과의연계도대구에내려왔던서울 상대생이자수해서전말을실토하기전까지는우리 입에서나오지않았다. 배후도우리 입에서는끝까지나오지않았다. 하루는나에게6국장이와서 “ 배후를불면24시간안에석방시켜주겠다는” 약속아닌 약속을했다. 내대답은 “ 없다였다. 생각컨대우리는먼저잡힌 죄로 더 고생을한 것같다.

여정남, 이강철선배가잡혀오고, 5월에접어들어이른바인혁당 관계자들에대한 수사가본격적으로진행되자우리들에대한 조사는그 무렵 뜸해졌다. 이후가끔 불려나가조사를받았는데 그 무렵에는이미 검사가작성해야하는 공소장이제멋대로미리 완성되어있었다. 그엉터리 ‘ 공소장의’ 공소사실과일치되게 경찰조서를날조하는작업이거꾸로진행된것이다. 그때의핵심 내용은사회주의폭력혁명을시도했다는것이었다.

(당시는알 수 없었지만) 재판을며칠 앞두고어느 날 나는다시남산 중앙정보부로끌려나갔다. 형식적인검사의조서작성이 시작되었다. 내가사회주의혁명을시도했다는것을부인하자수사관은지하실로끌고가서전기고문을시작했다. 검사는볼펜을 만지작거리며멍하게 눈만 씀벅씀벅하고있는 꼭두각시였다.(훗날그는국회의원까지해먹었다)

며칠 후 살벌한분위기속에서군사재판이시작되었다. 총1,024명이조사를받고그중253명이 기소된가운데먼저54명이1차로 비상보통군법회의재판을받았다. 이54명을 유신독재는22명의 ‘ 인혁당 ’ 관련인사와32명의 ‘ 민청학련 ’ 관련인사로분리해서재판을진행했다. 여정남, 정화영, 이강철선배는나와함께 민청학련사건에속했고, 임구호, 이현세선배는인혁당관련으로 분류되었는데, 군복무중 검거된이현세선배는별도로단독 군사재판을받게되었다.

나머지사람들도그후 속속 기소되어재판을받게되었는데, 경북대학생운동가들의최종 형량은여정남사형, 이강철 · 정화영 · 임구호 · 임규영징역15년, 황철식징역10년, 이광하 · 장성백 · 강기룡 · 윤규한 · 김진곤징역7년, 이현세징역5년 등이었다.

비상고등군법회의가끝나자1차 기소된우리들은사형, 무기를 선고받은분들을남겨두고안양교도소로이감을가게되었다. 이감가던날 나는정남이형이 있는방으로달려갔지만간수들의제지로안부인사도제대로하지 못하고떠나야했다. 이것이선배의얼굴을마지막으로본 순간이었다.

정화영, 이강철, 임구호선배와나는 사형선고를받은 선배들을고려해서대법원에상고를하기로했다. 나는안양교도소에

서 반년 정도 갇혀 있다가 75년 2월 17일 정화영 선배와 함께 '형집행정지처분'이라는특별사면으로옥문을나서게된다. 이때도 이재형, 임구호, 이강철 등 많은 선배들을옥중에남겨두고나오게 되는 아픔을겪게 된다.

출소하자마자정 선배와 나는 서울구치소로달려갔으나면회금지로선배들을만날 수 없었다. 면회접수처부근에서인혁당 관련 가족분들을만났는데, 그분들도면회가 금지되어있었다. 우리는그분들을위로하고선배들에게영치물을넣어드린후, 그동안 우리들을변호하느라애쓰신 인권변호사인홍성우 선생께 가서 감사의인사를드렸다.

그해 4월 8일 긴급조치7호가 선포된후, 정화영 선배와나는 4월 9일 안양교도소로연행되는고속버스차내에서여정남선배를 포함한여덟 분의 전격 사형집행소식을라디오를통해 전해듣고슬픔과분노에몸을 떨어야했다.

4·9, 한 세대를 넘어

● 림 구 호

*림구호는 민청학련 사건시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학내 후배들의 운동을 지도하다가 구속되었다. 중앙정보부가 1973, 4년 대구지역 민주화운동 선배들과의 교류를 고문 조작, 소위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엮이게 되어 8년의 감옥살이를 했다. 현재는 '민생경제와 시민정치를 위한 포항연대'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1. 사건명

긴급조치위반등
(반국가단체명 인민혁명당재건단체사건)

2. 관련자

▲ 인혁당관련 - 24명

사형(7명) : 서도원, 도예종, 우홍선, 이수병, 송상진, 하재완, 김용원

무기(7명) : 이태환, 유진곤, 전창일, 이성재, 김한덕, 나경일, 강창덕

징역 20년(4명) : 정만진, 이재형, 조만호, 김종대

징역 15년(4명) : 전재권, 황현승, 이창복, 림구호

징역 5년(2명) : 장석구(옥사), 이현세

▲ 민청학련 관련 - 1명

사형(1명) : 여정남(집행) → 인혁당경북지도부학원책

▲ 남민전 관련 - 1명

사형(1명) : 이재문(옥사) → 인혁당경북지도부교양책

3. 지역별 구성(당시 거주지)

▲ 서울지역(11명)

우홍선, 이수병, 김용원, 전창일, 이성재, 김한덕, 장석구, 김종대, 유진곤, 황현승, 이창복

▲ 경북지역(15명)

서도원, 도예종, 송상진, 하재완, 나경일, 강창덕, 이태환, 전재권, 정만진, 이재형, 조만호, 임구호, 이현세, 여정남, 이재문

4. 관련 피의자 신상 개요

서도원 : 1923. 3. 28 경남창녕군대합면신당리184번지출생
주소: 대구시동구범어동600-17번지
진주고보졸, 대구매일신문기자, 청구대학동양사강사, 동 대학 학생과장, 민주민족청년동맹위원장, 1956·혁명재판7년형2.7년 복역, 민족자주통일협의회, 민주수호경북대구협의회, 경락연구회, 침구사(자격증), 한의사), 1974. 4. 8 사형확정, 4 · 9 형집행.
(경남창녕군대합면신당리선산)

도예종 : 1924. 12. 25 경북경주시서악출생
주소: 대구시서구성당동138번지
대구대학경제학과졸, 동 대학 경제학과강사,

영주군교육감당선(1960년), 민주민족청년동맹 간사장, 민족자주통일협의회, 1차 인민혁명당사건(당수) 3년형, 민주수호경북(대구)협의회, 삼화건설 회장
1974. 4. 8 사형확정, 4 · 9 형집행.
(대구시북구현대공원묘원)

우홍선 : 1930. 3. 6 경남울산시언양읍동부리130번지출생
주소: 서울시은평구갈현동281-149번지
학도의용군육군대위예편, 통일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장, 민족자주통일협의회, 1차 인민혁명당사건 1년형(집행유예), 민족통일촉진회, 경락연구회, 골든스템 감사 무이사, 1975. 4. 8 사형확정, 4 · 9 형집행.
(일산공원묘원)

이수병 : 1938. 4. 17 경남의령군부림면손오리866번지출생
주소: 서울시은평구응암동74-3번지
부산사범, 의령갑을초교교사, 경희대경제학과졸업, 경희대학생민족통일연맹위원장, 민족자주통일협의회
1961. 9. 30 5 · 16 혁명재판 15년형.
1967. 8. 15 감형 석방 7년 복역, 민족통일촉진회.
1971. 9. 경락연구회, 삼락일어학원 감사.
1991. 3. 2 이수병선생기념사업회 발족.
1991. 4. 17 사월혁명상추서(사월혁명연구소).
1992. 4. 6 『암장』(일대기) 출간
1975. 4. 8 사형확정, 4 · 9 형집행.
(경남의령군부림면신반리구산부락뒷산안장)

송상진 : 1928. 10. 30 대구시동구백암동574번지출생
주소: 대구시남구대봉동590-62번지
대구사범, 대구대학 경제학과졸업, 대구공산초등교사, 1960년 교원노조활동, 민주민족청년동맹 총무국장, 1차 인민혁명당사건 연행 무혐의석방, 민족자주통일협의회, 민주수호경북대구협의회, 양봉업
1975. 4. 8 사형확정, 4 · 9 형집행
(대구시북구현대공원묘원)

하재완 : 1931. 1. 10 경남창녕군이방면안리출생
주소: 대구시서구성당동290번지
1950 57년 중사 제대, 1960년 민족자주통일협의회 참여, 민주수호경북대구협의회, 건축업
1975. 4. 8 사형확정, 4 · 9 형집행
(대구시북구현대공원묘원)

김용원 : 1935. 11. 10 경남함안군군북면수곡리21번지출생
주소: 서울시영등포구방화동583-11번지
서울대물리학과졸업, 동대학학생민통련
1961년 5 · 16 혁명재판부와 1964년 1차 인민혁명당사건 연행조사후 석방, 경기여고교사
1975. 4. 8 사형확정, 4 · 9 형집행
(경남함안군궁복면덕대리안장)

여정남 : 1945. 5. 7 대구시중구전동23번지출생
주소: 대구시동구좌동81번지
경북고졸업, 경북대정치외교학과 4년 수료, 한일회담

반대시위주동 제적, 정사회3기, 1971년 정진회필화사건 구속, 1972년포고령위반 구속, 제적총3회
1975. 4. 8 사형 확정, 4 · 9 형집행
(대구시북구 현대공원묘원)

장석구 : 1927. 9. 19 서울 출생
단국대정치학과졸업, 평화신문, 한국일보(대구지사장) 대구일보, 영남일보, 민족일보, 대구매일신문사 역임, 2대 악법 반대 전국공동투쟁위원회 기획실무위원, 한일회담반대전국공동투쟁위원회 중앙간부, 자강학회 운영위원, 남북공예사대표
1974. 6. 14 구속5년형, 1975. 10. 15 서대문구치소옥사
(일산공원묘원)

이재문 : 1934. 7. 9 경북 의성군옥산면전흥리출생
주소: 대구시남구 봉덕동
경북대정치외교학과졸업, 영남일보, 대구매일신문, 민족일보 기자, 통일민주청년동맹, 민족자주통일협의회, 1차 인민혁명당사건 구속, 민주수호경북(대구)협의회 전부장, 2차인민혁명당재건단체사건 관배,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사건 구속(1979. 10)
1980. 12 사형 확정, 1981. 11. 22 서대문구치소옥사
(인천백석천주교회묘지)

이태환 : 1924. 3. 30 대구시북구 서변동921번지 출생
주소: 대구시동구 신천동892-9번지
대구공고토목과, 일본법제대학통신학교졸업, 경주건천초교, 대구수창초교교사, 청구대학법학과, 대구 제1회교감시험합격, 연합신문기자, 측량설계사, 합자회사 경북정지사대표, 문학가동맹사건(1949년) 국가보안법 위반(3년형, 2년6월 복역), 민족자주통일협의회, 민족자주통일대구경북협의회, 조국통일민족연합남측본부
1974. 4. 8 무기징역확정, 1982. 3. 2 징역20년 감형
1982. 12. 25 형집행정지특별사면석방
(대구시북구 영경동산23번지)

전재권 : 1927. 10. 12 경북 상주시신봉동출생
주소: 대구시중구 대신동115번지
60년 전후 국가보안법위반(5년 복역), 동아일보대구주재 기자, 60년사회당, 통일민주청년동맹, 민족자주통일협의회, 민주수호경북대구협의회, 민주통일운동연합, 양복옷감 도매상
1974. 4. 8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형 확정
1982. 3. 2. 형집행정지특별사면, 1986. 5. 7 병사
(대구시동구 진인동산 19번지 안장)

유진곤 : 1937. 5. 4 경남김해시진량면청천리569번지 출생
주소: 서울시마포구서교동369-17번지
부산사범졸업, 울산신암국교교사, 김해연구소, 대산목재사 사장, 1974. 4. 8 무기징역형확정, 1982. 3. 2 징역20년 감형, 1975. 12. 25 형집행정지특별사면, 1988. 5. 5 병사
(경남김해시주촌면원지리낙원공원묘원)

정만진 : 1940. 2. 10 만주 흑룡강성출생
주소: 대구시남구대명동1591-6번지
대구대법학과졸업, 민주민족청년동맹, 민족자주통일협의회, 2대악법반대투쟁위원장, 학생민통련, 5·16혁명재판 15년형, 1차인민혁명당사건, 민주수호경북(대구)협의회, 민자통대구경북협의회, 영남민주동문회의장, 전국대학민주동문회의장, 사월혁명연구소
1974. 4. 8 징역20년 자격정지15년 형 확정
1982. 3. 2 형집행정지특별사면
(병사로경남창녕군대합면정영리선산안장)

이재형 : 1939. 1. 22 경북영천시창구동26번지출생
주소: 경북영천시매산동1번지
경북대정치외교학과졸업, 통일민주청년동맹, 민족자주통일협의회, 경북대학생민통련, 맥령, 정사회, 1971년 월 정진회필화사건관련연행, 삼성전자영천대리점사장, 사월혁명연구소, 경북민주동문회
1974. 4. 8 징역20년 자격정지15년형확정,
1982. 3. 2 형집행정지특별사면, 2004. 12. 21 병사
(대구시북구현대공원묘원)

조만호 : 1935. 2. 21 경남의령군화정면호정리525번지출생
주소: 대구시중구삼덕동2가 184번지
민주민족청년동맹, 1차인민혁명당사건, 학교도서보급상, 1974. 4. 8 징역20년 자격정지15년 확정, 1982. 3. 2 형집행정지특별사면

이성재 : 1929. 9. 27 : 서울시중구도동1가 3-28번지출생
주소: 서울시중구도동1가 3-28번지
서울대정치학과, 숙명여대, 서울농대강사
1955년 범인은닉죄(징역1년형), 사회대중당중앙집행위원, 5·16 혁명재판징역5년형, 자강학회, 민족통일촉진회, 경락연구회, 지압사, 헤나다이민
1974. 4. 8 무기징역형확정, 1982. 3. 2 징역20년 감형
1982. 12. 25 형집행정지특별사면

전창일 : 1928. 11. 18 함경남도북청출생
주소: 서울성북구석관동332-637번지
북청공업고졸업, 민족자주통일협의회, 자강학회, 민족통일촉진회, 극동건설의공부장, 조국통일범민족연합측본부, 평화통일연대
1974. 4. 8 무기징역형확정, 1982. 3. 2 징역20년 감형,
1982. 12. 25 형집행정지특별사면

김한덕 : 1932. 3. 1 부산서구아미동2가 77번지출생
주소: 서울시마포구망원동66-13번지
사회대중당, 민족자주통일협의회, 블랙리스트조업,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측본부(상임의장), 평화통일연대, 1974. 4. 8 무기징역형확정, 1982. 3. 2 징역20년 감형, 1982. 12. 25 형집행정지특별사면

나경일 : 1930. 12. 7 일본규슈나가사키출생
주소: 대구시동구신천동900번지
일본8번고졸업, 제일모직노조위원장, 노동조합대구시

연맹,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 민주수호경북대구협의회, 민족자주통일대구경북협의회, 노동, 조국통일민족연합 남측본부, 평화통일연대
1974. 4. 8 무기징역형확정, 1982. 3. 2 징역20년 감형, 1982. 12. 25 형집행정지특별사면

강창덕 : 1926. 11. 30 경북 경산시하양면금락동633번지 출생
주소: 대구시수성구범어동267-15번지
대구상고, 경북도경경사, 서상일 · 문종두국회의원위경관, 경북진량중고교사, 영남일보, 대구매일신문기자, 사회당, 민족자주통일협의회, 민주수호경북대구협의회, 민족자주통일대구경북협의회, 열린우리당대구시당고문, 1974. 4. 8 무기징역형확정, 1982. 3. 2 징역20년 감형, 1982. 12. 25 형집행정지특별사면

김종대 : 1936. 3. 23 경남 진주시동선동239번지 출생
주소: 서울시은평구불광동1-119번지
부산사범졸업, 교사, 삼락일어학원원장, 사월혁명연구소, 1974. 4. 8. 징역20년 자격정지15년 확정, 1982. 3. 2 형집행정지특별사면

이창복 : 1938. 10. 19 황해도평산군문무면문구리178번지 출생
주소: 서울시도봉구번동437-1번지
서울대철학과학 · 석사, 민족화합운동연합사
1974. 4. 8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확정
1982. 3. 2 형집행정지특별사면

황현승 : 1935. 4. 29 충남 당진군대호지면도계리558번지 출생
주소: 서울시용산구보광동10-52번지
당진농고, 서울대철학과졸업, 광신상업고등학교교사
1974. 4. 8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확정
1982. 3. 2 형집행정지특별사면

림구호 : 1948. 6. 25 경북 포항시장기면임중리출생
주소: 대구시수성구수성동1가 32-9번지
경북대물리학과졸업, 삼선개헌반대(무기정학), 정사회회원, 정진회, 한풍회관여, 민주수호경북대구협의회, 10월유신포고령위반(징역6월 1년간 집행유예), 민주통일민중운동경북대구연합, 민족자주통일대구경북협의회, 전민련대구경북조국통일위원장, 사회운동연구소(제2대소장), 국민연합대구경북본부공동대표, 공안통치종식을 위한대구 · 경북본부공동의장, 대구지역페놀사태규탄 집시법위반(벌금30만원),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운영위원, 현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회장
1974. 4. 8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확정
1982. 3. 2 형집행정지특별사면

이현세 : 1949. 5. 19 대구시다사면부곡리168번지 출생
주소: 대구시가창면용계리92번지
경북대수학교육과졸업, 정사회, 정진회, 71년정진회필화사건구속제적, 학원강사, 재경민주동우회, 민주화운동관련명예회복,1974년 4월 구속5년형,1979. 6. 28 만기출감

5. 재판과 수사 가담자

▲ 대법원 판사

민복기(대법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기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창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 보통군법회의

- 인혁계: 재판장 박현식(중장)/ 심판관 이희성(소장), 권종근(판사), 김진석(검사)/ 법무사 신복현(중령)
- 민청학련계: 재판장 박희동(중장)/ 심판관 신현수(소장), 박천식(판사), 김태원(검사)/ 법무사 김영범(중령)
- 법정서기: 조규철, 김권욱

▲ 고등군법회의

재판장 이세호(대장)/ 심판관 윤성민, 차규헌(소장), 문영극, 박정근(판사), 정태균(검사)/ 법무사 채진우(대령)/ 법정서기 김호영

▲ 검찰관

문호철, 이규명, 송종의, 이근일, 전세붕, 이원무, 강철선, 정상용, 이인수, 백광현, 조태형

▲ 검찰서기

이상대, 김강진, 김태근, 이석순, 김봉수, 정일균, 승원재

▲ 중앙정보부

정보부장 신직수, 6국장 이용택, 6국계장 윤종원 등

6. 경 과

▲ 현재 상황

26명 중 10명 생존, 16명 사망(사형집행 8명, 옥사 2명, 병사 6명)

▲ 사건일지

- 1974년 4 5월 구속
- 1974년 6월 15일 긴급조치(제2호) 특별군사법정에 재판 개시
  7월 11일 제1심 선고공판
- 1974년 8월 22일 항소심 개정
  9월 7일 제2심 선고공판
- 1975년 4월 8일 대법원 선고공판
  4월 9일 8명 전격 사형 집행
- 1982년 3월 2일 특별사면
  (무기수는 20년형으로 감형, 유기형은 형 집행 정지 석방)
- 1982년 12월 25일 형집행정지 특별사면, 남은 6명(무기수) 석방

• 1988년 3월 2일 잔형면제특별사면
• 1998년 3월 형 종료 후 10년 경과(자동복권)

▲ 사건대책

• 1975년 1월 6일 신구교 주한외국인선교사 60인 대통령, 대법원장에게 무죄 탄원
• 1989년 4월 9일 4 · 9통일열사추모제(대구지역 경북대 대강당)
• 1991년 3월 2일 이수병선생기념사업회 발족
• 1993년 11월 3일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창립
• 1994년 4월 9일 민청학련사건 20주년 기념식 및 인혁당추모제(서대문독립공원)
• 1998년 11월 9일 인혁당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결성(이돈명, 문정현 공동대표, 김형태 집행위원장)
• 2001년 3월 17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장석구 옥사사건 직권조사개시
• 2001년 12월 7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
• 2002년 9월 12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장석구사건 최종조사결과보고서 발표
• 2002년 12월 10일 서울형사지방법원에 인혁당 7인, 민청학련 1인 (서도원, 도예종, 우홍선, 송상진,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여정남) 재심 신청

• 2003년 11월 24일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제1차 재심 심리
• 2001년 12월 7일 『사법살인 1975년 4월의 학살』
2003년 11월 3일 『실록민청학련 1974년 4월』 제1권
2004년 3월 1일 제2권
2004년 10월 15일 제3권
2005년 4월 9일 제4권 발간

▲ 국가정보원 과거사청산 7대 과제(05.2.3 오충일위원장)

▲ 경찰청 과거사청산(2005. 3. 22 이종수 위원장)
민청학련, 인혁당사건 채택

7. 유죄 내용

① 자생적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반국가단체조직 (국가보안법 위반)
② 인민혁명전략에 기초한국가변란획책 (내란예비음모)
③ 인민혁명당재건을 위한 경북지도부학원책인여정남이 수행한(?) 민청학련의 조직과지도 (긴급조치1, 4호 위반)

8. 정치사회적 배경

① 부정과 부패공화국

김지하씨의 담시 「오적」이 고발하듯 " 될것도 절대 안돼, 안

될 것도 문제없어!'하는 식의 정 · 경 · 관유착에빚어낸만신창이 '복마전박씨왕국,' 기업은망해도기업가는흥청망청하는부정부패의시대!'

② 부실과 불법공화국

1970년 3월 17일 정인숙피살사건과4월 8일 와우아파트붕괴사건, 1972년 8월 3일 기업사채동결조치— 부실기업의파산을 막기 위해 개인 사유재산에대한 일방적 강탈조치, 1967년7월 8일 동백림사건과1973년 8월 8일 김대중 납치사건을자행하여 대일 진사사절(김종필)을파견하는등 국제적범죄단체로국가위신을 추락시키고한국정부는고립되는불행을자초

③ 권력기반의 축소와 불안정 확산

삼선개헌과10월유신으로민주정치적리더십상실과1971년 대선후유증으로 '영남지역정권화,'경제개발정책의실패와오일쇼크로빈부격차심화와정치불안→ 1969년 4 · 8항명파동, 1970년 9월 29일『사상계』등록취소, 1971년9월 28일 사법파동, 10월 2일 공화당항명파동, 12월6일 국가비상사태선포, 1972년8 · 3 기업사채동결, 10월17일 국회 해산과비상계엄선포(10월유신), 1973년 4월 28일 수도경비사령관윤필용사건(내부권력투쟁), 8월 8일 김대중납치사건, 10월중동전과오일쇼크등

④ 7.4 남북공동선언과 월남 패망(1975. 4. 30)

냉전 반공이데올로기의위기 → 지배 이데올로기의해체와 변화라는시대적국면에직면하여지배세력의동요와불안 증대

⑤ 민주 민중세력의 저항 증대와 조직화

1969년 6월 삼선개헌반대학생시위의전국적확산, 1970년 6월 2일 오적 필화사건, 11월13일 전태일열사분신, 1971년4월 19일 민주수호국민협의회결성, 8월10일 광주대단지민란, 23일 실미도사건, 10월15일 교련반대시위와위수령발동, 1972년7월 4일 남북공동성명, 1973년10, 11, 12월 유신헌법반대학생시위와 조기방학, 12월개헌청원100만인 서명운동돌입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1호, 1월 14일 긴급조치3호, 4월 3일 긴급조치4호 발동과민청학련사건, 9, 10월유신반대학생시위 전국적격화, 10월 24일 동아일보기자들의자유언론실천선언, 1975년 2월 12일 유신헌법찬반국민투표, 3월13일 김지하씨 구속(고행－1974), 4월8일 긴급조치7호(고려대학) 발동, 4월11일 서울농대김상진열사할복 의거, 5월13일 긴급조치9호 발동

9. 사건진행

① 대통령 박정희의 긴급조치 1호(1974년 1월 8일), 4호(1974년 4월 3일) 발동으로유신헌법에대한 비판과반대행위는 물론 전달과동조 등 일체의행위 금지

② 긴급조치2호(1974년 1월 8일)로비상군법회의설치 : 2호 제10항은 "중앙정보부장은비상군법회의관할사건의정보, 수사, 및 보안업무를조정 · 감독한다"로 규정하여, 중앙정보부장이 '1차

수사와 검찰조사 및 재판과정까지 장악하는 전대미문의 법적 근거 마련

③ 反박 反정권 인사에 대한 예비검속과 신병확보: 서도원, 도예종, 정만진, 우홍선, 김금수, 박중기

④ 1974년 5월 27일 사건 최종발표 후 협박과 구타, 고문에 의해 발표문에 맞추어 사후 검찰관 피의자심문조서 작성

⑤ 중앙정보부 6국(조사실-지하실)에서 검찰관 피의자조서 작성, 사법경찰관들에 대한 중정요원들의 감시와 압박(6국 윤종원 계장의 박재명 수사관에 대한 구속 협박: 이덕삼 수사관의 문사위 증언)

⑥ 半공개, 일방통행식 재판: 가족 1인과 국방부 출입기자 일부만 방청(기자, 개인기사 없음), "예, 아니오"식 문답만 허용

⑦ 피의자 법정진술을 기록한 공판조서를 조작: "그런 사실 없습니다"를 "그런 사실 있습니다"식으로, 검찰조서의 임의성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공판기록 변조(의문사 조사위에 당시 법정서기 이○○ 증언)

⑧ 변호사와 가족들의 접견금지: 대법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가족접견은 금지되었고, 1심재판 때 변호사들은 피고인의 접견은 물론 공소장조차 교부받지 못하였음(여정남 피고인의 변호인 강신옥은 변론중 법정구속까지 되었음)

⑨ 제2심 법정(재판장 이세호)은 인정심문과 선고공판만(2회) 개정하고 일체의 사실 및 법률 심리를 회피하고, 피고인의 최후진술 기회조차 박탈하였음. 당시 대법 공판 시 이일규 대법관은 "양형이 다른 판결을 한 점은 사실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한 재판절차에 위법이 있고, ……원심판결을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이를 심리미진이라 하여 '소수의견' 제기

⑩ 1975년 대통령 연두순시 때 각 부처에 사실홍보 지시: 당시 유신정권의 성격과 대통령의 권한으로 판단할 때 정당성이나 사실성에 상관없이 일방통행식으로 강행될 수밖에 없었으며, 대법원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여 민복기 대법관의 충견 행위를 위한 정비작업에 일조

⑪ 조지 오글 목사와 제임스 시노트 신부 추방, 김지하 시인 구속: 「고행·1975」에서 고문사실 폭로를 반공법 위반으로, 재심과 석방운동 참여를 문제삼아 두 성직자 강제추방(한국 현대사에 다시 없는) → 양심적 지식인과 종교인의 침묵 강요

⑫ 대법원 기각 판결(1975. 4. 8) 후 20시간 안(1975. 4. 9 새벽)에 8명의 사형집행 완료: 4월 8일 사형장 청소, '세계사법사상 암흑의 날'(국제법학자협회), 야만적인 살인행위(국제사면위원회), 처형된 8인은 구속된 후 가족접견조차 없었음, 유언의 조작성(종교행사 거부: 8인 모두 일치시킨 유언 기록)

⑬ 시신(송상진) 탈취와 훼손: 대구로 향하던 영구차 차체를 견인차로 탈취(저지하던 문정현 신부 고관절 골절상)하여 화장한 후 가족에게 인계

⑭ 법률적 위계질서와 법 앞의 평등 원칙 무시와 파괴: 경합법(긴급조치 4호, 국가보안법, 내란예비음모, 긴급조치 7호, 반공법) 중 가장 경한 법인 반공법(7년 이하의 형) 위반자와 학생이 아닌 일반인만 석방에서 제외하여 형을 계속 집행(인민혁명당재건단체사건 관련자와 민청학련 관련자 중 이현배, 유인태, 이강

철, 김효순, 그리고 일반인인 박재필, 추영현, 오종상, 김양수)

⑮ 관련자 가족들의 공개재판 요구와 석방운동에 비인간적 탄압을 계속하고(1982년 석방 때까지), 구속자들에 대한 특별수용(격리독방생활)과 출소 후 감시와 사찰 계속(1993년 경까지)

10. 사건 조작 지휘 : 유신 대통령 박정희

일반적으로 ‘ 인민혁명당재건단체사건’은 중앙정보부가 고문에 의해 조작한 사건을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 사법살인극을’ 자행한 만행으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의문사조사위원회의 발표와 관계자들의 증언 및 당시 전개된 상황을 토대로 재구성해 볼 때, 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 박정희에 의해 기획되고 연출 · 집행된 정치적 학살극이었음이 너무나 자명하다.

(1) 긴급조치 1, 4호 발동에 즈음한 담화문에서 대통령 박정희는 “ ……북한공산주의자들의 각종 도발행위 등으로……(1974. 1. 8), “ ……인민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상투적 방법으로 으레 조직하는 소위 통일전선의 초기단계적 지하조직을 우리 사회 일각에 형성하고 반국가적 불순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는 확증을 포착하기에……(1974. 4. 3)하는 내용, 즉 공산주의자들의 ‘ 인민혁명 수행론’으로 유신헌법 반대운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문사위 조사에서 증언한 사법경찰관, 검찰서기, 검찰관 물론 중정 팀장(계장) 윤종원의 “ 수사 중 문수사나 사전정보는 물론 조직구성의 물증은 일체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과 완전 대립하고 있다. 일선수사 정보라인이 피고인 자백 외에는 갖고 있지 않은 지하조직 정보를 박정희는 어떻게 미리 확보했으며, 왜 수사과정에 제시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상투적인 반공 정치언사에 불과한 시나리오였는지?

(2) 긴급조치 2호 10항은 “ 중앙정보부장은 비상군법회의 관할 사건의 정보, 수사 및 보안업무를 조정 · 감독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민청학련 · 인혁당사건의 경우 정보부장(신직수)이 수사하고 재판한 반민주 만행의 극치를 보여준 대통령 긴급조치권의 실상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삼권분립 원칙이 원천적으로 부정된 긴급조치 2호에 의한 긴급비상군법회의는 당시의 상황과 권력구조로 볼 때 결국 정보부장이 아니라 대통령 이 전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였다.

(3) 인민혁명당재건단체사건 수사과정에서 중앙정보부 관계자들은 끊임없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거나 접수하고 있었다. 이는 의문사조사위에서 증언한 관계자들이나 중정 간부(이용택 6국장)의 언론 인터뷰에서 확인되고 있다. 중앙정보부 윤종원 계장, 사법경찰관 이덕삼, 손중덕 경사 등은 위문사위 조사에서 “ 하달된 박정희의 친필서명 문서를 확인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으며, 당시 이용택 국장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직접 청와대에 가서 “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고 2002년 11월 18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증언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보부장 신직수와 대통령 박정희의 만남까지 계산한다면 청와대 박정희의 개입과 역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깊숙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4) 대통령박정희는1975년 4월 8일 대법원판결이내려지기도 전에정부각 부처를총동원하여유신정권의운명을걸고 인민혁명당재건단체사건의 정사실화작업에들어간다. 1975년2월 각 부처 연두순시에서특히 법무부와문화공보부를독려 ‘ 사실홍보 ’를 지시한다. 이에대법원장(민복기－친일법관출신)은신년사에서 “ ……나라의통일과번영을이룩하기위해서는정치권력의구조가가장 집중적, 효율적이어야한다는것이 유신헌법의본질인 이상 사법권의존재양식또한 이에 발맞추어야함은 당연한귀결이다…… ”고 부화뇌동하자김종필(국무총리), 황산덕(법무장관) 등은적극나서 협박과탄압 및 사실왜곡을자행한다.

“ 악법도법이다. 공개재판요구와그 언급조차반공법위반으로 다루겠다(1975. 2. 24),” “ 인혁당은1962년 1월에 남파된김상한이조직한지하당이다(1966년? 동해안에서미 OSS첩보선으로 월북－김종길변호사의법정증언) ” 등사실상 ‘ 인혁당유죄화 를 위한 대법 재판전사전정지작업에정부의운명을건다. 비판적이고양심적인지식인과종교인들을침묵시키기위해 1974년 12월 6일 조지 오글 목사 추방, 1975년3월 13일 김지하시인 구속, 1975년4월 30일 제임스시노트신부 추방 등의 조치는당시 국내외적인파괴력을고려할때 대통령의사전재가없이는불가능한탄압행위라판단된다.

(5) 대법원 선고판결이열린 1975년 4월 8일 서대문구치소 사형장 청소가지시 · 실시되고, 국방부장관(서종철)은대통령의 재가를얻어 4월 9일 새벽 처형을감행하게된다. 그리고구치소를 나와 대구로 향하던 영구차(송상진)는경찰에의해 견인차로 강제 탈취되어화장 후 유골만유족에게인계된다.

이에 대해 이일규(당시대법판사) 전대법원장은 “ 보통원심에 기록이송부되는데도 최소한며칠은걸린다… 바로 사형된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상식적으로이해할수 없는부분… ”(한겨레 2005년 4월 7일)이라고말하고있다. 사형집행자체가대통령의 재가 없이는불가능한일이지만, 이렇게신속하게시신 화장까지 감행된전대미문의기록적인사건은대통령박정희자신이 직접 진두지휘하지않으면집행될수 없는 학살극이라고단정할 수 있다. 대법원(판결문등 기록송부), 국방부(군사법원기록 수령, 대통령재가), 법무부(사형준비와 집행), 내무부(경찰동원 감시와 시신탈취및 화장), 중앙정보부(정보보안업무조정) 등 정부각 부처가유기적인협력과신속한집행을수행하기엔너무나 많은걸림돌들이현실적으로존재한다.

그러므로이는 대통령박정희가직접 진두지휘하여먼저 집행하고, 사후행정처리한것으로보거나, 아니면사전 짜여진시나리오에따라 살인극이자행되면서부분적으로사후 보완된것이라고판단할수 있다. 당시대법원판결에참여했던한환진판사는 “ 8명의처형과이일규대법관의원심파기내용의소수의견 ”에도 불구하고2002년, 28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 처음으로판결문을 읽어 보았다 ”고 증언하고있다(2002년 11월 18일 오마이뉴스). 이는 인간의보편적인경험법칙상판결문이작성되기도전에 대통령의일방적인명령에따라 처형이먼저 집행되었다고유추할 수밖에없다.

유신정권의절박한위기상황을모면하고일인영구집권을안

정적으로구축하기위해, 유신헌법개정운동을 “ 통일전선의제하 조직에의한 인민혁명전술 ”의 반공논리로매도하고,“ 정치기반의 축소와영남지역정권화를획책 ”하기 위해 저항하는 ‘ 영남지역 민주인사들을 제거하면서, 부실과부패의 경제사회현실에 대한 민중저항을 ‘ 긴급조치시대 ’로 타개하려고유신 살인독재자 박정희는국가 시스템을모두 동원하여사법학살극을저지르게 된다. 이는긴급조치1 · 4호 발동, 수사 · 정보 · 재판에개입, 정부독려사실홍보, 성직자추방과김지하구속, 황급한처형과시신 탈취, 화장등의 만행을생각할때 의심의여지가없는 대통령 박정희자신이자행한반민주적, 비인간적불법 범죄행위이다.

많은 종교인, 지식인, 민주인사들이유신독재긴급조치시대의 엄혹한공포사회의압박에도불구하고, 공개재판과재심, 구속자의 석방과신원을 기도의 정성으로, 탄원서의형태로, 저항의 성명서로30년에 걸쳐 줄기차게쉼없이실천하며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아직도유신독재의사슬에얽매여버둥거리며진실에 목말라하고있다. 이는우리들의과거사청산과진실규명노력이 ‘ 중앙정보부 → 법원 → 청와대(대통령)’의 사슬 중 초기단계인 중앙정보부에머물러있기 때문이아닐까판단되어진다. 이제라도우리들의질문과답변을청와대와대통령으로집중할때, 작지만구체적이고확실한성과를기대할수 있지 않을까?

11.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의 성과

(1) 유죄의 유일한증거인 ‘ 검찰관작성의피의자심문조서 ’가 협박과구타, 전기와물고문에의해, 중앙정보부의사전 시나리오에따라 강제 조작되었다는사실을밝힌 점이다. 이는당시 수사에참여하였던사법경찰관들과피의자들을호송 감시하였던 교도관들의증언에서상당 부분 확인되어졌다. 또한중부경찰서로 기록된경찰 및 검찰 조사장소는실제 중앙정보부6국에서이루어졌고, 5월27일 최종발표후 발표문에따라 피의자심문조서를 일방적으로작성하면서조사일시를허위 조작한사실을밝혀냈다.

▲ 증언자

사법경찰관: 박재명, 신흥수, 전재팔, 이덕삼, 나갑열, 손중덕

검찰 서기: 이원무, 이상대, 김강진, 김태근

교도관: 이정희, 전병용, 이택모, 김상곤 등

(2) 피고인들의법정진술이공판 후 반대로조작, 기록되어졌다는사실이다. 공판조서에는피고인들이 “ 예, 그런사실이있습니다 ” 또는 “ 자유스런분위기에서담배도피우면서조사를받았습니다 ”고 기록되어져있다. 그러나이러한사실은피고인들의 항소이유서나상고이유서와대립되고, 법정에참여하였던변호사와 교도관들의증언에서도부인되고있다.

1심 공판서기(이○○)는의문사조사위조사에서,“ 공판조서는 공판 후에 작성 …, … 당시 관행은아니었습니다 ”고 진술하고 있다. 유일한법적 증거물인 ‘ 피의자심문조서의의성을 성립시키기위해 공판조서를조작하는천인공로할전대미문의살

인범죄를유신정권이국가권력을이용하여조직적으로감행하였음을증명했다.

▲ 증언자

변호사: 김종길, 함승헌, 박승서, 함정호, 황계룡, 윤의준

교도관: 김광식등

(3) 인민혁명당재건단체사건은처음부터끝까지대통령박정희가직접 기획하고진두지휘 · 집행한사법살인극임을증명하는 단서들을확인하였다. 중앙정보부남당계장윤종원과사법경찰관 이덕삼등은 "당시이 사건과관련하여박대통령의서명이 담긴 문서를직접 목격한사실이있습니다"고 증언하고있다. 또 위 윤종원은 "피고인들의자백 외에아무런물증이없음"을 시인하고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대통령박정희는1974년 4월 3일 긴급조치4호 선포에즈음한담화문에서 "…인민혁명을수행하기 위한… 소위 통일전선의초기단계적지하조직… 확증을포착하기에이르렀다"고 대국민 선언을 하고, 일선수사과정까지 개입하고있다. "주 2회 대통령에게보고하고재가를받았다"는 중정 6국장 이용택의증언(오마이뉴스인터뷰, 2002. 11. 18)과 1975년 대통령의각부처 연두순시에서 '사실홍보를'지시하고, 성직자들을추방하면서4월 8일 대법원판결이나자마자바로 처형을 명(재가)한대통령의통치행위는이 사건의모든 열쇠가유신권력의일인 독재자에게있음을증명하고있다.

그러므로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의조사결론을중심으로판단할때, 인민혁명당재건단체사건의진상규명은대통령과청와대가 바로 핵심 당사자임을부인할수 없다. 오히려중앙정보부와 대법원은직접당사자에서비켜서있음을알 수 있다. 30년의세월이 지난 지금 민족의평화 번영과함께 한국사회의2대 화두가 되고 있는 과거사청산은그 핵심과제중에서사법살인의인민혁명당재건단체사건이매우 중요한표지석이되고 있다. 반공분단체제와친일잔재, 개발독재와민주주의, 부패타락한권력과자유와 정의의인간주의가첨예하게대립한이 사건을정상적인역사속으로되돌리기위해서는대통령과청와대가직접 나서야한다. 당시 기록들을공개하고, 각부처나기관의결과들을모아 대법원이 재심이란기능을통해 치욕의과거를청산하고희망의내일을 약속하게해야 한다. 아니면강제로라도나서게해야 한다.

12. 과거사 청산과 인민혁명당 재건단체사건

이제 우리는평화와번영의공동체를건설하여21세기로힘차게 진군할것인가, 아니면역사의뒤편으로팽개쳐진히틀러의 나치처럼모든 희망을접고 고통에찬 신음과절규를토하며어둠 속으로사라질것인지, 어느한쪽운명을선택해야한다.

이 시대적과제는 '3대과거사청산'에서 시작하지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절통한아픔과회한의남북분단60년, 중앙과지방의 제국주의와식민지상태, 영호남의분열과대립, 강남과강북의 독점과소외의 '2:8 양극화사회' 등한국사회가허우적거리고 있는 역사적현실은, 청산하지못한 과거사가갈등과혼돈

의 근원적인동인으로기능하고있다는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어느 시대, 어느사회나크고 작은 갈등과대립이존재하고 있지만, 대부분보다 진전된사회발전을위한 역동적인에네르기로 기능한다. 그러나남한사회가안고 있는 분열과대립의파괴적인 메커니즘은 ‘ 3대과거사의 성격 그 자체에서기인하고있다. 이는 ‘ 과거사청산 을 회피 또는 반대하고있는 수구세력—한나라당과3 · 5 · 6공정치경제적세력의사회적성격과방어논리에서 남한사회가처한 역린의현실을확인할수 있다. 조선왕조멸망 이후 권력과부, 사회적지위를세습적으로독점해온 ‘ 친일숭미 사대주의집단 ’으로 규정될수 있는 이들은 ‘ 일제잔재청산를 통한 민족정기회복 ’과 ‘1950년 통일전쟁전후 학살된양민들의 명예회복,’‘ 군사독재정권에의한 학살과의문사에대한 진실규명 ’ 등의절박한고통과맺힌 한들에대해 철면피하게도,

첫째, 경제사회적안정화 논리를 전개하고있다. 경제도어려운데지난 일들을들추어내자는것은 귀신 씨나락까먹는소리쯤으로 치부하려한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지사는학자들에게 맡겨 역사적평가 정도로도충분하다고떠들고 있다. 이는 경제적잉여의불공정배분이바로 불안과갈등의근원적인원인이었음을인류역사가보편적으로평가하고있다는사실조차외면하는청맹과니들의궤변에다름 아니다.

둘째, 분단현실과북핵의 냉엄한상황논리를펼치며회피하려 하고 있다. 특히 ‘ 반북반김, 친일숭미사대세력들은 분단현실의 반공전선이초래한불가피한 ‘ 애국적행위 ’에 대한 좌파적집단의음모론으로3대 과거사청산을규정하려하고 있다. 한승조, 조갑제, 지만원등 사대광인들과미일 분단 시스템은비민주반인권의혁혁한 공로자들을동원하여 ‘ 원로선언 ’이란 행태로 과거사청산법제정과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한 반대전선에노추들의 시위대열을과시하고있다.

셋째, 권력과부, 사회적지위를세습적으로독점해온 구태의연한메커니즘의보호 유지에만올인하고있다. 평화번영의남북현실을반북반김의분단대결로, 대륙세력과해양세력의화해협력을 해양세력의일방주의로, 자주적이고평화적인한미관계를 종속적이고냉전적인구질서에속박하려는 ‘ 친일숭미사대집단 ’의 집요한책동은 ‘ 박정희신드롬 ’과 영남패권주의, 신자유주의 침탈에의한 양극화와경제사회불안 등의 조건을악용하여독점왕국의보호장벽건설에매진하고있다.

미국의패권적일방주의와해양세력과대륙세력의폭력적갈등을넘어, 친일숭미집단의반민적범죄행위를청산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민족공동체, 자유와정의의인간공동체를우리는건설해 가야 한다. 네티즌들로표현되는새로운 ‘ 수평적인시스템으로 기능하는전면적인변화 ’의 대세는이미 잘못된 ‘ 과거잔재와 수직적인구조 ’에 연연하는경향에대해 값비싼대가를지불하게 하고 있다. 그 사회적 비용은너무 크다. 그러므로우리는 순리에따른 과거사청산을통해 희망의기틀을건설해야한다.

(1) 시민의 경제사회적 공동체

양반 사대부의 조선왕조 멸망 이후 한국사회는 친일매국세력의 독점기 36년에 이어, 숭미사대세력의 황금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들 집단은 부와 지위를 세습적으로 독점하면서 특히 개발독재의 특권과 특혜를 이용하여 확대재생산에 성공함으로써, 2:8 양극화사회의 근원적인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IMF와 신자유주의는 재벌가와 대기업, 상층부의 축제 속에 신빈곤층의 자살행렬로 극단화되고 있다.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비인간적 상황과 반사회적 비용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동종 또는 이종간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같은 것이 확립되고, 경제잉여의 배분이 사회적 도덕성을 확보하는 체계와 이데올로기가 건설되어야 한다.

계급, 계층, 지방과 중앙, 지역과 직업, 세대와 인종간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의 뿌리를 과거사 청산을 통해 원천적으로 바로잡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모두가 동의하고 때론 존경할 수 있는 부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창출하여 선의의 경쟁과 피땀의 성실을 사회발전의 중심 메커니즘으로 세워내야 한다.

(2) 민족의 정치문화적 공동체

분단된 남한사회는 3세대에 걸쳐 추악한 범죄세력이 정치권력을 재생산해가는 역설의 연속극을 상영해왔다.

항일 민족세력과 반독재 민주세력은 철창의 감옥에서 고문의 비명을 죽이며, 손가락질 당하는 이단자로서 단역배우처럼 천민화되어왔다. 경상도에서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실재하는 황당한 현실인 ‘박정희신드롬’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친일숭미적인 사대논리가 메이저신문과 일류대학교단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회, 40년에 걸친 억압과 수탈의 고통을 강제하고 도전쟁의 죽음과 60년에 걸친 분단의 피눈물을 뿌리게 한 것으로도 모자라 매년 100억불이 넘는 이익을 만끽하면서도, 독도를 빼기들 영토라고 생떼를 부려도 미국 눈치 때문인지 작은 응징조차 하지 못하는 얼간이가 되어 있다. 민족의 존엄과 개인의 자유의지가 온전하게 만나는, 매국과 사대가 단역 같은 조연이 되고, 평화와 번영이, 핵주권과 영토주권이 민족의 순결한 자주성으로 개개인 가슴속 깊이 간직되는 문화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

(3) 개인의 자유와 존엄의 공동체

항일은 불령선인, 반미는 빨갱이, 정의는 불순분자로 몰아세워 체제적으로 억압 제거하는 메커니즘이 남한사회를 오랫동안 지배 통치해왔다. 친일독재와 군사파시즘 형태의 이러한 한 세기에 걸친 사회환경은 개인의 자유와 양심은 물론 생존권까지 위협함으로써 인간의 소외와 방황을 구조화시켰다. 이민과 국적포기, 황금과 쾌락의 물신화, 기복신앙과 한탕주의, 지역감정과 맹목성, 천박한 냄비근성 등 남한사회의 구정물 같은 현상들은 모두 ‘외세와 상부의 반민주 비인간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특히 유신독재시절, 긴급조치 통치가 유언비어, 금지곡, 금서, 막걸리 반공법 등으로 우리들의 참삶을 짓뭉개면서, ‘타락한 배부른 돼지의 일상’만 허용되었을 때 발병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성의 파괴와 상처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실재하는 고통이다.

그러므로우리는올바른 ‘ 과거사청산 ’을 통해 개인들의피폐한 마음들을치유하고, 희망과연대의관계들을건설하여 ‘ 와야할 세상 ’으로 진군해야한다.‘ 평화와번영, 자유와양심 ’에 대답하지 못하면 경제적 풍요와 안락에도불구하고혼란과몰락의 늪 속으로빠져들수밖에없는 운명이인류역사의교훈이다.

개인의 자유와 존엄의 공동체, 시민의경제사회적공동체, 민족의정치문화적공동체를건설하여, 평화와번영의시대를열어가려는우리들의간절한열망은3대 과거사청산을더 이상 회피할수 없는과제로밥상 위에 올려놓고있다. 이러한시대적당면과제를수행함에있어서 사회경제적이익증진과개인생활의 확대보장을담보하는정치문화적체계화는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과거사청산이나민주개혁또는 평화통일의엄중하고숭고한과제까지도 ‘ 보다나은 생활공동체건설 ’에 화답하지못할 때, 역사적 당위성은물론 현실적설득력을상실하기때문이다. 사회불안과 경제회복을핑계로한 가해자들의훼방논리가역사적평가 운운하며집요하게행사되었다는사실을 재삼재사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진실과화해위원회의과거사청산 작업은,

첫째, 1949년6월 4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이승만정권의경찰 쿠데타같은반민족적범죄행위는물론, 친일매국노들에대한국가서훈, 4 · 19, 5 · 18가해자들에게수여된훈장과 포상이지속되는철면피한현실로귀결되어서는안된다.‘ 건국과 반공 ’ 논리로포장되어 ‘ 항일애국과민주적양심 ’에 가해졌던, 아직도강변되고있는 범죄의 정당화는단호히 척결되어야 한다. 개인의양심적행동과시민사회의가치관에더 이상 혼란과 왜곡이자행되는비극은이제 끝나야한다.

둘째, 김형욱, 김재규, 김대중사건과 같은 개인적이고특별한 사람들의문제가아닌 보다 일반적이고보편적인개인과시민들이 경험한고통과원망에집중하여출발하지않으면안된다. 특별한 사건은특별한조치로치유가가능하지만남한사회가앓고 있는 질병은이제 그런 차원을달리하고있다. 그러므로네티즌들이나호사가들의냄비끓듯하는 흥미거리로요리되는 ‘ 개인적 특별한과제 ’들이 아니라,‘ 진실과화해 ’를 통해 한 세기에걸쳐 누적된개인의불안과공포가시민사회의민주적제도와기능에 의해해소되는전기가마련되어야한다.

셋째, 사대매국과살육, 고문과억압의가해자들과그 범죄행위는국가와사법체계에의해 특권과특혜까지반민주적으로 보호되어왔다. 그러므로 ‘ 사법부는사법행위로서 참여하여민주적으로재편될수밖에없다. 사면과복권, 보상과같은 정치행위만이아니라 ‘ 재심 ’과 같은 사법행위로과거사청산이수행되고, 이러한과정을통해 사법부가민주적사법체계를창조적으로 건설하여시대적사명에동참해야한다. 여기에법과 질서가 ‘ 독재와 외세의통치관리형태 ’가 아닌 ‘ 시민사회의민주적제도 ’로서그 가능성을열어갈수 있는축복이깃들게된다.

1974년의 인민혁명당재건단체사건은 과거사청산의 대상으로서 모범적인전형을 구성하고있다. 친일매국숭미사대집단(박정희패거리)이반공이라는색깔 공작의 상투적 방식(인민혁명전술의통일전선지하조직론)으로스스로 자유민주적질서를

부정하고(유신독재), 사회적 진실 파괴(사건조작, 공판조서 변조)와 개인의 양심까지 유린(고문과 구타, 억압)하여 8명의 생명까지 빼앗은 사법학살의 악행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나 일제의 731부대의 인체실험과 그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그들은 단죄당하기는커녕 오늘 이 순간에도 부와 명예를 ‘신드롬의 형태로, 명예훼손의 판결로 당당히 누리고 있다.

이는 ‘사건의 특별한 처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면적인 청산과 개혁을 통한 새로운 민주질서 확립이 아니면 무의미한 해프닝으로 종결될 수밖에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

“……사건의 피해세력은 조작되어진 소수이자 다수의 국민대중들이었지만, 사건의 주모세력은 국가권력에 둘러싸인 한국사회의 기득권 세력들이었다. 사건의 주모세력들은 굴종할 수 있는 다수를 선택하기 위해 굴종하지 않는 소수를 학살하였지만, 굴종할 수 밖에 없었던 다수 역시 국가권력에 의해 목숨만을 유지하는 간접적 학살을 당한 것이다.……,” “……국가권력의 폭력으로 자행되었던 역사적인 과거의 사건은 현실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실의 사건은 또한 미래에 바라볼 수 있는 역사적인 과거의 사건이 될 것이다. ……(김영수 〔정치학 박사, 외대 강사〕 ‘인혁당 재건단체 사건의’ 역사적 재조명과 현대사적 의의)

위 지적처럼 일반대중의 보편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제에 우리들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 어처구니없는 과거의 폭력과 학정으로부터 또다시 우리들의 운명을 유린당하지 않으려면 “현실은 과거 진화의 결정이며, 미래의 청사진일 수 밖에 없음”을 당면 화두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 최고 권력자가 진두지휘하여 일반 시민대중에 대한 불의와 불법의 폭력행위를 자행하였으므로 통치권을 계승한 현직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실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또한 과거의 죄업에서 자유스럽지 못한 사법부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속죄의 기회를 제공, 악업의 윤회를 잘라내게 하고, 독재권력과 그 체계에 의해 철저히 비인간화된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위로가 실천되어야 한다.

특히 사법부는 1995년 한 방송국이 실시한 사법제도 100주년 기념 설문조사에서 현직 판사 315명이 인혁당 사건을 “우리나라 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런 재판”이었다고 응답한 사실을 외면하고 실정법 논리로 역사의 어둠 속에 감추려 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시밭길일지라도 이러한 청산과 정리가 회피된다면 허무주의와 시민적 불신이, 약육강식의 논리가 우리 사회를 삼켜버리는 불행과 고통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13. 세상을 향하여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우리 민족의 현실이 일본의 올드콘(우익)에 의해서, 또 친일인사에 의해 거듭 희롱당하는 처지를 바라보면서 도무심한, 아니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한 가벼움은 서글프다.

‘실사구시의 실용’을 처방으로 설득하는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의 현실타협이 구태를 용납하고 구악을 변형하여, 그들에게

다시 생명력을 제공하고 있는 간교한 현실 앞에 절망을 느낀다.

과거 사청산의 대의를 시민대중에게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시대의 ‘ 말과 글 ’을 우리는 버려야 하는가, 아니면 무능력한 나를 매질하며 형극의 세월을 기다려야 하는가?

30년의 세월은 너무 길고 모질었다.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밖에 없는 미련은 미망인가?

아니면 조건반사적인 생명의 의지력인가?

단 한 순간이라도 순리의 세상에서 미소를 짓고 싶다!